

# 2026 일본 진출전략



# Contents

---

##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11
가. 정부 현황	11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12
3. 주요 이슈 Pick	17
가. 새로운 총리 취임에 따른 경제, 산업 정책 변화 전망	17
나. GX 시대 개막, 탈탄소 위한 에너지 산업 본격 대전환	18
다. DX를 넘어, 일본의 AI·AX 혁신 드라이브	19
라. 일본 내 구조적 한류 기반 확립, K-소비재 진출 확대의 골든 타임	20
마. 초고령화 사회 일본, 시니어 이코노미의 빅뱅	21

---

##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24
가. 시장 특징	24
나. 무역	26
다. 산업	32
라. 투자	34
2. 유망 산업	38
가. 첨단 소부장 전략산업	38
나. 수소, 암모니아 관련 기반 산업	41
다. AI·AX 관련 산업	45
라. 한류 연계 소비재·콘텐츠 산업	47
마. 디지털 헬스 및 고령자 케어 산업	49
3. 협력 기회	53
가. 통상·G2G	53
나. 프로젝트	54

---

##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58
2. 진출전략	60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상품)	81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86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91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93

# I . 진출 환경

- |               |    |
|---------------|----|
| 1. 경제 환경      | 04 |
| 2. 정치(정책) 환경  | 11 |
| 3. 주요 이슈 Pick | 17 |

# I 진출 환경



## 1. 경제 환경

- (전망) 미국 관세 조치로 수출은 부진, 임금 상승과 내수회복으로 완만한 성장 예상
- (호재) 34년 만에 최고치인 임금 인상, DX(디지털전환)·GX(녹색전환) 중심 설비투자로 내수 경제 강화
- (부진) 생활물가 상승 장기화와 인력 부족, 미국 추가관세 우려가 소비·투자 위축 요인

### □ (전망) '26년 일본 경제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성장세 예상

- 日 현지 싱크탱크는 '26년 일본 경제의 GDP 성장률을 0.7~0.9% 수준으로 예상, 미국 관세로 인한 수출 부진을 내수 회복이 보완할 것으로 기대
  - 미국발 관세 리스크로 수출에 제약이 잔존하나, 임금 상승과 물가 안정으로 가계 소비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설비투자를 기반으로 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서비스 소비 중심의 내수가 경기의 주축이 되며, 기업 투자는 DX·GX·R&D 등 소프트웨어·연구개발 분야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

#### 일본 싱크탱크별 실질 GDP 성장률 예측치 비교

싱크탱크명	2025년	2026년	2027년
미쓰비시 UFJ 리서치 앤 컨설팅('25년 9월 9일)	0.7%	0.9%	0.8%
일본종합연구소('25년 9월)	0.8%	0.7%	N/A
닛세이기초연구소('25년 10월)	0.7%	0.9%	N/A
다이와종합연구소('25년 9월 8일)	0.8%	0.8%	N/A
다이아이치생명경제연구소('25년 9월 8일)	0.7%	0.7%	N/A

### □ (호재 요인) 3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임금 인상과 설비투자가 견인하는 내수 경제

- 봄철 임금협상으로 임금인상\*이 지속, 식료품 가격 상승률 둔화, 고등교육 무상화 및 에너지 보조대책 등 정부 경제정책이 민간의 소득 환경을 개선

\* '25년 평균 임금 인상률은 '91년의 5.66% 이후 34년 만에 높은 수준인 5.25% 기록

\*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률 또한 4.65%로 '92년의 5.10%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 기록

- 설비투자 또한 완화적 금융 환경의 영향으로 증가세이나 미국 관세, 인력 부족 등의 하방요인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 (부진 요인) 소비·투자 부진 등 내수 침체와 미국발 관세로 인한 이중고

- 생활물가 상승 장기화로 내수 소비 위축, 인력 부족과 기업 수익 악화로 설비투자 둔화, 대외 불확실성이 경기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식품 등 필수 소비재 물가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라 민간 소비 감소 및 기업 수익 악화에 따른 경계감으로 투자를 유보하는 등 하방 리스크도 존재
  -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설비투자 공사인력 부족으로 생산·공급에 제약
  - 관세협상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对미 무역흑자가 지속하여 추가관세 부과 우려

#### □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인구	백만 명	126.2	125.8	125.5	125.2	124.4	123.9	123.3	122.7
명목 GDP	십억 달러	5,118	5,054	5,039	4,262	4,213	4,019	4,279	4,463
1인당 명목GDP	달러	40,548	40,160	40,155	34,080	33,845	32,498	34,713	36,391
실질 성장률	%	-0.4	-4.2	2.7	1.0	1.2	0.1	1.1	0.6
실업률	%	2.4	2.8	2.8	2.6	2.6	2.6	2.6	2.6
소비자물가 상승률	%	0.5	0	-0.2	2.4	3.3	2.7	3.3	2.1
재정수지(GDP대비)	%	-3	-9.1	-6.1	-4.2	-2.3	-1.5	-1.3	-2.0
총수출	십억 달러	705.6	641.3	756.1	746.8	717.3	707.0	544.4 (1~9월)	-
(對韓 수출)	십억 달러	46.2	44.6	52.5	54.2	46.9	46.4	34.8 (1~9월)	-
총수입	십억 달러	721.0	635.4	770.8	900.0	785.8	742.5	562.8 (1~9월)	-
(對韓 수입)	십억 달러	29.6	26.6	32.0	33.6	31.0	31.4	22.6 (1~9월)	-
무역수지	십억 달러	15.4	5.9	-14.7	-153.1	-68.5	-35.5	-18.4 (1~9월)	-
경상수지	십억 달러	176.3	149.9	196.2	89.9	158.5	193.0	166.9	162.0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09	106.8	109.8	131.4	134.3	151.1	148.8 (1~8월)	-
해외직접투자	백만 달러	258,276	150,103	209,620	175,097	195,447	208,057	108,735 (1~6월)	-

주1: (해외직접투자) 국제수지, Net flow 기반, (외국인직접투자) 국제수지, Net flow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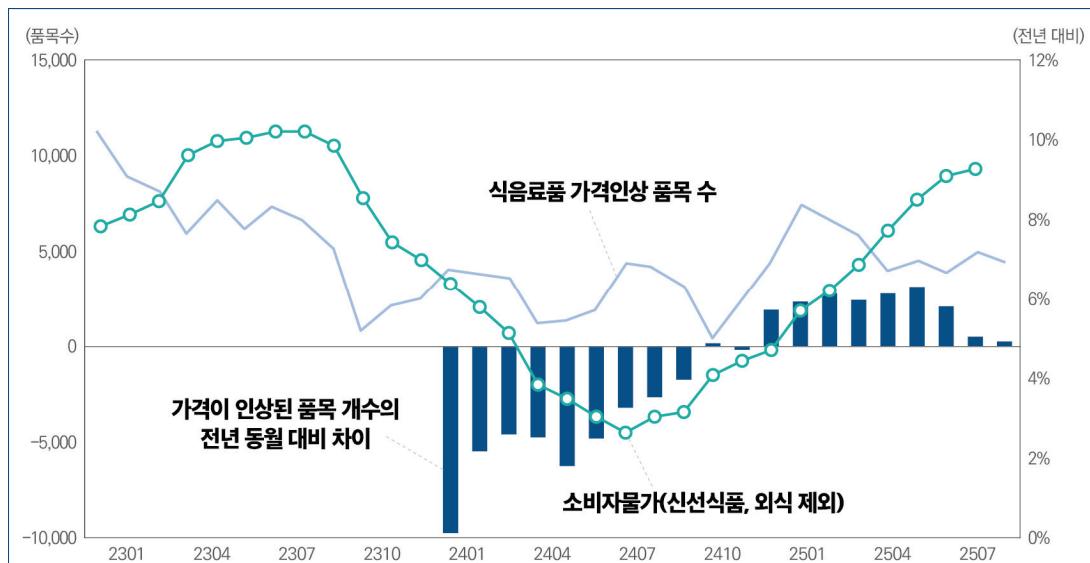
주2: '25년 수치는 추정, '26년 수치는 전망, 각 '25년 10월 7일까지의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IMF(국제통화기금), Global Trade Atlas,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 □ 현지 경제 상황

- (GDP) 미국 관세 영향으로 수출 위축, 개인 소비 회복 둔화 등 내수 활력 감소
  - 내각부 발표 '25년 4~6월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5%(연 환산 2.2%)를 기록했으나, 7~9월은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현지 싱크탱크 또한 '25년 하반기 일본 경제를 해외 경기 침체와 관세로 인한 수출 수익성 악화를 배경으로 제조업 기업 활동 둔화 등 부정적으로 전망
    - \* (JCER(일본경제연구센터)) '25년 7~9월 일본의 실질국내총지출은 전분기 대비 0.2% 하락 전망, '25년 10~12월은 이전 분기 대비 0.0%로 보합 전망
    - \* (일본총연) 하반기부터 관세 인상으로 인한 세계 물가 상승, 기업 이익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표면화되며 일본의 對세계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한편, 미국 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는 연내 일회성으로 종료되며,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하반기 경기는 내수에 좌우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
- (소비)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지속으로 소비자 심리 회복 둔화
  - 소비자 물가는 '24년 12월 이후 줄곧 전년 대비 3%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25년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7%를 기록
    - \* 소비자물가지수 추이(전년 대비 증감, %) : ('21년)△0.2 → ('22년)2.5 → ('23년)3.2 → ('24년)2.7
  - 특히 주식인 '쌀' 가격이 전년 대비 약 2배 상승, 비교 가능한 '71년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연이어 기록, 쌀이 포함된 외식 메뉴나 조리식품에도 영향
    - \* '25년 쌀 가격 추이(전년 동월 대비 증감, %) : ('25년 4월)92.1 → ('25년 5월)98.4 → ('25년 6월)107.1

〈식음료품 중 인상된 품목 수와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ニッセイ基礎研究所

- (설비투자) 미국 관세로 투자 관망세이나 일본 국내 설비투자는 4년 연속 증가 전망
  - '24년 대기업(자본금 10억 엔 이상) 설비투자는 DX(디지털전화)·AI(인공지능)·EV(전기차) 분야에서 전년 대비 10.5% 증가, '25년 또한 14.3% 증가 전망으로 미국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두 자릿수 유지
    - \* 일본 대기업 설비투자 계획(총산업, %) : ('23년) 6.9 → ('24년) 10.5 → ('25년) 14.3(예상)(일본정책투자은행)
    - \* 실질 설비투자 주이(%) : ('25년 1Q) 0.7 → ('25년 2Q) 0.6 → ('25년 3Q, 예상) 0.7 → ('25년 4Q 이후, 예상) 0.5(내각부)

### 제조업 부문별 설비투자 계획 특징

부문	2024년		2025년	
	전년비	특징	전년비	특징
자동차	11.2%	탄소중립 부문 생산설비 투자	28.2%	EV 전환 고려한 전동차 투자 증가
일반기계	△19.6%	물류, 반도체 제조장치 주춤	36.8%	에너지·방위 분야 공작기계 확대
화학	9.0%	고기능 화학·의약품 수요 증가	9.6%	반도체용 고기능 화학품 및 의약품 수요
철강	18.0%	EV 증산, 유지보수 중심으로 증가	35.7%	탈탄소 대응 본격화
식품	△2.2%	건강 지향 등 고부가가치 지향성 주춤	55.2%	탈탄소 투자로 대폭 증가
석유	51.6%	탈탄소 투자 증가	35.0%	정유소 유지보수 확대, 탈탄소 투자
전기기계	△9.8%	차량용 반도체 투자 재검토	8.9%	반도체 수요 확대로 제품 고도화
비철금속	△3.3%	대형 투자 주춤, 반도체·EV 부진	4.7%	반도체·EV 부문 중장기 투자
정밀기계	25.1%	반도체 제조장비 중심 증가	△9.2%	전년 대폭 증가의 반등으로 감소

자료: 日本政策投資銀行(2025.8.4.), 「2025年度設備投資計画調査」

### 비제조업 부문별 설비투자 계획 특징

부문	2024년		2025년	
	전년비	특징	전년비	특징
운송	12.9%	역세권 개발, 항공기 구매, 선박 제조	18.7%	유동 인구 확대에 따른 공항 시설 개발
도소매	1.8%	기존 점포 리뉴얼, 물류센터 신설	21.3%	점포 리뉴얼 및 디지털화
전력	16.4%	원자력 관련 투자, 송배전망 유지보수	9.3%	원자력, 송배전망 투자 지속
부동산	3.7%	공사 지연도 있으나 대형개발 본격화	9.2%	도심 오피스, 물류·호텔·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서비스	24.0%	엔저(円安) 및 인바운드 수요 확대	11.6%	신규 투자 주춤, 기존 시설 고부가가치화
정보통신	21.7%	AI, 데이터센터, 광섬유 등 투자 확대	△ 0.1%	통신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투자 증가 AI 계산 기반 프로젝트 투자 감소

자료: 日本政策投資銀行(2025.8.4.), 「2025年度設備投資計画調査」

- (생산) 통상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자동차 공업 생산에 일부 타격
  - 본격 미국 관세의 영향권에 든 자동차 공업의 생산은 감소세이나, 범용·업무용·생산용 기계 공업이 증가하는 등 업종별로 생산 동향이 다소 상이
  - '25년 3~4월 본격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 관세로 일본 내 자동차 및 부품의 경상이익은 전년 대비 29.6% 감소, 철강은 48.2%('25년 2분기 법인기업통계)
  - 일본 기업들은 对미 수출가격을 인하해 판매가를 유지하여 수출 물량 감소를 방어하고자 했으나, '25년 6~7월부터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전환
    - \* 일본 자동차의 对미 수출단가(만 엔) : ('25년 1월) 448 → ('25년 6월) 338 → ('25년 7월) 341(일본 경제신문)
- (고용) 저출산·고령화로 인력 부족 심화, '25년 7월 실업률은 코로나19 이후 최저
  - '25년 7월 일본의 완전실업률은 2.3%로 '19년 12월 이후 최저, 취업자 수 및 정규직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어 총무성은 고용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분석
    - \* 일본 완전실업률 추이(%) : ('22년) 2.6 → ('23년) 2.5 → ('24년) 2.5 → ('25년 1Q) 2.5 → ('25년 7월) 2.3(총무성)
  - 다만,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생산성 및 고령자 노동참여율\* 제고의 필요성이 높아 졌고, IT·과학기술·연구개발 등 전문 인력(고도 인재)뿐 아니라 운송·우편·간병 등 서비스 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됨
    - \* 일본 65세 이상 인구비(%) : ('10년) 20.3 → ('20년) 28.6 → ('24년) 29.3 → ('30, 예측) 30.8 → ('45, 예측) 36.3(총무성)
    - \* 일본 65세 이상 인구 취업률(%) : ('14년) 20.8 → ('17년) 23.0 → ('20년) 25.1 → ('22년) 25.2 → ('24년) 25.7(총무성)
- (교역) '25년 8월 기준 对세계 교역은 전년 동월비 3.6% 증가한 9,783억 달러
  - (수출) 전년 동월 대비 5.2% 증가한 4,808억 달러로 주요 수출국은 미국(907억 달러, △ 0.8%), 중국(815억 달러, +0.8%), 대만(342억 달러, +17.0%), 한국(309억 달러, +3.5%) 순
  - (수입) 전년 동월 대비 2.1% 증가한 4,975억 달러로 주요 수입국은 중국(1,146억 달러, +7.7%), 미국(567억 달러, +0.31%), 호주(307억 달러, △ 13.4%), UAE(219억 달러, △ 12.0%) 순
  - '25년 8월 对미 무역흑자는 전년 동월 대비 50.5% 감소, 미국·일본 관세합의로 자동차 수출에 물꼬가 트였으나 타 품목에의 일률관세가 흑자 감소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
- (투자 유치) '24년 외국인직접투자액은 17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0% 감소
  - (지역) 미국의 对일 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329% 감소하는 등 마이너스로 전환되었고, 아시아의 对일 투자도 13% 감소
  - 한편, 일본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 잔고를 '30년까지 120조 엔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중점 유치 분야는 DX·GX·라이프사이언스로 설정

## 주요국 對일본 직접투자 추이

지역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단위: 백만 달러)
						2025년 상반기
전 세계	62,579	35,018	48,195	20,187	17,154	22,612
아시아	10,269	22,526	13,482	11,574	10,031	6,826
중국	1,459	857	828	1,248	1,349	△ 484
홍콩	1,946	12,480	2,915	1,989	3,598	2,802
* ASEAN4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716	217	1,485	1,667	1,724	914
대만	797	1,161	598	724	532	544
한국	4,445	7,781	6,719	5,583	2,477	2,760
싱가포르	871	△ 11	848	299	256	220
ASEAN4	17,305	10,410	13,876	4,351	△ 8,174	8,111
북미	17,220	9,941	9,340	3,947	△ 9,030	7,241
전체	37,609	△ 7,159	14,471	4,186	15,958	6,391
유럽	△ 1,194	△ 998	2,320	1,473	11,170	3,421
EU	30,546	△ 3,099	9,043	2,733	△ 1,031	△ 1,165

자료: JETRO 직접투자통계(국제수자실제 자금 흐름 기준(Net, Flow))

- (업종) '24년 제조업은 3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1.4% 감소, 비제조업은 5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5% 감소

\* (제조업) 운송기계기구, 목재·펄프, 섬유는 증가세, 화학·의약, 정밀기계기구는 감소세

\* (비제조업) 부동산업, 통신업, 서비스업은 증가세, 수산업, 도·소매업, 금융·보험업은 감소세

- (투자 진출) '24년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2,081억 달러로 통계 계측 이후 최고

\* ('21년) 2,096억 달러 → ('22년) 1,751억 달러 → ('23년) 1,954억 달러 → ('24년) 2,080억 달러

- 국가별로는 미국(786억 달러), 네덜란드(184억 달러), 싱가포르(167억 달러) 순이며,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628억 달러), 도·소매업(313억 달러), 통신업(208억 달러) 순

- 특히 미국으로의 투자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총액의 약 40%에 차지하는 규모로, '14년 이후 최고액이며 지난 10년간 약 2배 이상 증가함

## 일본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지역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b>전 세계</b>	150,103	209,620	175,097	195,447	208,057	108,735
전체	37,045	63,264	36,787	37,477	42,707	21,930
중국	11,074	12,464	5,428	3,437	3,385	1,898
<b>아시아</b>						
* ASEAN4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1,516	5,477	407	633	2,320
싱가포르	7,688	20,257	6,869	9,834	16,762	8,261
ASEAN4	7,686	11,077	12,923	10,423	9,854	4,846
베트남	2,360	3,683	3,234	4,954	1,837	1,730
인도	1,570	3,668	4,115	5,999	5,341	3,325
<b>북미</b>	전체	68,740	84,458	68,077	70,098	80,351
미국	66,907	82,875	65,883	66,061	78,605	50,692
<b>유럽</b>	전체	22,210	41,381	40,579	55,581	53,027
EU	△ 6,997	19,731	30,194	33,083	33,120	14,895
<b>중남미</b>	12,851	10,810	14,771	13,493	13,149	5,290
<b>대양주</b>	<b>호주</b>	13,726	7,418	11,839	15,191	16,630
						5,086

자료: JETRO 직접투자통계(국제수자실제) 자금 흐름 기준(Net, Flow))

## 2. 정치(정책) 환경

- (정치) 이시바 내각이 집권 1년 만에 물러나...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재 등장
- (통상) 특정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율성'과, 글로벌 이슈 해결에 이바지하는 '필수성' 확보
- (경제) 안정적·지속적 에너지 수급, 와트-비트 연계, 경제안보 등 산업 정책 추진

### 가. 정부 현황

#### □ 중·참의원 모두 여소야대 구도인 가운데 보수 성향의 자민당 총재 등장

- 취임 이후 치러진 두 차례의 선거에서 연이은 패배로 사퇴 압력이 높았던 이시바 총리는 미국 관세협상 체결을 기점으로 총리 사임 의사를 밝힘
- 다카이치 사나에가 자민당 총재 선거 결선투표에서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기록한 고이즈미 신지로 후보를 꺾고 총재로 선출, 제104대 총리로 취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참의원 모두 여소야대 정국이 계속됨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 및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

#### □ 다카이치 내각의 주요 정책 방향

- (경제·산업) 책임 있는 적극 재정과 성장 투자, (외교·안보)한국-미국-일본 방위 협력, 다자 경제외교 추진, (환경·에너지)원자력, 배터리·태양전지 안전 보급 등이 新 내각의 주요 정책
- (경제·산업) 다카이치 총리는 통화 완화 및 확장적 재정 정책 제시
  - 공적 투자를 통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 국채 발행 허용 등 금융 완화를 통해 강한 일본을 구현하겠다는 입장
  - AI·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강조하며, 스타트업 감세, 노동시간 규제 조건부 완화, 산업별 맞춤형 인재 육성 등 성장 지향형 투자 주창
  -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주도한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탈디플레이션·GDP상승효과가 있었으나 성장 전략 성과가 불충분했다고 지적
  -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성장전략 본부'를 신설, AI·반도체, 조선, 양자, 바이오 등 17개 전략 분야 및 8가지 분야 과제를 설정하고 담당 장관을 지명
    - \* AI·반도체, 조선, 양자, 합성생물학·바이오, 항공·우주, 디지털·사이버 보안, 콘텐츠, 푸드테크, 자원·에너지 안보·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방재·국토 강인화, 신약 개발·첨단의료, 핵융합에너지, 소재(중요 광물·부품소재), 항만물류, 방위 산업, 정보통신, 해양

- (외교·안보) 미국-일본 동맹 및 한국-미국-일본 방위 협력 등 전략적 제휴 협력 강조
  - 한미일 안보 협력과 더불어 준동맹국,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맹국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 '27년 내 방위비 증액(GDP의 2% 수준) 계획을 '25년 내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
- (환경·에너지) 장기적이고 선제적으로 미래 지향적 에너지 체계 강화
  - 원자력 발전 확대에 긍정적이며, 특히 차세대 원전 기술에 투자해 한국처럼 원전을 수출 상품화할 것을 주장

##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 □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 ‘통상전략 2025’ 발표

- 금년도 통상백서는 별도의 장을 할애해 일본이 나아가야 할 전략 목표와 방향을 ‘통상전략’으로 제시
  - \* 일본 정부는 '49년부터 통상백서 발간(77회), '25년도에는 통상 환경 대·내외 나눠 분석
  - (목표)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자율성’을 확보하고 일본이 우위에 있는 산업의 해외 진출을 통해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필수성’ 확보
  - (방향 ①) 국제사회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타국과 원-원 관계를 구축하고 국제 경제질서의 재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다종적 경제 외교 추진
    - \* 보호주의적 대처를 가속화하지 않도록 자유무역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국가들과 연계하는 등 일본이 인도·태평양 국가에서의 리더십 발휘
    - \* 무역·투자 관계 공고화를 통한 공급망 강화 및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글로벌사우스에도 확장
  - (방향 ②) DX, GX 등 세계적 과제 해결을 위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해외 활력을 흡수하기 위한 수출 시장 다각화, 글로벌사우스 투자 확대
    - \* (규칙 및 환경 정비를 통한 신규 시장 개척) 해외 사업 리스크 경감을 위해 상대국 정부·경제계에 일본의 블레이킹 노하우를 전수, 일본 기업이 사업하기 유리한 환경 조성
    - \* (재화와 서비스를 결합한 첨단 서비스 수출 확대) '33년까지 콘텐츠 산업 해외 매출 20조 엔 달성을 목표로 크리에이터 양성, 해외 진출 강화, 지역 활성화 지원체계 개편
  - (방향 ③) 보호주의의 부상과 과잉 공급, 과잉 의존으로 인한 위협이 표면화되는 상황에서도 공급망 강화, 자원 공급 등 자율성 강화와 정책 협조
    - \* (국제 협력 프레임워크 확대) 다자 또는 양자 협정 기반으로 협력을 추진하며 CTPPP, QUAD(4자 안보 대화),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지역 프레임워크뿐 아니라 MSP, Bio-5 등 산업별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 \* (에너지·광물자원 권리 확보 및 조달처 다각화) 자원외교, JOGMEC(일본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의 R&D 지원, NEXI(일본무역보험)의 무역보험 등을 통해 에너지 광물자원의 권리 확보 및 조달처 다변화를 추진

## □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을 위한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

- 일본 정부는 ’25년 2월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각의 결정, 특정 전원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 에너지 조달과 함께 탈탄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음
  - \* ’40년 목표 전원 구성 : 재생에너지 40~50%, 원자력 20%, 화력 30~40%(재생에너지는 태양광 23~29%, 풍력 4~8%, 수력 8~10%, 지열 1~2%, 바이오매스 5~6%로 구성)
- ’11년 동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기조\*를 유지했으나 금번 계획에는 ‘원자력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명기
- 최근 간사이 전력은 후쿠이현 미하마 원자력발전소에 원전 재건축을 위한 지질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 ’11년 지진 이후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처음
  - \* 다만, 원자력 발전은 지속적인 안전 관리 및 국민의 신뢰 회복이 과제로 남아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 이외에도 ①탈탄소 전력 투자회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사업자 신규 투자 촉진, ②변함없는 철저한 절전, ③재생에너지는 지역상생과 국민 부담을 억제하며 최대한 도입, ④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및 부유식 해상풍력 확대 등 강조

## □ DX와 GX를 연계한 ‘와트–비트 연계’ 정책 추진

- 일본 정부는 ‘GX비전 2040’,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에서 DX와 GX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두 가지를 연계한 ‘와트–비트 연계 정책’ 추진 의지를 보임
  -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전력 인프라(Watt)와 정보통신 인프라(Bit)를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운영
    - \* 데이터센터 지역별 분포 비율 : 관동(61.1%), 관서(24.3%), 중부(4.7%), 츄고쿠·시코쿠(2.9%), 큐슈 (2.8%), 혼카이도(2.0%), 도호쿠(1.8%), 오키나와(0.4%) (총무성, ’23년 기준)

## ‘와트-비트 연계 민관 간담회 1.0’ 주요 내용

변경 사항	주요 내용
당면한 데이터센터(DC) 수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송배전 설비 지속적으로 점검, 정비해 사용연한을 높이고, 전력계통에 여유가 있고 조기 전력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DC 입지를 촉진</li> <li>통신 인프라 구축은 일반적으로 전력 인프라보다 신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이 적으로, 전력설비는 기존 것을 활용하되 통신 지연을 감소시킬 수 있는 APN(All Optical Network) 연구개발 추진</li> </ul>
새로운 데이터센터(DC) 집적 거점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C 설비의 간신 및 전산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DC 집적지 외에 기가와트급 DC 집적거점을 여러 곳에 조성</li> <li>집적지 선정 시 ①전력 인프라 구축 현황 및 확장 가능성(잠재력), ②통신 인프라의 지중화 및 이중화, 지반 안전성, 부지 넓이 등 DC 운영을 위한 요건 확인, ③기존 집적거점에서의 분산 입지 등을 고려</li> <li>단계별로 국제 해저케이블과 IX(Internet Exchange Point, 인터넷 교환지점)도 전략적으로 정비하여 편의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제 경쟁력도 제고</li> <li>향후 DC에 의한 전력 수요 증기를 감안해 경제 및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탈탄소 전원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li> </ul>
데이터센터(DC)의 지방 분산 및 고도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에서의 DX 추진과 국토의 균형적 강건화에 기여할 수 있는 DC 지방 분산을 지속적으로 추진</li> <li>각 DC의 축전지, 코제네레이션(연료로 전력과 열을 생산·공급하는 시스템) 등의 정비를 통해 기존 전력 인프라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의 가능성 검토</li> </ul>

## □ 자국 산업 보호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제안보 추진

- (정책) 일본 정부는 자국 전략산업과 핵심 기술을 보호하여 경제적 자립과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며 경제안보 관련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
  - ‘경제안보추진법(‘22년 5월)’을 제정, <sup>①</sup>중요 물자 안정 공급, <sup>②</sup>사회기반 서비스 강화, <sup>③</sup>중요 기술 R&D 지원, <sup>④</sup>특허출원 비공개 등 4개 시책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
  - 이후 법 개정을 통해 핵심 인프라 분야를 확대(의료부문 추가)하고 특정 중요물자에 해저케이블, 인공위성 등을 추가하는 조치 실시(‘25년 4월)
  - 자민당 경제안보추진본부는 안보상 중요한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 법안을 ‘26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검토 중(일본 경제신문, ’25년 6월)
- (현황) 일본 정부의 자국 경제·산업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기업의 경제안보 필요성 체감도는 저조하며 대응 또한 미비한 것으로 설문결과 확인
  - ‘2025 모노즈쿠리 백서’에서 제조 기업의 경제안보 인식 및 대응실태를 확인한 결과, 인지도는 높지만 관련 대응의 시행 비중은 절반 이하 수준임
    - \* 제조사업자의 경제안보 대응 현황에 대한 설문결과, 61.8%가 ‘미대응’이라고 응답했으며, 이해도 또한 ‘들어 본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이미지는 모르겠음(70.7%)’이 최다
  - 이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민간과 정부의 인식에 갭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므로, 향후 기업의 경제안보 대응 체제 마련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할 전망

## □ 수출관리제도 개정 및 보완적 수출 규제 본격 시행

- (배경) 국제 질서 및 분쟁 양상의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기술·화물에 대한 보완적 수출관리를 도입하는 안보 대응에 일본도 동참
  - 바세나르 체제에 기반해 우호국인 A그룹 외의 군사전용 우려 대응에만 집중하나, 비회원국 주요 국가(이스라엘, 중국 등)의 민감 기술 보유 및 확산 증가
    - \*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 냉전시기의 對공산권 수출통제체제인 COCOM의 후속 체제로 출범하여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불법축적 방지를 위해 설립
  - 또한, 일반 무기의 용도 요건을 UN 무기금수국에 한정하고 있어 우려되는 일반 국가라도 허가 하에 수출 가능하며, A그룹 국가를 통한 정보 입수도 가능
  - 그밖에 드론, 위성, 3D프린터 등 시중 조달이 가능한 범용품의 군사전용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점을 감안, 현재의 단순 성능 규제에 대한 한계 체감
- (개정) 리스트 규제 대상품목을 늘리고 캐치올 규제 적용국 및 요건을 추가
  - (리스트 규제) 경제산업성은 '25년 3월, '외환령 및 수출령 일부개정 정령'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리스트 규제 대상을 추가하는 등 개정 추진
    - \* 리스트 규제 : 무기, 원자력, 화학병기, 미사일, 첨단재료, 전기·전자, 센서 등 군사전용 우려가 높은 품목의 수출 시 경제산업성 허가 要
    - \* 리스트 규제 대상 : 반도체 소재, 금속적층조형장치, 극저온냉각장치, 적외선 흡수재 관련기술, 피복세라믹 관련 기술
  - (캐치올 규제\*) 경제산업성은 또한 '25년 4월 '외환령 등 일부개정 정령'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A그룹 국가, 일반 무기 등에 대한 적용 요건을 추가함
    - \* 리스트 규제 외, 일반화물·기술이라도 군사전용으로 개발될 우려가 있을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보완적 의무

### '외환령 등 일부개정 정령' 변경 내용

변경 사항	주요 내용
A그룹 국가를 경유한 우회수출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그룹 국가라도 우려국으로의 우회수출 우려가 있을 시 군사 유용 우려에 따른 경제산업성에 통지요건을 적용</li> </ul>
안보상 우려가 높으나 규제 비대상 화물에 객관 요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 무기금수국에는 전 품목에 대한 용도 요건은 유지하면서 수요자 요건(외국 유저 리스트, 명확한 가이드라인) 추가</li> <li>• 특정 품목에는 일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의 경우에도 용도 요건과 수요자 요건 등 객관 요건을 적용해 경제산업성 허가 취득을 요구</li> </ul>
동맹국 군대의 수출허가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맹국 부대가 일본의 자위대와 공동 훈련을 위해 국내에 반입한 방위 /7장비 등 화물의 수출에 대해서는 허가대상의 예외로 인정</li> </ul>

- (전망) A그룹 국가의 수출관리규제 예외 범위 축소에 따른 한국·일본 교역에의 영향 모니터링 및 국제 공조 중심의 안보 협력 변화 모색

- 한국은 A그룹 국가에 속해 리스트 규제만 적용받고 캐치올 규제에 대해서는 적용 외였으나, 개정 후 통지 요건이 적용됨에 따라 수출 절차에 하들 발생
- 군사 유용 우려가 있다고 지정된 특정 품목의 한국의 對일본 수입 비중은 9.9%로, 세부품별 순위는 공작기계류(28.8%), 검사장비(15.7%), 집적회로(9.9%) 순

#### 한국의 특정품목의 대세계·대일본 수입 현황

분류	HS CODE	對세계 수입	對일본 수입	비중(%)
공작기계	8456, 8457, 8458, 8459, 8460, 8461	714,541	205,506	28.8%
레이더 등	852610, 852691, 852692	651,655	21,089	3.2%
집적회로	854231, 854232, 854233, 854239	60,429,707	5,979,620	9.9%
항공우주	880260, 8806, 8807	1,123,251	5,847	0.5%
항해장비	901420, 901480	298,552	20,328	6.8%
검사장비	902750, 903020, 903032, 903039	615,783	96,644	15.7%
합계		63,833,489	6,329,034	9.9%

자료: Global Trade Atlas

### 3. 주요 이슈 Pick

#### 가. 새로운 총리 취임에 따른 경제, 산업 정책 변화 전망

#####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 취임

-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사임에 따른 조기 총재 선거에서 결선투표 끝에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제치고 승리
  - 일본 첫 여성 총리의 탄생은 남성 중심 정치 구조 변화의 상징이자, 다양성 확대, 정책·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신호탄으로 평가

##### □ ‘아베노믹스의 3개의 화살’을 기본 골격, 경제안보 강화와 전략산업 육성을 추가

\*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 : 대담한 금융 완화, 기동적 재정 정책,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성장전략

- 다카이치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최측근으로, ‘아베노믹스’를 계승하여 이를바 ‘사나에노믹스’라는 경제 안보 강화와 전략산업 육성 추진 정책 전개 전망
  - (금융) 금융 완화 정책 지속, 일본은행의 저금리 정책 유지 및 양적 완화 기조 강화
  - (재정)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 적자 국채 발행 용인
  - (소득) 대규모 감세 및 가계·중소기업 대상 직접 현금 지원
  - (투자) 경제안보 전략산업(반도체·AI·바이오·첨단소재 등) 집중 투자 확대

##### □ 관련 산업 전망

-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
  - 경제안보담당상 재임 시절부터 반도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 AI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소재 개발에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이 배정될 전망
- 방위 산업 및 우주항공
  - 헌법 개정을 통한 자위대 명기와 국방력 강화를 공언, 안보 예산 증액으로 방위 산업 육성 및 무인기, 사이버 방어 등 첨단 방위 기술 개발 확대 전망
- 제조업 및 수출 산업(자동차·기계·전자)
  - 엔저(円安) 기조 유지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책, 자동차(전기차, 하이브리드), 산업기계, 로봇, 정밀기기 등 일본의 전통적 강점 산업이 수혜 받을 것으로 예상
-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 일본은 세계 최고령 사회로서, 고급 의료와 바이오 기술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제약, 의료기기, 재생 의료, 유전자 치료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

## 나. GX 시대 개막, 탈탄소 위한 에너지 산업 본격 대전환

### □ 탈탄소 성장형 경제 구조로 전환 위한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과 ‘GX비전 2040’

- ‘GX비전 2040’,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올해 초 내각에서 승인,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본 정부는 본격 탈탄소 경제 구조 구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함
  - ‘GX비전 2040’에서는 탈탄소 성장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장기 로드맵을 제시 하였으며, 본 비전을 바탕으로 탄소 가격제 추진
  -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국제 에너지 정세 및 AI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를 고려, 재생 에너지와 함께 원자력을 최대한 활용해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선언

### □ GX 추진법 개정 통해 시장 기반 감축 체계 마련

- 선언적 탄소중립을 넘어, 실행 가능한 시장 기반 감축 메커니즘 마련
  - 일본 정부는 ’23년 GX 추진법을 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병행하여 최종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함
  - ’25년 5월 28일 개정을 통해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만 톤 이상인 기업에 대해 ’26년부터 배출량 거래제 ‘GX-ETS’ 참여를 의무화하여 배출량을 할당하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비용을 부담토록 규정
- \* 탄소배출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은 철강, 시멘트, 전력, 석유화학, 제조업 등 약 300~400개사 추정, 이들은 일본 전체 배출량의 약 60% 차지

### □ 향후 탄소배출 억제 산업과 배출권 관리 플랫폼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

- 탄소배출을 직접 줄여주는 고효율 모터, 히트펌프, 압축기 등의 고성능 설비와 AI 기반 공정 제어 기술,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스마트팩토리 전환 사업, CCUS(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와 같은 친환경 기술 수요 확대 전망
- 재생에너지 산업과 ESS(에너지저장시스템)와 PCS(전력변환장치) 기술 활용 산업, J-크레딧 및 국제 탄소 크레딧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배출량을 자동 계측 및 시각화하는 SaaS 솔루션을 포함한 탄소 회계 및 배출량 관리 플랫폼 수요도 유망
- 한국은 이미 ’10년대 중반 ETS와 탄소세 체계를 미리 갖추며, 이와 관련한 유무형의 제품과 경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일본의 탈탄소화 수요에 맞는 제품과 기술 수출이 가능하기에 국내 ESG 및 탄소 회계 SaaS 기업들에 기회

## 다. DX를 넘어, 일본의 AI·AX 혁신 드라이브

### □ 전례 없는 인력 부족이 촉발한 일본 내 AI·AX 혁신 수요

- 노동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위기, 생산성 저하에 대한 대응이 절실
  - 일본은 '40년까지 약 1,100만 명의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며 이러한 구조적 위기는 일본 사회 전반에 AI(인공지능)·AX(인공지능 전환) 도입을 불가피한 생존전략으로 만듦
    - \* 일본 건설업계는 '25년 기준 인력 부족으로 인한 미완료 공사가 15조 엔 초과

### □ 급성장하는 AI 시장과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기업 AI 도입

- 급성장하는 일본의 AI 시장 규모
  - 일본 생성형 AI 시장 규모는 '23년 약 1,118억 엔에서 '30년 1조 7,774억 엔으로 약 16배 성장이 전망, 일본 경제연구센터는 AI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75년 시점에서도 세계 4위 경제 규모 유지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
- 일본 기업의 AI 도입은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급증
  - 일본 기업의 생성형 AI 도입률은 41.2%로 아시아 국가 중 최고치를 기록, 제조업 분야는 AI 기술을 제조 현장에 도입하여 불량률을 감소 및 인력 단축 도모, 서비스업 분야는 반복 업무 자동화로 직원들이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하도록 지원
    - \* 제조업 AI 도입률 : ('23년) 14.4% → ('24년) 37.7% (일본정보시스템·유저협회(JUAS), '기업IT동향조사 2025')
    - \* NEC, 일본제철, 철강 코일 포장 시 완충재 정상 삽입 여부를 딥러닝 및 영상 AI로 판별하는 시스템 도입, 육안검사 대비 불량품 감소 등 품질 관리 신뢰성 향상

### □ 일본 정부의 'AI 촉진법' 제정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파격적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
  -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AI 촉진법)' 제정('25년 6월 4일), AI 전략본부를 설립하여 내각총리대신이 본부장을 맡아 국무대신 전원이 참여하는 법정부 차원의 통합 추진체계 구축
    - '30년 회계연도까지 AI 및 반도체에 약 10조 엔 지원, AI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AI 특허 관련 최대 30% 소득공제 혜택 제공 등 적극 지원 정책 전개

### □ K-혁신·소프트웨어 기술력, 일본 DX·AX 실증사업 참여로 진출 교두보 확보 기회

- 한국 소프트웨어 기업의 탁월한 기술력과 빠른 실행력으로, AI 인프라 파생수요 선점 및 일본 지방자치 단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기회 증가 전망

## 라. 일본 내 구조적 한류 기반 확립, K-소비재 진출 확대의 골든 타임

### □ 일본 내 주류가 된 한류, 실생활 한국 브랜드가 일본 시장 깊숙이 침투

- 한국에 관한 모든 것, 단순 유행을 넘어 일본 소비자의 일상에 퍼진 한국 제품
  - 특히 일본 젊은 세대는 SNS를 통해 ‘지금 한국에서 뜨는 것’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한국 브랜드 자체가 트렌드의 상징이 됨
- 일본 내 K-라이프스타일의 폭발적 성장
  - (뷰티) 한국 화장품은 '22년 일본 수입 시장에서 프랑스를 제친 이후 3년 연속 1위를 유지하며, 일본 수입 화장품 점유율 30.1% 차지
    - \* 특히 베이스 메이크업 분야에서는 수입 시장의 63.1%를 점유하며 압도적 우위
    - \* '24년 한국의 对일본 화장품 수출액 10억 4,000만 달러(전년비 29.1% 증가)
  - (식품) 한국 식품은 ‘건강’과 ‘아름다움’ 이미지를 기반 MZ세대에게 강력한 어필을 하고 있으며, K-팝 스타들의 영향력과 SNS 바이럴 마케팅으로 큰 인기
    - \* CJ제일제당의 과일발효초가 일본 식초음료 시장 1위, 비비고 만두는 일본 내 현지 생산 체계 구축
  - (패션) 일본 패션 시장은 83조 원 규모로 세계 4위, 한국 패션의 걸리시록, 미니멀 시크, 빈티지 록, 스트리트 스타일이 일본 MZ세대에게 강력한 어필
    - \* 시부야에서 진행한 현대백화점의 ‘더현대 글로벌’ 팝업스토어는 2개월간 30억 원 매출 기록
    - \* 무신사 단독, 시부야에서 일본 최대 규모 팝업스토어 개최('25년 10월)

### □ 세계 4위 시장 규모와 높은 구매력 기반, K-소비재 글로벌 경쟁력 검증의 장

- 일본 소비재 시장은 한국 기업에게 단순한 수출 시장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 검증의 장이자,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부상
  - 일본은 화장품 세계 3위('21년, 329억 달러), 패션 세계 4위('23년, 8조 4,000억 엔) 시장으로, 진입이 까다롭지만 제품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으면 높은 충성도를 보임
  - ‘일본에서 성공하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한다’는 인식이 업계에 확산되어, 한국 기업은 일본 시장을 글로벌 경쟁력 검증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음

### □ 한류 활용 문화브랜딩·로컬라이징 전략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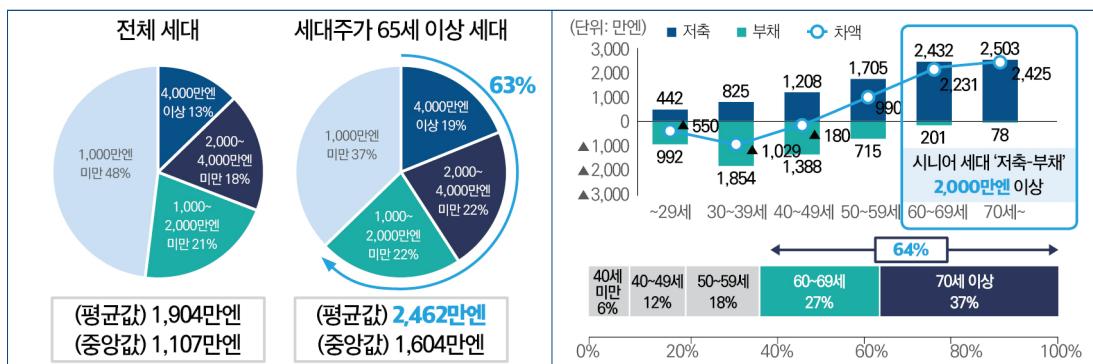
- K-팝, K-콘텐츠 등 최신 트렌드와 연계한 브랜딩 전략과 일본 현지화·한국 정체성의 균형을 맞춘 진출전략 필요
  - 한류 콘텐츠 연계 기획제품, 현지화(일본 기업과 합작, 현지 공장 인수, 현지 대형유통망과의 협업 등)가 주효

## 마. 초고령화 사회 일본, 시니어 이코노미의 빅뱅

### □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주목할 액티브 시니어와 에이지테크(Age-tech)

- '단카이 세대의 초고령화'가 가져올 일본 사회의 변화
  - '24년 기준 일본의 65세 이상 비율은 29.3%에 달하여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며, '50년에는 고령화율이 37.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 UN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
  - '25년은 일본의 베이비부머 세대('47~'49년생)인 '단카이 세대(團塊世代)'가 모두 75세 이상 초고령 세대가 되며, '40년에는 고령화율이 약 35%에 이를 전망
- 인구 파워와 금융 자산을 겸비한 '액티브 시니어' 세대 부상
  - 일본 시니어 세대는 전체 세대 대비 저축액 평균값이 높을 뿐 아니라, 전체 금융 자산의 60% 이상을 60세 이상 가구가 보유하는 등 잠재 소비력이 큼

〈세대별 저축 및 금융 자산 현황(총무성 '가계조사' '23년 기준)〉



자료: 미즈호은행 산업조사부, 고령화 선진국 일본의 시니어 시장 잠재력에 대한 착안, '25년 1월 29일'

- 고령자와 돌봄 종사자를 위한 AI·로봇 등 디지털 기술, '에이지테크'
  -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의 간병 인력 부족은 '26년에는 약 25만 명, '40년에는 약 5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 고령자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속가능한 돌봄 제공을 목표로 하는 AI·로봇 등 모든 '고령 친화 기술'을 통칭하는 에이지테크가 부상

### □ 고령화 최전선의 일본, 시니어 에이지테크 시장 선점의 골든 타임

- 일본 시니어 산업 시장 규모는 '40년에 114조 7,000억 엔으로 지속 증가 전망
  - 액티브 시니어의 소비 패턴과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인력 부족 등 각종 사회 문제 해결 니즈에 착안하여 일본 진출 계획 구상 필요 시점



## II. 시장 분석

- |          |    |
|----------|----|
| 1. 시장 현황 | 24 |
| 2. 유망 산업 | 38 |
| 3. 협력 기회 | 53 |

# II 시장 분석



## 1. 시장 현황

- 명목 GDP 4위 일본은 ‘한국의 4대 교역국’, 산업 분야 상호보완적 협력파트너
- 일본의 GX·DX 대전환기, ‘新산업 협력’의 최대 기회 도래
- 초고령화 등 ‘미래 사회문제 해결 협업’, 글로벌 시장 선점의 시험대

### 가. 시장 특징

#### □ 일본의 경제 지위와 현 주소

- (GDP) '24년 명목 GDP 기준 세계 4위(약 4조 300억 달러) 국가로 '23년 독일에 55년 만에 3위 자리를 내주었으나 G7 국가 중 미국, 독일 다음으로 큰 경제 규모 유지
- (대외 순자산) '24년 기준 533조 엔(약 3조 5,000억 달러)으로 6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나, 34년 만에 독일(569조 7,000억 엔)에 세계 1위 자리를 내주며 2위가 됨
- (무역) '24년 기준 교역액 약 1조 5,000억 달러로, 중국·미국·독일·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5위 규모, 수출액은 '79년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고치 7,070억 달러 기록

#### □ 인플레이션·1인 가구 증가 속 실용·경험 중심으로 변화하는 일본 소비 트렌드

- (절약 지향 소비) 40여년만의 물가상승률 3%대 기록 등 인플레이션 및 실질임금 감소로 가격과 품질을 모두 신중하게 검토하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
- (1인 가구) '50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약 4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1인용 상품, 소포장 제품,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
- (실용·경험·몰입) 비용·시간 투입 대비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소비, 제품 자체보다 경험 중심의 소비, 좋아하는 분야(팬덤, 취미)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소비가 유행

#### □ 주요 분야별 인증·허가 요건에 맞춘 일본 시장 진출 대응 전략 필요

- (전기전자)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인증, 한국의 KC 인증과 유사하며, 일본 법인 또는 일본 수입업자만 신청 가능

- (식품·농림수산물) JAS(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s) 인증, 품질 인증·유기농 인증·지리적 표시 등 식품 수출 시 JAS 마크는 품질신뢰도 제고에 유효
- (화장품·의약품) 일반 화장품은 제조판매 신고(4~6개월), 의약부외품(약용 화장품)은 제조판매 승인(12~18개월) 소요, 제조판매업 허가(일본 법인만 가능)가 필수

#### □ 일본 시장의 전략적 가치

- (지정학적 안정성) 일본 전역이 3시간 이내 접근 가능하며, 단납기 대응 및 K-콘텐츠·뷰티·패션·푸드 등이 일본에 빠르게 확산되는 배경
- (산업 구조 연계성) 일본은 고도화된 제조업 기술력, 한국은 ICT·전자·배터리 산업 기반 보유로 제조업 중심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져 공급망 협력이 가능
- (고도화된 소비 시장) 세계 4위 경제 규모, 약 1억 2,000만 명 인구 보유의 대규모 프리미엄 소비 시장으로, K-브랜드 성장의 프리미엄 무대가 될 수 있음
- (사회 문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여 지방 소멸, 인구 감소 등 한국도 겪을 미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

#### □ 주요 이슈

- (DX·AX) 디지털 전환에서 AI 전환으로 급성장할 시장으로 예상되며, 일본 정부는 스타트업 투자를 10조 엔으로 증액하며 혁신 생태계 조성에 주력
  - \* 일본 DX 시장 규모 : '24년 622억 달러 → '29년(E) 1,892억 달러(연평균 24.93% 증가)
- (GX) 탄소중립 위해 민관 총 150조 엔 투자 추진, '24년 '수소사회추진법' 제정으로 수소·암모니아·재생에너지로 탈탄소 전환 가속화
  - \* 수소 분야 '50년까지 민관 합동 15조 엔 투자, 수소도입량 2,000만 톤 달성을 목표
- (소비재·콘텐츠) 문화·관광교류 확대로, 한국·일본 관계는 지금이 역대 최고조, K-뷰티·푸드·패션 등 K-라이프스타일 일본 내 폭발적 확산
  - \* 한국 화장품 '23년부터 일본 화장품 수입 1위, 일본 오리콘 차트 1~100위까지 앨범 중 41장이 K-팝
  - \* '24년 방일 관광객 중 한국 관광객 1위(약 882만 명), 방한 일본 관광객 전년비 40% 증가(약 322만 명)
- (고령화)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4년 세계 최고 수준, 100세 이상 인구도 '25년 약 10만 명에 달하며 초고령사회 특화된 제품·서비스 수요 증가 예상
  - \* 고령화율 약 30% 육박, 지역 소멸 현상, 지방 경제 저하 등 인구 수요 기반 축소 우려
- (관광업) '24년 역대 관광객 3,700만 명을 기록하며 최고 실적 달성, 전년비 47% 급증, 인바운드 소비액은 5조 9,000억 엔(약 400억 달러)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
  - \* '24년 일본 방문 관광객 중 한국인이 882만 명으로 1위 기록

## 나. 무역

### □ 수출입 동향

- (수출 규모) 일본의 수출은 '22~'24년까지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25년 1~8월 누계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4,808억 달러 기록
   
\* 수출액 추이(억 달러) : ('21년) 7,560 → ('22년) 7,468 → ('23년) 7,173 → ('24년) 7,070
- (수입 규모) 일본의 수입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22년 최근 10년 중 최대치를 기록한 후 감소세, '25년 1~8월 누계액은 전년 동기비 소폭 증가한 4,974억 달러
   
\* 수입액 추이(억 달러) : ('21년) 7,708 → ('22년) 8,999 → ('23년) 7,858 → ('24년) 7,425

### 일본 역외 수출입 규모 동향

(단위: 십억 달러, %)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717.3	△ 4.0	707.0	△ 1.4	480.8	5.2
수입	785.8	△ 12.7	742.5	△ 5.5	497.4	2.1
무역수지	△ 68.5	55.2	△ 35.6	48.1	△ 16.7	45.1
총 교역	1,503.1	△ 8.7	1,449.5	△ 3.6	978.3	3.6

자료: Global Trade Atlas, '25년 10월 6일 기준, '25년 8월 누계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로 산출

### □ 주요 수출국 및 수출 품목

- (수출국) '25년 1~8월 누계 기준 미국(18.9%), 중국(17.0%), 대만(7.1%), 한국(6.4%), 홍콩(5.6%) 순으로 '23년 이후 미국이 일본의 1위 수출국 지위 유지
   
\* 일본의 對중 수출액(억 달러) : ('20년) 1,416 → ('21년) 1,635 → ('22년) 1,446 → ('23년) 1,261 → ('24년) 1,245
   
\* 일본의 對미 수출액(억 달러) : ('20년) 1,183 → ('21년) 1,349 → ('22년) 1,385 → ('23년) 1,438 → ('24년) 1,405
- (수출 품목) '25년 1~8월 누계 기준 자동차(14.3%), 전자집적회로(8.9%), 반도체제조용기기(4.6%), 금(4.2%), 자동차 부품(4.3%) 순(HS Code 4자리)

### □ 주요 수입국 및 수입 품목

- (수입국) '25년 1~8월 누계 기준 중국(23.1%), 미국(11.4%), 호주(6.2%), UAE(4.4%), 대만(4.3%) 순으로 중국이 20% 이상의 점유율로 1위 수입국 지위 유지
   
\* 對中 수입액 비중(%) : ('05년) 21.0 → ('10년) 22.1 → ('15년) 24.8 → ('20년) 25.8 → ('24년) 22.5
- (수입 품목) '25년 1~8월 누계 기준 석유·액청유(8.7%), 석유가스와 그 밖의 탄화가스(6.1%), 전화기(3.4%), PC 및 주변장치(3.2%), 전자집적회로(3.1%) 순(HS Code 4자리)

## □ 對韓 교역 동향

- (교역) '25년 8월 누계 양국 교역 규모는 약 50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
  - '11년 1,080억 달러를 기록했던 양국 교역은 '19년 일본의 對한 수출 규제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년 711억 달러까지 하락, 이후 꾸준히 회복세
- (수입) '25년 1~8월 누계 對일 수입은 322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
- (무역수지) '25년 1~8월 누계 對일 무역수지는 1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무역적자 감소

### 한국의 對일본 교역 동향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누계	(단위: 백만 달러, %)
				증감률	증감률	
對일수출(A)	30,062	30,606	29,001	29,607	2.1	18,758 △4.1
對일수입(B)	54,642	54,722	47,656	47,594	0.5	32,516 4.9
수지(A-B)	-24,580	-24,116	-18,655	-17,987	3.7	-13,758 23.5
교역(A+B)	84,704	85,328	76,657	77,201	0.7	50,924 1.4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수출) '25년 1~8월 누계 對일 수출은 187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
  - 석유제품(휘발유, 제트유, 등유 등) 수출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여전히 1위유지, 한류 영향이 이어지며 화장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

### 한국의 對일본 10대 수출 품목 동향

2024년				2025년 8월 누계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	총 수출	29,607	2.1	-	총 수출	18,758	△ 4.1
1	석유제품	6,873	30.6	1	석유제품	3,668	△ 20.1
2	철강판	2,502	△ 0.5	2	철강판	1,464	△ 14.4
3	반도체	1,136	△ 19.3	3	반도체	802	10.7
4	비누치약 및 화장품	1,042	29.1	4	비누치약 및 화장품	717	10.1
5	금은 및 백금	1,040	0.8	5	합성수지	589	7.9
6	합성수지	831	3.6	6	금은 및 백금	567	△ 16.6
7	농약 및 의약품	731	△ 21.8	7	반도체제조용장비	508	57.9
8	정밀화학원료	728	△ 2.5	8	정밀화학원료	473	△ 1.6
9	플라스틱 제품	606	0.0	9	농약 및 의약품	431	△ 11.4
10	반도체제조용장비	541	10.2	10	플라스틱 제품	415	3.2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MTI 3단위 기준

- (수입) '25년 1~8월 누계 対일 수출은 322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
  - '25년은 메모리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반도체칩 생산에 필수인 실리콘웨이퍼 등 対일 고의존 제품의 수입 증가
    - \*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수입액/비중('24년) : <sup>(1위)</sup>대만 171억 달러/53.1%, <sup>(2위)</sup>일본 57억 달러/17.6%
    - \* 실리콘웨이퍼 수입액/비중('24년) : <sup>(1위)</sup>중국 8억 달러/33.8%, <sup>(2위)</sup>일본 7억 달러/29.4%
  - 반면 철강제품(열연강판)은 건설 및 제조업 부진으로 인한 수요 감소, 중국산 철강재 점유율 확대에 따라 일본산 철강 수입 감소

### 한국의 対일본 10대 수입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8월 누계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	총 수입	47,594	△ 0.1	-	총 수입	32,166	4.9
1	반도체	8,374	13.6	1	반도체	5,518	12.1
2	반도체제조용장비	5,248	13.3	2	반도체제조용장비	4,144	31.0
3	철강판	2,096	△ 22.2	3	플라스틱 제품	1,232	△ 0.5
4	플라스틱 제품	1,932	10.2	4	철강판	1,011	△ 31.7
5	계측제어분석기	1,095	2.6	5	계측제어분석기	780	12.6
6	석유제품	1,079	18.6	6	석유제품	725	12.5
7	농약 및 의약품	1,040	△ 2.3	7	원동기 및 펌프	707	32.3
8	기초유분	979	△ 17.1	8	농약 및 의약품	689	2.2
9	정밀화학원료	881	△ 7.6	9	전자응용기기	652	27.7
10	전자응용기기	831	△ 9.8	10	기초유분	610	△ 12.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MTI 3단위 기준

### • 한국의 일본 내 수출 시장 점유율

- '25년 1~8월 기준 한국의 対일 수출은 전년 대비 4.1% 감소했으나, 반도체 등 기존 주요 수출품과 더불어 화장품 등 소비재가 신흥 수출 강자로 부상
  - 화장품은 석유, 철강, 반도체에 이어 4위 품목으로 부상했으며, 일본 내 수입액 기준으로는 이미 '23년부터 프랑스를 제치고 최대 수입국 지위를 점함
    - \* 対일 수출품 중 비누치약화장품(MTI227)의 순위 : ('22년 8월) 8위 → ('23년 8월) 7위 → ('24년 8월) 5위 → ('25년 8월) 4위
  - \* '24년 일본의 한국산 화장품(HS330499) 수입금액은 약 763억 엔으로 '23년 560억 엔 대비 36.2% 증가 했으며, 수입국별로는 프랑스를 제치고 '23년부터 1위 자리를 유지

## □ 일본 주요 수출 성공 사례



### 성공 사례로 보는 화장품 일본 진출전략 : G社(현지 B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G사는 '17년 N이라는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 화장품 사용 후 즉각적인 안면 주름 개선, 리프팅 및 장기적 개선 효과가 특징적인 제품
- 필수 인증 : 전 성분 신고(후생노동성), 외국 제조판매자 신고(PMDA)
  - 수입자가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 제조 판매업 허가 보유 기업이어야 함
- 성약 소요기간 : 약 3년
- 바이어 발굴경로 : '19년부터 KOTRA 도쿄무역관 지사화 사업을 통해 일본 시장 조사를 진행하고 다수의 홈쇼핑 벤더사를 접촉, '22년 적임 바이어 B사를 발굴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동사의 기능성 화장품은 '사용 후 즉각적인 주름 개선 효과'가 특징으로 그러한 효과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줄 수 있는 유통채널로 '홈쇼핑 방송'을 우선 공략한 것이 유효했음
  - 한국에서도 공영홈쇼핑, 신세계홈쇼핑 등 홈쇼핑 방송에서만 누적 판매 약 750억 원을 돌파한 브랜드임
  - '25년 9월 기준, 일본 지상파 5사(테레비아사히, 테레비도쿄, TBS, 일본테레비, 후지테레비)의 홈쇼핑 채널 방송 및 입점 성공



### 성공 사례로 보는 반도체 일본 진출전략 : W社(현지 A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반도체 테스트 소켓 및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의 설계·개발·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확보
  - 최종 패키징이 완료된 반도체의 전수 검사를 위한 정밀 접촉 기술을 구현하여 오류를 최소화하고 검사의 신뢰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 시장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테스트 소켓 제품군을 개발
- 필수 인증 : 불요
- 성약 소요기간 : 1년
- 바이어 발굴경로 : 바이어 인콰이어리(Inquiry) 접수 이후 KOTRA 도쿄무역관에서 마케팅 사업 지원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반도체 테스트 소켓과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는 높은 신뢰성과 정밀성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제조업 전반에서 품질을 매우 중시하는 일본 시장에서 바이어들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켰음을 보여주는 사례



## 성공 사례로 보는 헬스테크(AI 체형 분석) 일본 진출전략 : F社(현지 M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AI 기반 체형 분석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의 신체 데이터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시각화함으로써, 헬스케어 및 피트니스 분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경쟁 제품 대비 사용자 경험(UI·UX)이 우수하며, 현장 설치 및 운영이 간편함
- 필수 인증 : PSE 인증(하드웨어 적용), SaaS 헬스케어 솔루션은 별도 인증 불요
- 성약 소요기간 : 약 11개월('24년 10월 첫 미팅 → '25년 9월 초도 납품)
- 바이어 발굴경로 : KOTRA 도쿄 IT 지원센터의 행사 및 네트워킹을 통해 현지 파트너(M사) 발굴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일본 헬스케어 시장은 고령화 및 건강관리 수요 증가로 데이터 기반 솔루션 수요가 빠르게 확대
  - 현지 파트너십을 통한 초기 시장 진입과 구독형 수익 모델로의 전환이 유망한 전출전략으로 평가됨

### □ 주요 경쟁국 동향

- 일본의 수입 상대국은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호주 순으로 전체 수입액의 약 40% 차지
  - (중국) 주요 수입품은 전화기(10.2%), PC 및 주변기기(8.6%), 자동차 부품(2.2%), 오락용구·스포츠 용구(1.5%), TV 수신기가 없는 모니터(1.5%) 순
  - (미국) 주요 수입품은 석유가스와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8.6%),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가스터빈(8.3%), 혈청(5.1%), 옥수수(4.6%), 의약품(3.4%) 순
  - (호주) 주요 수입품은 석유가스와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35.9%), 석탄(32.5%), 철광석과 그 정광(10.2%), 구리광과 그 정광(4.0%), 알루미늄의 괴(2.3%) 순

### 일본의 10대 수입 상대국 추이

(단위: 억 달러, %)

순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누계	
	국가	교역액(비중)	국가	교역액(비중)	국가	교역액(비중)	국가	교역액(비중)
1	중국	1,888(21.0)	중국	1,739(22.1)	중국	1,671(22.5)	중국	1,146(23.0)
2	미국	894(9.9)	미국	823(10.5)	미국	835(11.2)	미국	567(11.4)
3	호주	876(9.7)	호주	652(8.3)	호주	529(7.1)	호주	307(6.2)
4	UAE	457(5.1)	UAE	370(4.7)	UAE	368(5.0)	UAE	219(4.4)
5	사우디	428(4.8)	대만	356(4.5)	한국	314(4.2)	대만	214(4.3)
6	대만	387(4.3)	사우디	347(4.4)	대만	305(4.1)	한국	200(4.0)
7	한국	336(3.7)	한국	310(3.9)	사우디	298(4.0)	베트남	199(4.0)
8	인도네시아	286(3.2)	베트남	258(3.3)	베트남	267(3.6)	사우디	180(3.6)
9	태국	267(3.0)	태국	257(3.3)	태국	247(3.3)	태국	169(3.4)
10	베트남	264(2.9)	인도네시아	244(3.1)	인도네시아	232(3.1)	독일	157(3.4)

자료: Global Trade Atlas, '25년 10월 6일 기준, 한국무역협회 K-Stat

□ 일본의 대외 및 對한 수입 규제 현황

연번	품목명	HS Code	규제 형태	규제 대상국	부과기간/조사개시	판정 결과(관세율)
1	수산화칼륨(Potassium Hydroxide)	281520	반덤핑 (규제 중)	중국, 한국	'16년 8월 9일~ '26년 8월 12일	중국 : 73.7% 한국 : 49.5%
2	아연도금철선(Hot-dip Galvanized Iron Wire)	727120	반덤핑 (규제 중)	중국, 한국	'22년 12월 8일~ '27년 12월 7일	중국 : 26.5~41.7% 한국 : 9.8~24.5%
3	이산화망간(Electrolytic Manganese Dioxide)	282010	반덤핑 (규제 중)	중국	'08년 9월 1일~ '29년 2월 25일	34.3~46.5%
4	탄산칼륨(Dipotassium Carbonate)	283640	반덤핑 (규제 중)	한국	'21년 6월 24일~ '26년 6월 23일	30.8%
5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olymerizationpolyethyl Ene-terephthalate)	390761	반덤핑 (규제 중)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17년 12월 28일~ '28년 2월 2일	39.8~53.0%
6	흑연전극(Graphite Electrode)	854511	반덤핑 (규제 중)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25년 7월 3일~ '30년 7월 2일	95.2%
7	니켈계 스테인리스 냉연강대 및 냉연강판(Nickel-added Cold-rolled Stainless Steel Coil, Sheet and Strip)	721931, 721932, 721933, 721934, 721935,	반덤핑 (조사 중)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25년 7월 22일	-
8	용융아연도금강대 및 강판 (Hot-dippedgalvanizedst Elcoil,sheetandstrip)	721049, 721230, 722592, 722699	반덤핑 (조사 중)	중국, 한국	'25년 8월 13일	-
9	비스페놀A(Bisphenol A)	290723	반덤핑 (조사 중)	한국, 대만	'25년 8월 20일	-

## 다. 산업

### □ 주요 산업 개요

① (제조업) 일본 GDP의 20% 정도를 차지하며, 운송용기기·일반기계·전자기기 등 3품목은 일본 전체 수출액의 약 60%를 차지

- (자동차) 엔저와 반도체 공급 안정으로 생산 회복세이나, 향후 對미 관세 협상 등으로 수출세 둔화 전망 병존

- 일본 기업 자동차 생산 대수와 일본 신차 등록 대수는 '25년 1~8월 누계 기준 약 518만 대, 193만 대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2%, 3.7% 증가

- \* 일본 자동차 생산 대수(만 대) : ('23년) 857.2 → ('24년) 782.9 → ('25년 8월 누적) 518.8(MarkLines)

- \* 일본 신차 등록 대수(만 대) : ('23년) 303.4 → ('24년) 286.3 → ('25년 8월 누적) 3.7%(일본자동차판매협회)

- 한편, 對미 수출 중 28.3%를 차지하는 자동차 품목은 향후 미국-일본 관세협상(2.5%+12.5%)의 영향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 일본 내각부, '24년 對미수출 중 자동차는 28.3%를 차지하나, 수출 규모·가격은 하락 추세(월례경제보고 각료회의, '25년 9월 29일)

- (전기·전자부품) AI·데이터센터 수요와 정부 정책에 힘입어 관련 업황 호조

- AI·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힘입어 반도체 소재·장비·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설비투자와 생산이 증가 추세

- \* 일본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 '24년 일본 기업의 전자부품 출하액은 4조 5,323억 엔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달성했으며, 이 중 데이터센터 서버용 MLCC는 1조 5,393억 엔으로 34%를 차지

- 일본 정부, AI 인프라 및 데이터센터 구축을 국가 전략 분야로 지정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전기·전자부품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

- \* 일본 내각부, AI 모델을 뒷받침할 대규모 데이터센터·저장·통신·연산 인프라 조성이 시급하며, 관련 인프라 및 장비 산업을 국가적 중점 육성 분야로 설정(AI 전략보고서, '25년 2월)

- (철강) 내수 건설 수요와 조선업 회복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나, 해외산 철강 저가 수입으로 자국 기업 수익성 악화 지속

- 일본 정부 및 업계에서도 건설용 강재 수요 및 조선·플랜트용 후판 수요 증가로 '25년 4분기 철강 경기 회복 추세를 판단

- \* 일본 경제산업성, 건설업 강재 수요가 전 분기 대비 +5.5% 증가하며 완만한 회복세 전환('25년 4분기 강재 수요 전망, '25년 10월 16일)

- 한편, 자국 철강업계의 저가 수입품 유입 차단 요구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중국산 아연도금강판 등에 대해 반덤핑 조사 및 우회수입 방지 정책 검토

- \* 일본 철강업계의 반덤핑 관세 조사 요청('25년 4월)에 따라 재무성·경제산업성은 한국·중국산 아연도금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25년 8월)

- (화학·정유·에너지) 화학/정유는 에틸렌 설비 가동률 저조 등 장기불황 지속, 에너지는 원전 재가동 추진 등 탈탄소 전력 확대 및 전력비용 완화 기대감
  - (화학) '25년 9월 일본 에틸렌 설비 가동률은 81.9%로, 37개월 연속 호조 기준 90%를 하회하며 탈탄소 트렌드 재편 압력, 중국 과잉생산의 영향 지속
  - (정유) 자국 연료 수요 감소, 국제 경쟁 심화, 탈탄소 전환 압력 등으로 인해 구조적 수익성 악화 추세
    - \* ENEOS, 국내 석유제품 수요 감소, 국제 경쟁 심화를 이유로 요코하마 공장 윤활유 등 생산을 '26~'2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중단 결정(석유제품 생산·공급 네트워크 재편, '25년 3월 25일)
  - (에너지) 일본 정부, 제7차 에너지 기본계획 내 '원전을 포함한 탈화석 전원 및 전력 공급 체제의 구축'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 원전 운영 확대 시사
    - \* 일본 경제산업성, 제7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40년 기준 전력원을 재생에너지 40~50%, 원전 20%, 화력 30~40% 정도로 상정
- ② (서비스업) GDP의 약 31% 규모, 숙박·음식, 정보통신, 의료·복지, 공공·교육 등으로 일본 경제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며 견조한 성장
- (숙박·음식) 방일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돌파 등 관광 회복으로 업황 호조
  - 관광 수요 확대와 엔저에 따른 소비 증가로 숙박 및 외식업 매출이 동반 상승, 주요 도시 호텔의 객실 점유율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
    - \* '25년 1~9월 누계 기준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는 3,16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13.7%)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갱신(일본 관광국)
- (ICT) 디지털 전환·AI 서비스 확산으로 성장세 지속, 통신 인프라 투자 활발
  - 정부 주도의 디지털 전환(DX) 및 생성형 AI 확산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추진하며,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가 가속화
    - \* 일본 내 생성형 AI 시장, '23년 약 7억 8,000만 달러에서 '30년 약 117억 4,000만 달러로 확대 전망(JETRO)
  - 소버린 AI(일본 자체 대규모 AI) 모델 개발 및 관련 데이터 처리 수요가 증가할 전망에 따라 통신·클라우드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 전망
    - \* 일본 내각부, 자국형(AI 주권) 모델 구축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AI 전략전문조사회, '25년 9월 19일)
    - \* 미국 엔비디아(NVIDIA)社, '20년 대비 '30년까지 AI 연산 수요가 320배 증가될 것이며, 이에 따라 일본 내 대형 언어모델(LLM) 및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구축 수요 확대를 예상
- (의료·복지) 고령화로 인력 부족 및 설비 노후화 문제 병존
  - 일본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약 29.1%로 고령사회가 고착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병상 수요·요양·복지서비스 수요가 급증 중
  - 의료시설 노후화와 입원 수요 증가로 '40년 의료비 지출이 약 89조 엔('23년 대비 1.6배)으로 늘며, 인프라 부담이 확대될 전망
    - \* 일본 후생노동성,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의료비 상승 압력, 그리고 의료기관의 수익성 및 설비 인프라 부담 증가라는 구조적 과제 명시(일본 의료기관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25년 4월 2일)

- (공공·교육) 디지털 전환 지연 및 지역 간 격차 심화

- GIGA 스쿨 구상에 따라 학교별 1인 1단말기 및 ICT 인프라 환경 정비가 진행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간·지역 간 도입·운영 격차가 존재

- \* GIGA 스쿨 : 일본 문부과학성이 '19년 12월부터 추진해온 교육 DX 사업으로, 모든 학생에게 1인 1대의 단말기와 고속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해 학교 교육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목표로 하는 정책

- 이에 교육업계에서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 원격 학습 플랫폼 구축, ICT 지원 인력 배치 등의 비즈니스·서비스 수요가 증가 추세

- \* 일본 문부과학성, GIGA 스쿨 추진 이후 학교 내 디지털 교과서, 학습 지원 SW 도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전국 공립 초중학교 모든 과목에 디지털 교과서 병행 사용 목표 설정('25년 4월 28일)

- 향후 제2기 GIGA 스쿨(NEXT GIGA) 단계에서는 평생 교육 및 지역 DX형 교육서비스 확장 등 교육 디지털 인프라의 재정비 수요 확대 전망

- \* GIGA 스쿨 단말기 갱신 수요는 '25년 474만 대, '26년 455만 대로 전망(MM 총연, '24년 4월 17일)

## 라. 투자

### □ 일본의 대외 직접투자

- '24년 일본의 대외 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2,081억 달러 기록, 엔화 기준 31조 5,613억 엔(전년 대비 +14.2%)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30조 엔 돌파

- 주요 지역별로는 북미가 804억 달러, 이 중 미국은 78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0% 증가했으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높은 대외 투자가 있었음

- \* 토요타車가 EV를 중심으로 투자 지속, 세계 최대 생산거점인 켄터키 공장에 전기차 조립 및 전기차용 배터리 팩 조립 라인 설치를 위해 13억 달러의 추가 투자 발표, 이후 인디애나주와 앨라배마주, 텍사스주에도 잇따라 투자 계획이 발표됨

- 교착 상태가 지속되던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가 '25년 상반기에 성사되었으며, 인수금액은 142 억 달러로 일본의 대외 M&A 중 역대 7위 규모에 해당

- 유럽은 5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4.6% 감소했는데, 주요국별로는 네덜란드 184억(92.0% 증가), 독일 61억(11.6% 증가), 영국 154억 달러(12.1% 감소) 등

- \* 의약품 분야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했는데, 다이이치산쿄는 독일의 R&D 거점 확장을 발표하고 암 치료제 제조시설을 신설하겠다고 했으며 아사히카세이는 스웨덴 제약 기업 인수

- 아시아는 42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0% 증가했으나, 중국은 34억 달러(1.5% 감소)로 사상 최저 수준이며, 아세안은 28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5% 증가

- \* JETRO 조사에 따르면 중국 내 사업 확대 또는 신규 사업 검토 기업 비율은 33.2%로 전년(33.9%)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중국 사업 확대 의욕은 낮으나, 철수를 검토하는 기업의 비율은 1%대에 그쳐 중국 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망하는 태도가 보임

- '25년 2분기 누계 일본의 대외 직접투자(국제수지, 실제 자금흐름 기준(Net, Flow))는 약 1,087억 달러로 전년 동기(982억 달러) 대비 10.7% 상승
    - 지역·권역별로는 북미(517억 달러), 아시아(219억 달러), 유럽(243억 달러), 중남미(52억 달러) 순이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이 506억 달러로 1위
    - 산업별로는 비제조업(64.0%)이 제조업(36.0%) 대비 비중이 높았으며, 세부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17.5%), 화학·의약(17.2%), 통신업(15.4%), 도·소매업(12.7%) 순
- \* 다만, '25년 10월 기준 산업별 대외 투자 동향은 '25년 1분기를 기준으로 함

## □ 외국인 투자 동향

- '24년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7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으며, 제조업은 37억 달러(60% 감소), 비제조업은 133억 달러(40% 감소)로 모두 부진
    - 다만, 비제조업 중 서비스업은 미국과 홍콩 등에서의 투자가 증가하여 비교 가능한 '14년 통계 이후 최고액을 기록
      - \* 홍콩계 물류 부동산 대기업 ESR 그룹이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물류시설을 준공하였으며,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주력하고 있음
      - \* 대만은 TSMC의 구마모토현 반도체 생산 거점 설립 이후 투자액이 증가하여 '24년에는 전년 대비 3.4% 증가하는 등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임
  - '25년 2분기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액(국제수지, 실제 자금흐름 기준(Net, Flow))은 약 226억 달러로 전년 동기 투자액(52억 달러) 대비 329% 증가함
    - 지역·권역별로는 북미(81억 달러), 아시아(68억 달러), 유럽(63억 달러), 중남미(8억 달러) 순이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이 72억 달러로 1위
    - 산업별로는 비제조업(73.8%)이 제조업(26.2%) 대비 비중이 높았으며, 세부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61.4%), 일반기계(9.9%), 운송기계(9.9%) 순으로 나타남
- \* 다만, '25년 10월 기준 산업별 외국인 투자 동향은 '25년 1분기를 기준으로 함

## □ 일본의 對韓 투자 현황

- '25년 3분기 신고 금액은 3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 신고 건수 또한 19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
  - 제조업 부문 對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31.1% 감소한 32억 만 달러였으며, 서비스업 또한 전년 동기 대비 14.0% 감소한 3억 만 달러 기록

## □ 한국의 일본 투자 진출

- '25년 2분기 투자 금액은 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6% 증가, 신규 법인 수는 218개로 전년 동기 대비 35.4% 증가

- 주요 투자 업종은 제조업(1억 9,100만 달러),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5,500만 달러), 금융 및 보험업(4,800만 달러), 도·소매업(4,000만 달러) 순

### 한국의 對일본 투자 진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분기	
	금액, 건	증감	금액, 건	증감	금액, 건	증감	금액, 건	증감
투자 금액	1,151	△ 2.8%	704	△ 38.8%	637	△ 9.5%	491	30.6%
신규 법인 설립 건수	158	45.0%	269	70.3%	314	16.7%	218	35.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5년 2분기 증감률은 전년 동기('24년 2분기) 대비 값

###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사례

####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P社, 일본 공장 자동화 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 법인 설립 및 수출 확대

- (기업 정보) 산업용 모션제어기기 및 자동화 제어솔루션을 개발·제조하는 중소 제조기업 P사
- (성공 사례) '25년 일본향 수출액 10만 1,623달러 달성('25년 10월 기준)
  - 나고야무역관의 법인 설립 및 전시회 연계 지원으로 일본 주요 제조기업과 거래 개시
  - NEPCON JAPAN, M-Tech NAGOYA 등 6개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한 바이어 매칭
  - 미쓰비시전기 CC-Link IE TSN 호환 제품 개발 및 종합 카탈로그 등재
- (시사점)
  - 나고야무역관의 단계별 지원으로 법인 설립 → 일본 시장 진입 → 수출 실적 창출을 실현한 대표 사례
  - 일본 FA·자동화 산업 내 한국 기술기업의 입지 강화를 입증한 사례임

####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유전자 검사 기업 G社, 헬스테크 시장 공략을 위한 법인 설립

- (기업 정보) 유전자 검사 서비스, 유전자 해석 수탁업무, 반려동물의 유전자 검사 등을 진행하는 G사
  - 일본 진출 배경 :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맞춤형 의료 시장 확대, 일본 정부의 게놈연구와 헬스케어 시장 육성 및 제도 지원에 따른 일본 유전자 검사 시장 확대
- (성공 사례) 일본의 고령화 사회 정책지원 하에서 유전자 검사 서비스 초기 시장에 적시 진출 성공
  - 타액 검사를 통해 유전적 혹은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고 질환의 예측 및 맞춤형 건강관리 등 500개 항목의 검사가 가능한 간편한 키트 제공
  - 개인정보의 암호화 및 익명성 보호를 위한 국제정보관리규격 확보, 일본인을 포함한 아시아인 대상의 임상 데이터 및 연구논문을 바탕으로 한 유전자 AI 알고리즘 분석 등 높은 검사 신뢰성으로 일본의 각종 의료기관 및 중견 기업 등과의 이용 계약이 증가하면서 일본 내 유력한 유전자 검사 기업으로 성장함.
- (시사점) 당시 분석 결과를 스마트폰 등으로 확인 및 업데이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간편성, 신뢰성, 보안성,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성공

## □ 현지 투자 진출 시 진입장벽

- (비자 취득) 경영·관리 비자 취득을 위한 자본금, 인적 자원 문턱 강화
  - 외국인 사업가에게 체류 자격을 부과하는 경영·관리 비자를 놓고 이민을 목적으로 악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외국인 사업가에게 체류 자격을 부과하는 경영·관리 비자의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법무성령안을 공표
    - \* (현행) 자본금 500만 엔 또는 2명 이상의 상근직원 고용 및 사업장 확보 → (개정) 자본금 3,000만 엔 이상 및 1명 이상의 상근직원 고용 및 신청자의 경력 및 학력 요건 강화
- (법인계좌 개설) 외국 법인의 경우 비거주 대표자는 법인계좌 개설 불가
  - 자금 세탁, 테러자금 조달, 확산 금융 등 계좌가 범죄나 부당거래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 금융청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대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비거주 외국인의 계좌 개설이 까다로움
- (인허가) 업종에 따라 취득해야 하는 인허가 상이, 현지 전문가 컨설팅 필요
  - \* 인허가에는 신고, 등록, 인가, 허가, 면허 등 다섯 종류가 있으며, 업종에 따라 취득해야하는 인허가 종류 및 신청 장소가 상이함

## 2. 유망 산업

### 가. 첨단 소부장 전략산업

- 일본 제조업의 핵심 엔진, '첨단 소부장' 중심 산업 구조 강화를 위해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 차원의 전략산업으로서 과감한 투자 진행 중
- 반도체, 이차전지 등 수출입 동향상 반도체 제조장비·전자부품 등 고부가가치 품목 비중 지속 상승, 첨단 소부장 분야 한국·일본 기술보완 협력 확대 예상

#### □ 일본 제조업은 GDP의 20%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부장은 그 중에서도 핵심

- (산업 규모) 일본 전체 국내총생산 중 제조업 비중은 매년 20% 안팎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일본의 경쟁력이 강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주목 필요 있음
  - '23년 일본 전체 GDP에서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6%이며, 전체 제조업 중 자동차(35%), 전기전자·반도체(15%), 화학·소재(10%), 기계·로봇(10%) 순(World Bank)
  - 특히, 소부장 산업은 기술 우위로 제조업의 핵심 엔진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일본 정부 또한 반도체 분야 소부장 중심의 과감한 투자를 계획 중
- (수출입) 반도체 및 정밀장비를 중심으로 소부장 수출이 회복세, 첨단 제조공정 유지에 필요한 핵심 소재와 전산기기 수입 또한 증가
  - (수출) 반도체·전기전자 등 첨단 제조업 분야의 생산 및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 제조장비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반도체 공정용 정밀 장비와 측정·검사 장비의 수출이 호조를 보임
  - (수입) 전산기기를 비롯해 소재(웨이퍼, 화학소재), 부품(커넥터, 모듈), 장비(생산 장비, 검사장비) 품목 전반의 수입 증가세가 나타남. 이는 일본 내 전자기기 조립 및 고도화된 제조공정 관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 일본 주요 제조업의 수출 동향

(단위: 백만 엔, %)

품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누계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유기화합물(소재)	2,208,648	11.4	2,042,199	-7.5	2,128,652	4.2	1,017,922	-6.4
플라스틱(소재)	3,154,510	6.0	2,953,715	-6.4	3,346,972	13.3	1,661,470	2.4
반도체전자부품(부품)	5,676,083	15.8	5,494,361	-3.2	6,075,590	10.6	2,922,957	2.9
전기회로기기(부품)	2,322,065	10.9	2,124,211	-8.5	2,143,179	0.9	1,063,329	5.0
반도체제조장비(장비)	4,065,210	21.2	3,535,044	-13.0	4,496,225	27.2	2,275,893	5.6
금속가공기계(장비)	1,163,366	18.5	1,148,463	-1.3	1,074,205	-6.5	573,653	13.0

자료: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 일본 주요 제조업의 수입 동향

(단위: 백만 엔, %)

품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누계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유기화합물(소재)	2,386,729	31.1	2,130,035	-10.8	2,179,185	2.3	1,089,711	3.1
반도체전자부품(부품)	4,903,167	46.2	4,685,814	-4.4	4,094,460	-12.6	1,984,382	-1.0
자동차의 부분품(부품)	1,002,247	21.4	1,183,863	18.1	1,259,973	6.4	635,180	4.5
전산기기(장비)	2,709,425	13.3	2,484,254	-8.3	3,270,320	31.6	1,918,665	16.6
전기계측기기(장비)	877,776	21.4	1,006,114	14.6	1,034,234	2.8	551,575	9.3

자료: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 강화를 위해 소부장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제품 고도화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일본 소부장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Resonac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 공동 컨소시엄 'JOINT3' 설립</li> <li>• 반도체 후공정 소재 및 장비 업체 27개사와 공동평가플랫폼 JOINT3 출범</li> </ul>
TDK (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응용을 위한 아날로그 리저버칩 개발</li> <li>• 실시간 학습이 가능한 아날로그 리저버칩을 훗카이도대학과 공동 개발</li> </ul>
FCL Components (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부품·모듈 사업 집중 계획 발표</li> <li>• 산업용 자동차, EV, 재생에너지, IoT 등 고성장 분야를 핵심 시장으로 설정하고 글로벌 OEM 대상 맞춤형 솔루션 공급 확대를 추진</li> </ul>
Nikon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7년 2나노 반도체 양산 목표로 연구 중</li> <li>• 현재 프로토타입 실험단계로 추정</li> </ul>
도쿄일렉트론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정용 신형 디지털 노광장비* 수주 개시</li> <li>• 3D 적층·패키징용 미세회로 형성 시장 진입</li> </ul> <p>* 10μm 이하의 고정밀 노광 정합 기술과 저왜곡 보정 기능을 갖춰, 차세대 칩렛(Chiplet) 및 패키지 후공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제품으로 평가</p>

자료: 각사 홈페이지, 언론 종합

## □ 전략산업에의 대규모 투자와 기술 고도화 진행, 한국·일본 공급망 협력 기회 확대 전망

- (반도체) 일본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과 주요 기업의 기술 고도화 움직임이 맞물리며, 소부장 산업 전반이 고기술·융합형 구조로 전환 중
  - 반도체 강국 재도약을 목표로 큐슈 및 훗카이도에 반도체 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해 자금을 투입, '30년까지 AI 및 반도체에 10조 엔 이상 투자 발표('24년 11월)
    - \* 정부 자금 투입 규모(~'24년) : TSMC(1조 2,000억 엔), 라피다스(9,200억 엔), 기타(4,600억 엔)
  - 첨단 반도체 장비 및 후공정 기술, AI·IoT 대응형 부품 등 수요가 한국·일본 기업에 함께 증가, 한국·일본 간 기술 보완 및 공급망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이차전지) 생산 불량률 감소 위해 자동화 장치와 정밀 공정 장비 수요가 지속 발생, 자동화 설비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 기업과 협력할 가능성 높음
  - 기술 측면에서는 수명 연장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신소재 연구 민관 협력 가속화, 일부 소재와 장비는 해외 의존도가 높아 우리 소재 생산 기업과의 협력 가능 전망
- (조선) 글로벌 공급망 위기 및 친환경 규제에 따라, 일본 정부는 조선업을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인프라로 인식, 전략산업으로 지정 및 구조적 부흥을 추진
  - 일본 조선업계는 향후 10년간 선박 건조량을 두 배 늘리기 위해 약 3,500엔의 대규모 투자 계획, 현재 908만 톤 수준 선박 건조량을 '35년까지 1,800만 톤으로 증가 계획'

### 한국·일본 기업 간 최근 협력 사례

산업	내용
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K이노베이션-일본 미쓰비시, 암모니아 수소 사업 협력 추진('23년~)</li> <li>현대-토요타 화장 만남('24년), 수소연료전지차(FCEV) 공동 기술 개시</li> </ul>
이차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K온-닛산,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25년 3월), '28~'33년까지 6년간 총 99.4GWh 규모 (약 15조 원 추정)의 배터리를 공급 예정</li> </ul>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NE(일본 해운사), HD현대중공업에 1만 5,900TEU급 컨테이너선 8척 주문, 일본 해운사가 한국 조선 기술·수주 능력을 인정한 실물 사례</li> </ul>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삼성전자, 일본 요코하마에 400억 엔(약 3,600억 원) 투자, 반도체 차세대 패키징 R&amp;D 거점 'APL' 신설, '27년 가동 목표</li> </ul>

### 나. 수소, 암모니아 관련 기반 산업

- 일본의 수소 산업은 '40년 약 8~10조 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는 '수소기본전략'을 통해 도입량 확대와 공급망 정비를 추진 중
- 정책 지원과 민간 투자에 힘입어 수소 기술이 실증 단계에서 상용화 단계로
- 점차 전환됨에 따라 기자재와 부품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 산업 규모 및 수출입 동향

- 산업 규모
  - (생산 시장) '24년 약 1,570억 엔 수준이었던 시장 규모는 매해 평균 4.1%의 성장률을 보이며 '33년에는 약 2,070억 엔까지 확대될 전망
  - (저장 시장) '24년 약 1,292억 엔 수준이었던 시장 규모는 매해 평균 4.6~4.8%의 성장률을 보이며 '30년에는 약 1,694억 엔까지 확대될 전망
  - (이용 시장) 수소를 동력원으로 움직이는 발전설비·기기, 연소 설비·기기, 운송용 설비·기기 등의 전체 시장 규모는 '25년 기준 1,123억 엔에서 '50년에는 3조 3,350억 엔까지 비약적으로 확대될 전망
- 수출입 동향
  - (현 교역량) 일본의 수소(HS Code 2804.10) 교역 규모는 통계치 추산이 어려울 정도로 아직은 규모가 작은 수준임
    - \* 수출-없음 / 수입-1만 달러 상회(미국 9,500달러, 프랑스 1,400달러)
  - (향후 전망) 호주, 사우디, UAE 등 국가로부터의 그린수소 수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 ※ 일본 정부 수소 생태계 확대 관련 목표

① 수소 도입량 : ('30년) 300만 톤 → ('40년) 1,200만 톤 → ('50년) 2,000만 톤

② 수소 가격 : (현재) 100엔/Nm<sup>3</sup> → ('30년) 30엔/Nm<sup>3</sup> → ('50년) 20엔/Nm<sup>3</sup>

\* Nm<sup>3</sup> : 상온상압(20도, 1기압) 상태 조건에서의 1m<sup>3</sup>을 의미하며, 수소 생산/활용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단위  
(1Nm<sup>3</sup>=8.4kg)

## □ 정부 정책

- 수소 사회 추진을 위한 전략 방향 : 일본의 수소 핵심 기술이 일본 안팎의 수소 비즈니스에서 활용되는 사회 실현

### 일본 정부 수소 생태계 촉진 정책 연혁

연도	일본 정부 동향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본은 세계 최초로 수소기본전략을 수립</li></ul>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전체 중 1%라는 2030년 수소·암모니아 발전 비율 목표를 제시</li></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수소기본전략의 방향성을 수정. 기술 확립이 골자였던 전략에 상용화 촉진을 위한 산업 전략과 보안 전략을 추가</li></ul>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수소사회추진법을 제정하여, 저탄소수소 등 도입 확대를 통한 규제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li></ul>

- 탈탄소, 안정적 에너지 보급, 경제 성장이라는 '1석3조'를 겨냥하여, 대규모 투자를 실시(15년간 민관 협동으로 15조 엔 규모)
-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수소사회추진법('24년)' 마련
  - '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저탄소수소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본 내 최초 관련 법률임
  - 저탄소수소 등의 안정적인 공급 체제를 구축하고, 저탄소수소 등의 이용을 확산하기 위한 각종 정부 지원 제도 등을 법제화함
- \* 수소 공급계획인정제도, 가격차 보조제도 등

## □ 수소 생태계 분야별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일본 수소 생태계별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ENEOS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풍부한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일본 내 정유시설에서 수소 공급망 구축 중</li> <li>홋카이도 토마코마이 지역에 100MW 수전해 설비를 구축해 그린수소 공급망 구성 계획</li> </ul>
에어워터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가스를 활용한 고효율 수소 발생기(VHR) 도입 → 신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강화</li> <li>홋카이도 이시카리 연안에 110MW급 풍력 연계 수소 생산 시설 계획(연간 약 2,500톤 생산 목표)</li> </ul>
STE 테크놀로지 (운송·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EM 전해조 기반 고효율 수소 생산 시스템 개발 및 발표(전해 효율 85% 이상, 원격 모니터링 지원)</li> <li>JFE 스틸과 액화수소 공급을 위한 부지 임대 계약 체결 → 액화수소 상업화 실증 추진</li> </ul>
메이지전기공업 (운송·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분해 방식의 CO<sub>2</sub> 배출 없는 수소 제조·저장·공급 일괄 시스템 제공</li> <li>아이치현 토요타 지점에서 태양광 잉여 전력으로 수소 생산 → 흡수 합금 저장 → 연료전지 활용, 비상 전원 및 피크 절감 활용</li> </ul>
토요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소연료전지차(FCV) 'MIRAI' 개발·양산 및 해외 수출 확대</li> <li>연료전지 시스템을 버스·트럭·발전기 등에 상용차·발전용으로 공급</li> </ul>
도시바에너지시스템즈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2One' 수소 자율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 개발</li> <li>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철도·항만 등 에너지 공급 실증</li> </ul>
파나소닉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용 연료전지(에너팜) 공급 및 수소 사회 실증 프로젝트 참여</li> <li>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 개발, 수소 직접 이용 발전 실증</li> </ul>

자료: 각사 홈페이지, 언론 종합

## □ 일본 수소 수요의 전방위적 확대와 시장 성장 가속화

- 일본 내 수소 수요 분야의 전방위적·비약적 확대
  - (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차(FCV) 보급은 아직 제한적이나, 토요타 '미라이', 히노·이스즈의 수소 트럭, 철도·버스 실증이 확산 중. 토요타는 향후 버스 등 수소 상용차 개발에 박차를 가할 방향성을 제시('25년 9월, KOTRA 면담)

### 모빌리티 분야 시장 규모

연도	FCV	수소스테이션	수소버스
현재 규모 2024년(A)	8,400대	160개소	100대
정부 목표 2030년(B)	80만대	900개소	1,200대
시장 성장 전망 (B)/(A)	95.23배	5.63배	12배

- (산업) 제철, 화학, 시멘트 등 탈탄소가 어려운 산업에서 '그린수소'를 활용한 공정 전환 실험이 활발히 진행 중
- (발전) JERA, Kansai Electric 등은 암모니아 혼소 및 순수 수소 터빈 발전 실증을 진행 중
- 공급망 및 기술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 증진 활성화
  - (공급망) 현재 호주·브루나이 등에서 액화수소 공급망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 중 '29년 상용화 목표로 수소 운반선 'SUISO FRONTIER'를 개발 중
  - 일본 정부는 해외 청정수소 조달을 '40년까지 9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한국, 호주, 중동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 중
  - (기술) 수전해(PEM·SOEC), 수소액화·저장소재, 수소터빈, 연료전지스택 등의 고도화가 주요 과제로 꼽히며, 일본 전역에서 실증 실험 진행 중
- 우리 기업에 있어서의 기회요인 및 진출전략
  - 일본의 수소 생태계 확장에 맞춰 △수전해 설비, △수소센서·밸브 등 정밀부품, △수소차용 소재 및 부품 분야에서 공급 파트너로 진출 기회를 모색이 유망
  - 지방 클러스터(아이치, 효고, 후쿠오카 등)는 해외 기업의 테스트베드 진입에 적극적이므로, 현지 지방자치단체 연계형 프로젝트 참여가 유망함
  - 단, 일본 기업은 초기 인프라 단계에서 품질 신뢰성과 기술 인증을 중시하므로, 현지 파트너사와의 공동 실증 및 JIS·ISO 인증 대응 전략이 중요

## 다. AI·AX 관련 산업

- 일본 AI 시장, '24년 1조 3,400억 엔에서 '29년에는 4조 1,900억 엔까지 성장 전망이며, '20년대 관련 특허출원 수는 '10년대 대비 10배 이상 증가 추세
- 전력·조선·ICT·자동차·바이오 등 주요 산업에서 국산 AI 생태계 조성 및 예측 제어·자율운항·LLM·생산성 향상·신약 개발 등 AI 활용 확대

### □ '24년 일본의 AI 시스템 지출액 약 1조 3,400억 엔, '29년 4조 1,900억 엔까지 확대 전망

- (시장 구성) 소프트웨어(LLM 분석, AI 모델엔진 등) 46.6%, 하드웨어(장비 및 인프라) 28.3%, 서비스(컨설팅, 클라우드 AI 서비스 등) 25% 순(Statista, '24년)
- (특허 동향) '10년대 중반부터 이미지·음성 인식 등의 딥러닝 기술, 로봇 동작 제어, 자연어 처리 등을 중심으로 AI 관련 특허출원 수 급증
  - \* '22년 기준, 일본 특허청에 제출된 AI 관련 특허 1만 280건, '13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일본 특허청, AI 관련 발명 출원상황조사, '24년 10월)

###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스타트업) 대형 클라우드 의존도 축소 일본 내 자체 모델 개발 및 맞춤형 LLM 제공을 목표로 한 '일본산 AI 생태계' 형성 움직임 확대
  - SAKANA AI, '24년 설립 후 대형 오픈소스 모델을 조합·최적화하는 기술로 주요 기업과 협업하며 “일본산 AI” 구축의 핵심 스타트업으로 부상
- (전력기자재) 전력 수요 변동·설비 고장 모니터링, 예측 AI로 운영비 절감
  - Mitsubishi Denki 등 전력기자재 회사, '스마트그리드 예측 제어 솔루션' 상용화를 위해 국내 전력 및 ICT 업계와 실증 추진 중
- (조선·해운 산업) 항만 물류·해상 운항의 자율운항, 선박 제조 현장의 자동화, 연료 절감 및 항로 최적화 달성을 위한 AI 실증 및 도입 추진 중
  - AI 용접로봇 개발, 디지털 트윈 기반 3D 센싱, 설계 최적화 AI 도입(이마바리) 및 자율운항 화물선 실증 항해 상용화 추진(Mitsubishi HI·JMU)
- (ICT·디지털 서비스) 기업·공공기관 대상 생성형 AI 서비스 구축 등 보안·거버넌스·데이터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 조달 프레임워크 구축 움직임
  - Fujitsu, 슈퍼컴퓨터 후가쿠를 활용한 일본어 LLM 모델 구축 및 타사 협업으로 정부·공공기관 대상 '일본형 소버린 AI' 조달 실증 프로젝트 추진

- (자동차·모빌리티) 제조공정 자동화와 품질관리 혁신을 위한 AI 도입 확대(비전 AI 등) 및 자율주행, 센서 융합 등 모빌리티 AI 기술 고도화 추세
  - Toyota, AI 기반 예지정비·공정 최적화 등 AI 기반 생산성 향상 및 NTT와 '30년까지 모빌리티 AI 인프라에 5,000억 엔 공동투자 계획' 발표
- (바이오 헬스케어) 의료 분야, 영상·진단보조 시 딥러닝 영상 인식 AI 등 적용 확대, 신약 개발에서도 임상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예측 분석 AI 연구개발 활성화
  - Daiichi Sankyo, AI 신약 탐색 플랫폼 Genedata Biologics 도입으로 후보물질 발굴기간 단축

### 일본 주요 기업의 AI/AX 추진 현황

기업명	주요 내용
SAKANA 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설립. 대형 오픈소스 모델을 조합·최적화해 '일본형 LLM' 개발</li> <li>• 클라우드 의존도를 낮춘 자국산 AI 생태계 조성의 핵심 스타트업으로 부상</li> </ul>
미쓰비시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기자재 분야 예측 AI 기반 스마트그리드 제어 솔루션 실증 추진</li> <li>• 서비스 고장 예측 및 전력 수요 변동 대응 자동화 연구.</li> </ul>
이마바리 조선 미쓰비시중공업, JMU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용접로봇, 디지털 트윈 기반 3D 센싱, 설계 최적화 AI 기술 도입</li> <li>• 자율운항 화물선 실증 향해 추진, 해상 물류·운항 AI 기술 상용화 준비</li> </ul>
후지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슈퍼컴퓨터 '후가쿠(Fugaku)'를 활용해 일본어 특화 LLM 개발</li> <li>• 정부·공공기관 대상 '소버린 AI' 조달 실증 프로젝트 추진</li> </ul>
토요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공정 예지정비 및 공정 최적화 AI 적용으로 생산성 혁신 추진</li> <li>• NTT와 '30년까지 5,000억 엔 규모 모빌리티 AI 인프라 공동 투자 계획'</li> </ul>
NT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요타와 협력해 자율주행·통신 융합형 모빌리티 AI 인프라 구축</li> <li>• 6G·엣지컴퓨팅 기반 AI 제어 기술 연구 병행</li> </ul>
다이이치 산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신약 탐색 플랫폼 'Genedata Biologics' 도입, 후보물질 발굴기간 단축</li> <li>• 임상데이터 기반 예측분석 AI 연구 강화</li> </ul>
히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제조·공공 부문 대상 AI 기반 서비스 관리 및 로봇 자동화 솔루션 고도화</li> </ul>
화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용 로봇과 AI 결합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확대</li> <li>• AI 학습 로봇을 통한 제조공정 자동화 실증 진행</li> </ul>
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서·제어 시스템에 AI를 통합한 자동화 솔루션 제공</li> <li>• 반도체·의료기기 제조라인에 AI 품질관리 적용</li> </ul>

자료: 각사 홈페이지, 닛케이, 닛케이테크, 아사히신문 등

### □ 향후 전망과 기회요인

- AI 확산으로 전력·데이터 및 연산·냉각·소재·인프라 자원 수요 급증 전망
  - AI 연산용 반도체·서버·네트워크 장비 및 데이터센터 냉각시스템 등 인프라 투자 확대
  - 일본어 LLM 개발, 예측·제어 AI, 자율운항, 제조 DX, 의료 AI 등 산업 맞춤형 AI 솔루션 수요 확대

- 제조·모빌리티·의료 등 AI 전환 가속화로 반도체·센서·AI 응용 솔루션 분야 진출 기회 확대
  - 공공조달 확대에 따라 한국 기업의 AI 기술·플랫폼 협력 가능성 증대

## 라. 한류 연계 소비재·콘텐츠 산업

- 일본 소비 시장, 실질임금 상승, 인바운드 소비 확산 등으로 견조한 성장이 예상되며, 한류 콘텐츠 성공으로 한국산 소비재도 함께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구축 중
- 화장품·식품에 이어 최근 K-패션도 일본 소비 시장에서 성장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

### □ 실질임금 인상, 인바운드 관광 수요 증가 등에 따른 내수 소비 시장 활성화

- (임금 인상) ’25년도 임금 인상률은 5.25%로 ’91년도 5.66% 이후 34년 만에 최고 수준 기록. 특히, 대기업·도시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영세기업, 지방도 동반 상승하면서 내수 소비 시장 활성화 견인
- (방일 관광객) ’24년도 방일 관광객 수는 3,687만 명, 여행 소비액 약 8조 1,000억 엔(한화 약 77조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소비 시장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

### □ 4차 한류 봄을 타고 ‘한국산=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정착 중

- (한류 재점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OTT 플랫폼 보급 확대와 K-팝 아이돌 인기가 지속되면서 한국 문화·콘텐츠의 존재감 상승
  - \* 넷플릭스 ‘이태원클라스’, ‘사랑의 불시착’, ‘오징어게임’ 등 일본 전체 랭킹 1위
- (소비재 확산) 특히, 코로나 이후 남녀노소 전 세대에 걸쳐 식품·뷰티·패션 등 전 산업군에서 한국산 소비재가 큰 인기를 끌기 시작
- (바이어 평가) 그간 일본 소비자들에게 한국 제품은 ‘가성비 높은 제품’ 정도로 인식되어 왔으나, 한류의 영향으로 ‘프리미엄’ 이미지로 점차 변하고 있다고 평가

### 단계별 한류 현황 및 특징

단계	시기	구분	주요 특징
1차	'00년대 초반	'겨울연가' 대히트로 드라마 중심 최초 한류 열풍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0~60대 중년 여성 중심</li> <li>K-소비재의 수출 확대와 연이어 확장된 한류 콘텐츠 소비 증가 등의 선순환 구조 미확립</li> </ul>
2차	'10년대 초반	K-팝 아이돌 중심 인기 확산, 한류 팬덤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대 여성 중심</li> <li>1차 한류를 배경으로 진출한 현대자동차 철수 등 한류의對일 수출 기여도 제한적</li> </ul>
3차	'20년대 초반	K-팝, 넷플릭스 영화·드라마, 웹툰 등 분야 확대로 전반적인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20대 남성, 여성 전반으로 확산</li> <li>한류 연계 소비로 소비재·식품 분야 확대, 관련 분야 对일 수출 대폭 증가</li> </ul>
4차	포스트 코로나	K-콘텐츠·K-푸드·K-뷰티 등에서 성공, 브랜드 이미지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 세대, 남녀노소 전반으로 확산</li> <li>문화 콘텐츠 및 화장품·식품 등 소비재 산업뿐 아니라 자본재 등 전 산업 분야에서 낙수 효과 개시</li> </ul>

### □ (화장품) 한국, 3년 연속 일본 최대 화장품 수입국

- (수출 현황) 스킨케어·메이크업 등 전 부문 고르게 성장하며, '24년도 일본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30%를 돌파(수입액 1,343억 엔, 전년 대비 40% ↑)

  - 특히, 10~20대 젊은 여성층(MZ세대) 중심으로 가격 대비 높은 품질, 세련된 컬러감, K-팝 아이돌 화장법 유행 등을 계기로 K-뷰티가 크게 인기
    - \* 화장품 브랜드 롬앤, 일본 편의점 로손과 공동 개발한 립스틱 2개월치 재고 3일 만에 완판

- (유망 분야) 가성비+비건 스킨케어, 헤어·바디케어, 향수·향기제품 등, 일본 편집숍(@cosme, LOFT 등) 협업 및 K-패션과 크로스오버 협업 패키지 등

### □ (식품) 일본 식문화 속에 스며든 K-푸드, 대중화 가속화

- (수출 현황) 일본은 '14부터 '23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1위 시장

  - 과거, 한국 음식은 김치, 김, 불고기 정도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영화·드라마 속 식품 노출이 지속되면서 전 세대에 걸쳐 '한식(韓食)'이 하나의 장르로 정착
    - \* 일본 세븐일레븐 '한국 Gourmet Fair'로 전주비빔밥, 잡채, 비빔냉면 등 18종 한식 소개

- (유망 분야) 간편식(HMR(가정간편식), 1인용 즉석식품), K-디저트·음료, 건강식품(저염식, 발효식품), 한식 레스토랑 연계 진출 모델 등

### 한국 식품 기업 對일본 진출 성공 사례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CJ푸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전역에 '비비고(Bibigo)' 브랜드 확장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도쿄 신주쿠·시부야 중심 상권에 팝업스토어 및 비빔밥 전문 매장 운영</li> </ul> </li> <li>- 일본 편의점·슈퍼 내 HMR 제품 입점 확대, '한식의 일상화'를 슬로건으로 현지화 메뉴 (야채 비빔밥·떡만둣국) 강화</li> <li>• 한국 식품업계 최초, 현지 만두 전용 생상공장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치바현 만두(냉동 만두) 공장의 설립 투자 규모는 약 1,000억 원, 연면적 8,200m<sup>2</sup></li> </ul> </li> </ul>

### □ (패션) 새로운 미래 수출 유망 품목 K-패션

- (수출 현황) 일본 내 Z세대 중심으로 한국 스트리트·미니멀 패션 인기 급상승, '24년 기준, 한국 의류·패션 제품의 對일본 수출액 전년 대비 23% 증가
- (유망 분야) 스트리트 캐주얼, 미니멀 감성, K-패션과 콘텐츠 융합(아이돌 협업 등), 팝업스토어 및 현지 편집숍, 대형 유통망 콜라보 진출 모델

### 한국 패션 기업 對일본 진출 성공 사례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무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 10월 시부야 'MEDIA DEPARTMENT TOKYO'에서 대규모 팝업스토어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 80개 K-패션·뷰티 브랜드 참가, 오픈 1주일 만에 2만 명 방문</li> <li>- 일본 내 Z세대 대상 'K-라이프스타일' 허브 구축 및 상시 오프라인 매장 검토 중</li> </ul> </li> <li>• 일본 최대 온라인 패션숍 ZOZOTOWN과 파트너십 체결, 공식 솔 개설 및 K-패션 브랜드 140개 참가 예정</li> </ul>

### 마. 디지털 헬스 및 고령자 케어 산업

- 세계 최고령 사회, 심각한 돌봄 인력 부족, 적극적인 정부 지원, 높은 구매력 등 일본 에이지테크·디지털 웰빙 시장은 구조적 성장이 확실한 블루오션
- 디지털 헬스 및 고령자 케어 분야 에이지테크는 고령화에 따른 한국·일본 공통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자 신산업 성장 동력

### □ 일본 시니어 관련 시장 규모는 '40년까지 약 114조 7,000억 엔으로 지속 확대 전망'

- 카테고리별로 의료 및 돌봄 시장은 ('23년) 40조 7,000억 엔 → ('40년) 54조 3,000억 엔, 생활 산업 시장은 ('23년) 55조 7,000억 엔 → ('40년) 60조 5,000억 엔으로 확대될 전망

### 〈일본 시니어 시장 규모 추계〉

	2023년 (시장 규모)		2040년 예측			
	실질 베이스 (시장 규모)	(CAGR)	(참고: 물가변동 고려 후) (시장 규모)	(CAGR)		
시니어 관련 시장	96.4 억 엔		114.7 억 엔	1.0 %	134.0 억 엔	2.0 %
의료	29.0 억 엔		38.7 억 엔	1.7 %	44.6 억 엔	2.5 %
개호(돌봄)	11.7 억 엔		15.6 억 엔	1.7 %	18.4 억 엔	2.7 %
생활 산업	55.7 억 엔		60.5 억 엔	0.5 %	71.2 억 엔	1.5 %

자료: 미즈호은행 산업조사부, ‘고령화 선진국 일본의 시니어 시장 잠재력에 대한 측정’, ’25년 1월 29일

시니어 인구의  
변화를 바탕으로  
예측

- 시니어 의료 및 돌봄 시장 확대에는 돌봄 수가 개정이 영향을 미쳤으나, 만성적인 돌봄 인재 부족, 물가 급등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
  - \* 돌봄 수가 개정 : ('18년) +0.54% → ('19년) +2.13% → ('21년) +0.7% → ('24년) +1.59%(후생노동성)

#### □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고령자 케어 기술인 ‘에이지테크(Age-Tech)’ 도입이 주목

- 일본의 베이비부머 세대(1947~49년생)가 모두 75세 이상 초고령 세대에 진입하며 의료·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 이를 지탱할 인력과 재정 부족 문제가 심화
  - 또한, 오는'40년에는 단카이주니어세대(1971~74년생)가 65세 이상 고령 세대로 진입하여 고령화율이 약 35%에 이를 전망
  - 고령 사회가 정점에 도달할 경우 생산인구 감소, 경제 축소, 사회보장제도 유지 불능 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
  - 일본 사회는 이와 같은 구조적 변화와 그에 따른 위기요인 등을 ‘2025년 문제’, ‘2040년 문제’라 명명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중
- ‘2025년 문제’ : 일본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75세 이상 초고령자 세대로 진입, 초고령 사회 돌입으로 혼자 사는 노년층의 생활 지원, 환경 개선 등 문제 예상
  - ‘2040년 문제’ : 일본 전체 인구 중 35%가 65세 이상의 고령자 세대에 진입하게 되어 초고령 사회의 정점에 이르게 됨. 1인 가구는 43.5%까지 증가

-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로봇·IC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 및 고령자 케어 기술을 지칭하는 ‘에이지테크(Age-Tech)’ 도입이 주목받고 있음
  -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를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설정, 돌봄 현장의 업무 효율화 및 인력 부담 경감을 목표로 관련 기술 보급과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디지털 헬스)
  - 시니어 영양 : AI를 기반으로 고령자의 영양 상태를 점검해 개별 필요 영양소를 확인하여 맞춤형 식의약품 추천 및 제조를 통한 영양 관리 지원
  - 웨어러블 기기 : AI 기반의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 케어 베드 등을 활용하여 고령자의 운동·수면 관리 지원 및 낙상·욕창 방지 등 지원

### 일본 디지털 헬스 산업 주요 기업

	기업명	서비스 내용
아스肯 (ASK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헬스테크 기업 ASKEN은 AI 기반 식사 기록 앱과 온라인 상담을 결합해 고령자의 영양 불균형 개선을 지원. 참가자가 식습관·체성분·건강검진 정보를 입력하면, AI가 부족 영양소를 진단하고 맞춤형 식단 가이드를 제시. 또한 관리영양사(バディ)가 ICT 면담·주간 메일로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체중·체지방 등 13개 항목을 연동하는 전용 체성분계도 지원</li> <li>• ASKEN사는 임산부를 위한 서비스 '내일 엄마 코스'도 제공 중이며, 최근 도쿄도 에도가와구와 관내 임산부 대상 유료 서비스를 반년간 무료 제공하기로 협력('25년 8월 4일)</li> </ul>
엑사홈케어 (エクサホームケア)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엑사 홈케어의 AI 보행 분석 앱 '토루토(TORUTO)'는 고령자의 보행 기능과 낙상 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스마트폰으로 5m 걷는 영상을 촬영해 업로드 하면, AI가 속도·스텝 시간·리듬·균형을 분석해 2분 내 결과를 제공</li> <li>• '20년부터 판매가 개시되었고, 전국 요양 시설 등 약 1,000개소에 도입</li> <li>• '25년 4월 후생노동성이 지정하는 '개호 기술 이용의 중점 분야'에 '기능 훈련 지원' 분야가 신설되었으며, 이 분야에 해당되는 토루토의 이용 확대 기대</li> </ul>

자료: 각사 홈페이지

- (고령자 케어)

- 스마트홈 : 독거노인이나 거주 환경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 고령자 대상 일반 가정집에도 설치할 수 있는 AI 기반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반적 건강 및 생활 관리
- 이승 보조 로봇 :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체중을 분산시켜 종사자의 근골격계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
- 착용 로봇·배설 보조 로봇 : 하반신에 착용하는 보행 보조 로봇을 통해 이동성을 증진하고, 자율주행 휠체어 기반 배설 보조 로봇을 통해 화장실 이동 및 자세 보조를 지원

## 일본 고령자 케어 산업 주요 기업

기업명	서비스 내용
인피 (Inf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피의 'LASHIC 센서'는 온도·습도·조도·움직임 데이터를 수집해 평소 생활 패턴과 비교함으로써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일정 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으면 보호자에게 스마트폰·PC로 즉시 알림을 전송</li> <li>최근 일본에서는 동거 가족이 없는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비상 대응, 정기 연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원보증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LASHIC Link 등의 신규 서비스도 개시('25년 8월)</li> </ul>
후지 (FUJ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후지사의 돌봄 로봇 '허그(Hug)'는 혼자서 일어서기 어려운 고령자의 이동을 돋는 이승 보조 로봇으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노인을 안전하게 안아 올려 침대와 훌체어, 화장실 간 이동을 지원. 복잡한 장치나 사전 준비가 필요 없어 간병인 1명도 쉽게 조작할 수 있음</li> </ul>
가마카츠 (Gamakats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마카츠의 배설 동작 지원 기기 '사토이레(SATOILET)'는 고령자의 일어서기·착석 동작을 전동으로 보조하는 배설 로봇. 배설 동작 시 기준에는 최소 2명의 간병인이 필요했지만, 이를 1명만으로 수행할 수 있어 간병인의 부담을 크게 줄임. 사용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일어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잔존 능력 유지에도 기여</li> </ul>

자료: 각 사 홈페이지

## □ 기회요인

- (양국 정부 공통 과제) 디지털 헬스 및 고령자 케어 분야 에이지테크 기술 개발 시 한국·일본 양국 시장을 타깃으로 접근하여 양국의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이자 신산업 동력으로 활용 가능
  - 한국도 '24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이후 일본과 비슷하게 시니어 시장 확대와 동시에 돌봄 인력 부족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예상됨
    - \* 한국의 돌봄 인력 부족 규모는 '22년 19만 명에서 '32년 38~71만 명, '42년에는 61~155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국은행 고용분석팀)
  - 일본 후생노동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5대 핵심 정책과제('24년 7월)\*로 '로봇·AI를 활용한 에이지테크'를 포함하고 있으며, 에이지테크 융합 얼라이언스를 출범('25년 5월) 시키는 등 향후 에이지테크 지원 정책 확대가 기대되고 있음
    - \* 5대 핵심 정책과제 : ① 소득·일자리, ② 요양·의료·돌봄, ③ 고령자 사회 참여, ④ 주거, 교통 등 인프라, ⑤ 로봇·AI 등을 활용한 에이지테크

### 3. 협력 기회

#### 가. 통상·G2G

##### □ (무역협정)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한 한국·일본 간 협력 유망 분야

- RCEP과 CPTPP를 통한 한국·일본 교역 기반 확장 및 신산업 협력 고도화
  - RCEP, 한국·일본 간 최초의 다자 무역협정으로, 역내 누적 원산지 규정을 통해 부품·소재 교역을 제도화 하고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기여
    - \* 배터리 소재·정밀화학·플라스틱 등 중간재 품목 중심對일 수출 확대 효과 큼
  - CPTPP 가입 시,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양국 간 보다 높은 자유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SW·디지털 콘텐츠·핀테크·스타트업의對일 진출 확대 전망
-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22년 2월 1일부터 발효된 한국·중국·일본·아세안 10개국·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GDP의 약 30%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무역·투자 자유화, 지역적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함
-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18년 12월 30일부터 발효된 일본·호주·캐나다·멕시코·베트남·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참여한 고수준 FTA로, 상품·서비스·투자 및 노동·환경·지식재산권 등 통상규범의 조화를 통해 역내 경제 통합을 추구

##### □ (G2G) 한국·일본 간 협력 유망 분야

- 공급망 안정화
  - 제4차 한일 경제안보대화('25년 9월)에서 공급망 협력, AI, 양자 등 첨단기술 협력, 경제안보 정책 상호 이해 제고 등을 의제화
  - 한일, '25년 6월 정상회담에서 AI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협력 의지 표명
    - \* 일본 이시바 총리, “과학기술·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을 지속”('25년 6월 정상회담)
    - \*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한일은 경제안보, 자유무역 유지를 위해 경제협력이 불가피”('25년 9월)
- 에너지 및 기술표준 협력
  - 수소·암모니아 공급망 구축, 인증·표준 정비, 안전관리 체계 협력
  - 청정에너지·탄소 저감 분야의 공동 연구 및 국제 표준화 추진
    - \* 제2회 한일 수소협력 대화('25년 3월)에서 한국·일본 간 청정수소 공급망 개발, 인증·표준, 안전 분야 워킹그룹 가동 합의
  - 탈탄소 인프라(수소 저장·운송, 탄소포집·저장기술 등) 공동 개발
    - \* 일본 이시바 총리, “수소·암모니아, AI 등 첨단 분야 협력 강화”('25년 8월 23일, 한일 공동기자회견)
    - \* 한일경제인회의, “탄소중립·수소사회 실현은 양국의 필연적 협력” 공동선언('25년 5월)
    - \*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국제 표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일본 협력 필요”('25년 9월, 주간 경단련타임즈)

## 나. 프로젝트

### □ (GX) 해상풍력 유망구역 신규 지정 사업(주관 : 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

- (개요) 앞으로 확대될 전력 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탄소중립 기여를 위해, 일본 내 해상풍력 유망구역과 지망구역을 선정 중

• '유망구역 지정 → 촉진구역 지정 → 공모 방식 사업자 선정' 절차를 도입하고 있으며, '23년 기준 10개의 유망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일부가 촉진구역으로 전환 중

\* 아키타시 연안과 후쿠오카현 히비키나다 해역 등 신규 '유망구역' 지정

\* 지바 아사히·나가사키 고토·가고시마 이치카쿠시키노, 차기 '지망구역' 선정

- (정부 목표) '30년까지 누적 10GW, '40년까지 30~45GW 규모 해상풍력 설비 도입 추진
- (협력 기회) '유망구역'은 본격 입찰(촉진구역) 전 단계로, 향후 기초 구조물·항만·송전계통 등 인프라 수요가 선제적으로 확대될 전망

### □ (GX)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상용화 선도 사업(주관 : 경제산업성)

- (개요) 재생가능에너지·탈탄소 정책 내 Advanced CCS Projects 사업으로 탄소 포집·저장 능력 확보를 위해 권역별로 사업 추진 중
- (정부 목표) 혼카이도·주부·세토내해·규슈 등 9개 지역에서 연간 약 2,000만 톤 규모 CO<sub>2</sub>저장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함
  - \* (사례) 미쓰비시중공업(MHI), '25년 5월 간사이전력 히메지 발전소에 CO<sub>2</sub> 포집 파일럿 플랜트 가동, 실증 시작
- (협력 기회) 일본 내 CO<sub>2</sub> 저장·수송 인프라 표준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포집장비·배관·엔지니어링 솔루션 분야 내 기술 공급·공정 협력 기회가 확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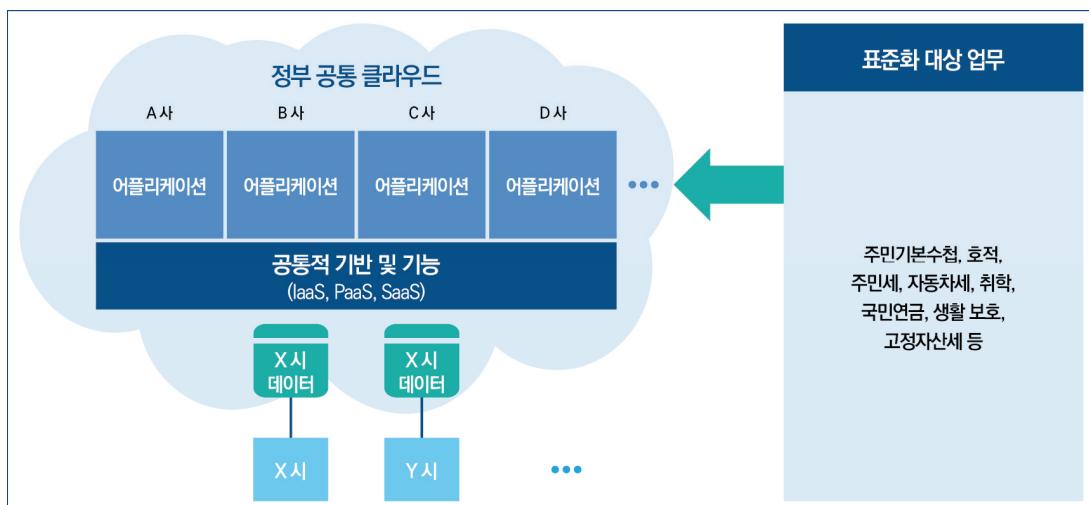
#### 현재 진행 중 및 구상 중인 주요 CCS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저장 지역·방식	감축·저장 규모	특징
Tomato-Atsuma 발전소 CO <sub>2</sub> 포집 설계 사업	홋카이도 토마코마이 인근 저장 예정	일일 약 5,200t	MHI가 기본 설계(FEED)를 수주. 포집된 CO <sub>2</sub> 를 토마코마이 인근 심지층에 저장하려는 구상
동북 해안(일본해 측) 유역 CCS 프로젝트	동북(토호쿠) 지역 해안해역 염수층	연 약 1.5~1.9Mt	여러 기업이 연계하여 항만 및 파이프 +선박 운송 방식 검토 중
Offshore Western Kyushu CCS	규슈 서부 해역 염수층	약 1.7Mt	정유 공장, 화력발전소 배출원을 대상으로 CO <sub>2</sub> 를 해상 저장지로 운송·저장

### □ (DX) 'Gov-Cloud'(정부 클라우드) 전환 사업(주관 : 디지털청)

- (개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효율화를 위한 정부 클라우드(Gov-Cloud) 전환 추진에 따라, '22년~'23년 선정된 AWS, NEC, Fujitsu 등 민간 사업자를 중심으로 공통 아키텍처 및 보안 표준화를 진행 중
- (협력 기회) 일본의 공공 DX·Gov-Cloud 정책 확산에 따라, AI·클라우드 기반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일본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대상 G2B(Government to Business) 진출 확대가 전망됨

〈Gov-Cloud 전환 사업 중 시스템 통일 구상〉



자료: 디지털청

- 우리 기업의 현지 기업 B2B, G2B 협력 사례

### 해상풍력 단지 프로젝트 내 재킷 구조물 공급 성공 사례 (SK옵션플랜트-닛폰 스틸엔지니어링 B2B 수출·공급)

- 내용
  - SK옵션플랜트는 일본 기타큐슈-후쿠오카 하이키나다 해상풍력 단지 프로젝트에서 낫폰 스틸엔지니어링과 계약을 맺고 재킷 구조물을 공급함으로써 일본 해상풍력 시장에 첫 진출을 이룸
  - SK옵션플랜트는 계속해서 글로벌 협업 확대를 위한 MOU 체결 등 활동을 진행 중
    - \* 영국 글로벌 해상풍력 사업 개발사 Corio와 6.8GW 규모 프로젝트 협력 MOU 체결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일본 정부 주도 프로젝트의 경우, 외국 기업의 진입이 어려운 만큼, 직접 단독 수주보다는 대기업 컨소시엄 구성 방식의 접근이 현실적임



### 일본 지방자치단체 대상 AI 돌봄 서비스 도입 합의 성공 사례 (네이버클라우드-이즈모시 G2B, 지방자치단체 협력)

- 내용
  - 네이버클라우드는 '25년 6월, 일본 시마네현 이즈모시와 Clova CareCall AI 돌봄 서비스 도입 MOU를 체결
  - 해당 서비스는 고령자 가구 대상으로 AI 음성 통화로 건강 상태 등을 체크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복지 기관 등으로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으로, '26년 전반기에 시 전역으로 확대 예정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일본 공공·지방자치단체 사업은 현지 인증, 규제 절차, 일본어 대응력이 진입장벽이 되므로, 사전 법률·제도 리스크 점검과 현지 파트너 발굴이 필수적임

### III. 진출전략

- |                 |    |
|-----------------|----|
| 1. PEST/SWOT 분석 | 58 |
| 2. 진출전략         | 60 |

# III 진출전략



## 1. PEST/SWOT 분석

### PEST 분석



#### 정치정책(Political)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최초 여성 총리 취임으로, 보수·개혁의 균형을 중시한 새 정부 노선 출범
- 일본 정부는 'GX(녹색 전환)' 및 'DX(디지털 전환)'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 중
- 반도체·AI·배터리 등 첨단산업 육성에 10조 엔 규모의 공공 지원 계획('30년까지)
- 외국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스타트업 진입장벽 완화 정책 확대



#### 경제(Economic)

- 엔저(円安) 지속으로 수입 원가 상승 부담 있으나, 외국 기업에는 진입 비용 절감 효과로, 진출 매력 상승
- '25~'26년 완만한 경기 회복세 및 소비 회복 전망
- 고령화로 내수 구조 변화, 시니어 시장 중심 수요 확대



#### 사회문화(Social)

- 초고령 사회(100세 인구 9만 명 이상) 진입, 고령자 중심 소비 구조 심화
- 1인 가구 증가('50년 44% 전망) 및 미니멀·개인화 트렌드 확산
- 한류 콘텐츠·패션·뷰티 등 한국 문화 영향력 최고조, Z세대 중심으로 확산



#### 기술(Technological)

- AI, 로봇, IoT, 데이터 인프라 중심의 디지털화 가속
- 정부 주도 '소버린 AI' 개발 및 반도체 공급망 자립 추진
- 고령자 돌봄·의료·물류 분야에서 로봇·센서 기술 상용화 확산

## SWOT 분석

### 강점(Strength)



- 수소·암모니아 생산기술, AI·빅데이터 활용 능력, 배터리·반도체 첨단기술 경쟁력 보유
- 한류 정착으로 화장품, 생활잡화, 패션 등 한국 소비재 전반의 입지가 최고조

### 약점(Weakness)



- 폐쇄적 유통 구조로 일본 현지 네트워크 구축 어려움, 장기 거래 관행으로 신규 진입 제한
- 까다로운 품질 기준, JIS 규격 등 엄격한 인증 절차, 완벽주의 문화로 초기 진입 비용 과다

### 기회(Opportunity)



- 청정에너지 육성 및 AX 정책의 일환으로 수소 경제, 탄소중립, AI 관련 수요 증가
- 초고령화 사회 인구 구조로 액티브 시니어, 에이지 테크 산업 등 신산업 분야 부상

### 위협(Threat)



- 경제 성장 관련 GDP 순위 하락으로, '26년 세계 5위 (인도에 역전), '30년 6위 전망
- 글로벌 공급망 경쟁 속 일본의 자국산업 보호 강화, Japan First 정책 확대 우려

### SO 전략(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 한국의 암모니아 크래킹·저장 기술과 일본의 수소 인프라 투자 연계 양국 협업사업 발굴
- K-AI 솔루션을 일본 제조업 DX 시장에 공급, 제조업 부문 및 사회 문제 해결 관련 수출 확대

산업 대전환 대응  
공급망 협력  
(탈탄소, AX)

### ST 전략(차별화전략-강점 활용)

- 첨단 기술 분야 한국·일본 공동 R&D(수소 터빈, 반도체 소재) 추진으로 기술장벽 돌파
- 중소형 돌봄 로봇, 모듈형 수소 충전시스템 등 일본 대기업이 미진한 분야 집중

트렌드 변화 활용  
소비재 진출 확대  
(한류, 실버세대)

### WO 전략(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 현지 파트너십 활용 일본 상사·유통사와 협업 및 합작법인 설립 등으로 유통망 확보
- 일본 정부 주도 수소·로봇 실증사업 참여로 신뢰 구축 및 레퍼런스 확보

현지화를 통한  
레퍼런스 확보  
(파트너십, 실증사업)

### WT 전략(방어/철수-위협 대응)

- 범용 제품 경쟁 회피, 프리미엄 틈새시장 집중
- 상호보완적 협력으로 제3국 공동 진출 도모

상호보완적 협력  
신시장 선점  
(제3국 진출 협업)

## 2. 진출전략

### 2026년 진출전략

주요 이슈 또는 산업

KOTRA가 제시하는 진출전략



산업 대전환

- 반도체·차세대 소재 중심, 일본 첨단 소부장 협력
- 에너지 전환 가속에 맞춘 수소·암모니아 공급망 선도 진출

AX 혁신 드라이브

- DX를 넘어 AX로, 일본 산업 혁신을 향한 협력 선점

K-라이프스타일 확대

- 한류 열풍과 Z세대 소비 트렌드에 맞춘 K-라이프스타일 진출 강화

사회 구조 변화

- 초고령화 사회 변화 대응 디지털 헬스·웰빙 시장 공략

산업·기술·문화·사회 전환이 교차하는 일본 시장에서  
한국·일본 협력을 통한 신산업 창출과 K-브랜드 가치 확산

## 전략 ①

## 반도체·차세대 소재 중심, 일본 첨단 소부장 혁신 협력



## 전략 수립 배경

- 양국 간 교역 총액 중 60% 이상을 소부장이 차지하며, '24년 기준 480억 달러
  - \* 소재 179억 달러, 부품 229억 달러, 장비 72억 달러 점유
- 일본 정부 반도체 분야에 '30년까지 10조 엔, 조선업 분야에는 '35년까지 3,500억 엔 투자 예정
- 차세대 이차전지 분야는 '30년까지 국내 제조 기반 150GWh/년 확립, 일본 기업의 글로벌 600GWh/년 제조 능력 확보 등을 목표로 설정

## □ 현지 동향

- 반도체 강국으로의 재도약을 위해 '30년까지 10조 엔 투자 예정
  - 경제산업성은 '24년 11월 발표한 'AI·반도체 산업 기초 강화 프레임 워크'에 따라 '30년까지 10조 엔을 투자 예정
  - 이는 일본 내 첨단 반도체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 안전 보장 측면에서 기술 자립성과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임
  - 공적 지원을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도 촉진하여 10년간 총 50조 엔의 민관 투자를 실현하고, 160조 엔의 경제 파급효과 창출을 목표로 함

## 일본 반도체, 첨단 소재 기업의 사업 확대 사례

기업명	주요 내용
라피다스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7년 2나노 반도체 양산 목표로 연구 중</li> <li>현재 프로토타입 실험단계로 추정</li> <li>미국 키사이트(Keysight)社와 협력해 공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li> </ul>
후지필름 (반도체, 전자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도체 소재 사업 강화 위해 일본 내 생산설비 확대에 200억 엔 투자</li> <li>시즈오카, 오이타 지역에 첨단 포토레지스트·CMP 슬러리·클리너 생산거점 건설 계획 발표</li> <li>구마모토 공장에서 CMP 슬러리의 생산 능력 30% 증강</li> </ul>
아지노모토 (반도체,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도체 패키징용 절연필름인 ABF 생산에 250억 엔 투자하여 생산 확대</li> <li>'30년까지 생산능력 50% 확대 계획</li> </ul>
JX Advanced Metals (반도체,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5년 33억 엔 규모의 InP 기판 확대 사업을 발표하였으며 생산량을 약 20% 증대할 계획</li> <li>상장 신청 통한 반도체 소재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확보 계획</li> </ul>

자료: 각사 홈페이지, 언론 종합

- 이차전지 관련, '30년까지 150GWh 확보를 목표로 민관 투자를 확대 중
  - 'GX 추진전략'에 따라 향후 10년간 전지 제조에 민관 합산 7조 엔, 전지 도입에 3조 엔 투자 예정으로, '30년경 전고체전지의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함
  - 토요타, 닛산, 마쓰다, 스바루 등 일본 완성차 4사가 '28년까지 약 1조 엔을 투자해 전기차용 배터리 자체 생산에 나서며,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 명목으로 3,500억 엔을 지원

## □ 유망 품목

- (반도체) 차세대 패키징 기술과 전자부품 및 차세대 소재 분야
  - 일본은 현재 반도체 후공정 및 패키징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본 주도로 다국적 패키징 컨소시엄 'JOINT3'를 구성하여 글로벌 협력 강화
  - 한국은 일본과의 패키징 기술 협력을 확대하여, 차세대 패키징 소재 공급망에서의 입지 확보가 필요함
  - 차세대 반도체용 절연수지, 포토레지스트 및 고방열 소재 분야에서도 기술 협력이 유망하며, 일본의 소재 가공 정밀 기술과 한국이 보유한 공정 최적화 및 양산 기술력의 결합이 가능

### 반도체 분야 사업 협력 사례

기업명	주요 내용
삼성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PFN(Preferred Networks) AI칩 수주</li> <li>• 삼성, 일본 AI 기업인 PFN으로부터 AI 애플리케이션용 반도체 수주, 삼성의 2nm 파운드리 공정+첨단 패키징 서비스 활용해 제조('24년 7월), 한국·일본 간 첨단 설계·제조 협력의 대표 사례</li> <li>• 일본(요코하마) 고급 패키징 R&amp;D 센터 설립 예정</li> <li>• 일본의 소재·장비 클러스터(요코하마)를 활용해 선단 패키징 연구거점 신설(약 250억 엔 투자 보도, '25년 8월)</li> <li>• 일본 공급망과의 구조적 협업 확대를 위한 '현지화' 사례</li> </ul>

- (이차전지) 전고체전지 핵심 소재 및 신소재 공급, ESS용 셀 등 분야
  - 한국은 배터리 셀 제조 경쟁력 우세, 상용화 속도, 원가 경쟁력, 양산 노하우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일본과의 상호보완적 R&D 및 차세대 기술 협력 가능
  - ESS와 재생에너지 연계 수요가 적극 창출되고 있어, 한국·일본 협력을 통해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가치사슬 구축 등 신시장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이차전지 분야 사업 협력 사례

기업명	주요 내용
S社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이차전지 공급망 강화 과정에서 S사는 O사와의 협력으로 진출 성공</li> <li>• '23년 11월 국내 기업 발굴 및 매칭, 화상상담·방일 상담·공장 실사 등 전 과정 밀착 지원</li> <li>• '24년 10월 11만 280달러 규모 장비 수출 완료, 요코하마항 도착 및 설치 지원</li> <li>• '25년 4월 '한일비즈니스플라자' 계기 5년간 1,000만 달러 규모 MOU 체결</li> <li>• '25년 5월 EV 차량 연간 10만 대분 프레도프 양산장비 건 제안(총 50대, 대당 5억 원 규모)</li> <li>• '25년 7월 기존 장비 개량 건 1억 원 규모 추가 발주 확정, 후속 협력 지속</li> <li>• (의의) 이차전지 신소재 양산 장비 납품 성공을 통해 신산업 분야 진출 가능성 제고</li> </ul>

- (조선·기자재) 한국·일본 경쟁은 불가피하나, 기자재·특수선·환경 규제 등에서 협력 여지
  - 한국은 중국으로 디젤엔진 수출에 의존하는 반면, 일본은 프로펠러·터빈·항해장비 등 다품목 수출 구조
  - 한국은 특정 품목 의존으로 변동성이 크고, 일본은 다변화로 안정성 있으나 성장세가 낮아 상호보완적 협력 가능성이 있음

### 조선업 분야 사업 협력 사례

기업명	주요 내용
HD현대중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NE(일본 해운사)-HD현대중공업에 1만 5,900TEU급 LNG 컨테이너선 10척 발주</li> <li>• ONE은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컨테이너선사로 220척 이상의 선박을 운항</li> <li>• HD현대중공업, 1척당 2억 2,000만 달러, 총 17억 6,000만 달러 상당의 컨테이너선 수주</li> <li>• 일본 해운사가 한국 조선소에 발주를 맡긴 사례는 '23년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계약은 외교·산업 양면에서 상징성을 가짐</li> </ul>

### □ 진출전략

- (반도체) 일본 공급망 내 파트너십 구축 및 기술 공동 개발을 통한 협력 확대
  - 공적 지원 확대로 일본 반도체 기술 생태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기업은 일본 반도체 제조·소부장 기업과의 공동 개발형 파트너십 모델을 적극 활용하여야 함
  - 일본 반도체 산업은 정부 주도 하 '공급망 안정화 컨소시엄(Chip Supply Chain Alliance)' 형태로 재편 중이며, 핵심 기업뿐 아니라 부품·소재·장비 협력사까지 생태계 확장이 진행 중으로, 한국 기업은 중견·중소기업의 소재·공정 장비·정밀 부품의 세부 공정 단계별 일본과 협력 가능
  - 일본 종합무역상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프로젝트 정보 접근, 조달 루트 확보, 시장 검증을 추진하고, 일본 내 유관 기관 및 관련 산업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한국·일본 협력 유망한 분야를 찾는 노력 또한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홋카이도·구마모토·이바라키 등) 내 공동 실험·검증거점(Co-lab) 설립을 통해 현지 기술 협력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차전지) 전고체전지 핵심 소재 및 부품 공급으로 차세대 배터리 시장 선점
  - 일본의 전고체전지 양산 목표 시점('27~'28년)에 맞춰 배치식 소성로, 박막 코팅 장비, 고온·고압 프레스 등 전고체 전용 제조설비 공급 준비 및 선제적 기술 제휴 추진 필요
  - 일본 배터리 업계가 요구하는 QMS(품질관리시스템) 인증 및 ISO 규격 충족을 위한 사전 품질검증 프로그램 이수 및 일본 산업표준 대응 체계 마련 필요함
  - 파나소닉·GS유아사 등 일본 배터리 제조사와 공동으로 파일럿 생산라인 구축 또는 소량 시제품 납품을 통한 성능 실증 후 양산 단계 진입 전략 추진 필요
  - 일본은 재생에너지 주 전원화 추진으로 계통용·산업용·가정용 ESS 수요가 급증할 것이기에 한국 기업의 원가 경쟁력 있는 LFP 배터리 셀, BMS(배터리관리시스템), 전력변환장치(PCS) 등 ESS 핵심 부품 수출 확대 기회
  - 또한 일본 내 증가하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수요에 대응해 희소금속 회수 기술, 배터리 해체·분리 장비, 재생 소재 가공 기술 등 순환경 분야 진출 적극 모색
- (조선업) 중국의 독주 대응, 한국·일본 간 ‘경합적 협력 관계’로의 전환 필수
  - 중국의 글로벌 선박 시장 독점, 가격 경쟁력·생산력·기술 추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협력 모색이 불가피
  - 탄소중립 선언, IMO(국제해사기구)와 EU의 규제로 인해 글로벌 조선업계는 LNG·수소·암모니아 추진선 등 기술 개발과 상용화 연구 경쟁 가속, 한국·일본 각각 LNG 선박 경험 기반 수소·암모니아 선박 개발, 특수선 실증연구 추진 중으로 협력 유인이 큼
  - 또한 조선 산업의 디지털 전환(DX) 관련해서 한국 주도의 스마트야드 기술(AI 공정관리)을 일본 조선소에 시범 적용하고, 일본의 정밀 자동화 기술(로봇 용접)을 한국 조선소에 전수하는 등, 교차 실증사업도 고려해 볼 만 함
  -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추세 속, 한국의 글로벌 발주처 관계와 일본의 품질 신뢰성이 결합한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한국·일본 패키지 제3국 공동 수주 기회도 모색

### 한국·일본 4대 전략산업 분석

산업	한국 강점	일본 강점
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소 모빌리티 분야 경쟁력</li> <li>그린수소 대량 생산·충전 인프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소 밸류체인 전 영역</li> <li>글로벌 톱 수준 기술력 보유</li> </ul>
이차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차용 배터리 세계 2위</li> <li>차세대 전고체·리튬이온 개발 선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재·부품 기술 우위</li> <li>전고체배터리 특허·시험생산 강세</li> </ul>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 선박 건조 세계 최강</li> <li>스마트·DX 솔루션 경쟁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부가가치 특수 선박 기술</li> <li>핵심 부품·소재 기술력</li> </ul>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li> <li>HBM·차세대 DRAM 초격차 기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재·장비 부분 세계 1위</li> <li>첨단 노광장비 등 독점적 경쟁력</li> </ul>

#### ※ 4대 산업별 협력 비전

- 수소 : 아시아 청정수소 허브 구축, 제3국 수소 프로젝트 공동 주도
- 반도체 : Beyond 2nm 기술 협력, 글로벌 반도체 표준 주도권 확보
- 이차전지 : 차세대 배터리 공동 R&D, 배터리 재활용 분야 등 신시장 개척
- 조선업 : 친환경·DX 해운시대 주도, 한국·일본 패키지 수주 모델로 중국 독주 대항

## 전략 ② 에너지 전환 가속에 맞춘 수소·암모니아 공급망 선도 진출



### 전략 수립 배경

- 일본 정부는 '30년을 수소사회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현재 관련 정책 도입 가속화 중
  - '23년 6월 '수소기본전략'을 개정하여, '40년까지 수소 1,200만 톤을 해외로부터 도입하고 관민 합계 15조 엔을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
  - 단순한 기술 실증 단계를 넘어 산업 전반의 상용화를 목표로 정책을 전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 산업전략·수소보안전략을 새롭게 마련(일본 자원에너지청, '24년 9월)
- 수소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목표 대비 채산성이 맞지 않아 시장 형성이 지연되고 있어, 한국·일본 협력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다수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 현지 동향

- (실증) 수소·암모니아 공급망 전반에서 공공·민간의 투자 계획이 잇따르고 있으며, 발전·운송·화학 분야별 실증사업이 병행 추진되는 상황

#### 일본 수소·암모니아 공급망 주요 투자 및 실증사업 현황

분야	기업	사업	추진시점/위치	주요 내용
발전	JERA·이토추상사	암모니아 혼소 발전 실증	'24년 7월~/ 아이치현 하마마쓰시	JERA는 하마마쓰 4호기(1GW급)에서 20% 암모니아 혼소 상용화를 위한 실증을 추진 중이며, '30년 상용 발전 기준 혼소율을 50%까지 확대할 계획
	J-POWER	오키나와 요나바루 발전소	'25년 1월~/ 오키나와현 요나바루정	석탄 발전에 20% 암모니아 혼소 기술 적용 실증, '28년 완전 전환 목표
운송	가와사키중공업· 이와타니산업	SUISO FRONTIER 프로젝트	'20년~'24년/ 효고현 고베항	호주 브라운콜(갈탄) 수소를 액화하여 일본 고베항으로 운송하는 국제 공급망 실증 완료
	미쓰이해운· 미쓰비시조선	액화암모니아 운반선 건조	'24년 5월~/ 나가사키현 사세보	7,500m³급 액화 암모니아 운반선 'NH <sup>3</sup> Carrier' 개발 완료, '26년 실선 운항 예정
화학	도호쿠전력· 이데미츠코산	그린암모니아 합성 실증	'25년 3월~/ 미야기현 센다이시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해 암모니아 합성, '30년 상용 플랜트 구축 목표
	스미토모화학	암모니아 분해 수소 제조 기술 개발	'25년 6월~/ 에히메현 니이하마시	기존 화학 플랜트 설비를 활용한 암모니아 분해형 수소 제조 실증 진행

- (상용화) 전력사 중심의 암모니아 혼소 상용화 가속
  - JERA는 '24년 4월 헤기난화력발전소 4호기(100만kW급)에서 세계 최초로 20% 암모니아 혼소 실증시험을 개시하여, '24년 6월 성공적으로 마침
    - \* 해당 실증시험에서 질소산화물(NOx)은 석탄 전소 대비 동등 이하 수준, 황산화물(SOx) 배출 약 20% 감소 달성(JERA, '24년 6월)
  - 일본 정부는 기존 석탄화력 설비의 연료 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
- (인프라) 항만을 거점으로 한 수입 시설 정비 확대
  - 고베항의 'Hy Touch Kobe'를 시작으로, 오사카·요코하마·기타큐슈 등 주요 항만에서 수소·암모니아 수입 터미널 건설이 이어지고 있음

- Hy Touch Kobe(효고현 고베항) : 가와사키중공업 컨소시엄(이와타니산업, 셀, J-POWER 참여)이 운영 중인 세계 최초의 액화수소 하역기지로, 호주에서 생산된 액화수소를 수소 운반선 'SUISO FRONTIER'를 통해 수입·하역하는 국제 공급망 실증 프로젝트('20년 완공)

- 항만별로 저장탱크·하역설비·극저온 배관 등 설비 구축이 진행 중이며, 정부는 '30년까지 항만 단위의 공급망 완성도를 높여 해외 공급망과 연계할 계획임
- (新시장) 수전해 설비 및 연료전지 산업 생태계 구축
  - 수전해 설비 분야에서 아사히카세이는 알칼리 수전해 장치 제조 체계를 확립하고, '30년 세계 시장 점유율 20%를 목표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임
    - \* '24년 9월에는 이탈리아 De Nora사와 컨테이너형 수전해 시스템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적 교류에도 힘쓰고 있음
  - 연료전지 분야에서 토요타자동차는 '25년 제3세대 연료전지 시스템을 공개하고, 상용차·선박 등 산업용 응용 분야로 공급을 확대함
    - \* 토요타는 누적 2만 8,000대의 연료전지차를 판매하고 2,700기 이상의 시스템을 100개 기업에 공급함으로써, 수소 이용 가치사슬의 실질적 기반을 확보함
- (한국·일본 협력)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기업 레벨에서의 협력도 활성화 조짐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24년 산업장관 회담에서 '청정수소·암모니아 공급망 개발 워킹그룹' 신설에 합의하고, 양국 간 청정수소·암모니아 공급망 구축 및 활용 협력을 위한 제도적 협의 채널을 마련함
  - 현대자동차와 토요타자동차는 '24년 수소 기반 차량 개발 및 인프라 구축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기술 교류와 공동 연구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 방향을 검토 중임

## □ 유망 품목

- 암모니아·액화수소 해상 운송 인프라 기자재
  - 일본의 '40년 수소·암모니아 1,200만 톤 도입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해상 운송 체계 확충이 필수적임. 이에, 암모니아·액화수소 운반선, 극저온 저장탱크, 하역 설비, 압력제어시스템 등 고정밀 기자재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일본 조선 기업과 종합상사 간 공동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LNG선 기술 경쟁력이 높은 한국 조선·기자재 기업의 참여 여지가 큼
- 암모니아 혼소 발전용 핵심 설비
  - JERA의 실증 성공으로 기존 석탄화력의 혼소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암모니아 전용 버너·연소 제어 시스템·배기가스 처리장치 등 관련 설비 수요가 늘고 있음
    - \* IHI·미쓰비시중공업 등 혼소 설비 양산 체제 구축 추진, 고온·고압 대응 소재, 정밀 제어 부품이 신규 조달 대상에 포함됨
  - 한국의 열처리·제어계측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품 공급 협력 가능성이 존재
- 수소·암모니아 저장·하역 및 충전 인프라 설비
  - 고베·오사카·요코하마 등 주요 항만의 수입 거점 정비에 따라, 극저온 밸브·특수 배관·단열재 등 정밀 부품의 수입 대체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 일본은 해당 부품을 유럽산에 주로 의존, 납기와 비용 면에서 경쟁력 있는 공급망 확보가 과제
  - 국내 기업은 LNG 터미널·플랜트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항만 인프라 기자재 공급망에 진입 가능
- 수전해 장치 및 연료전지용 핵심 부품
  - 일본의 수전해 설비 제조사는 전극·분리막 등 핵심 부품 대부분을 유럽에서 조달하고 있어,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필요함
    - \* 아사히카세이의 대형 설비 가동과 함께 부품 조달처 다변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전극·분리막·가스획산층 등 정밀 부품 양산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일본 완성차·중공업 사의 수입 대체 후보로 부상 중임
- 수소 모빌리티용 고압 저장기기 및 부품
  - 일본 정부의 수소충전소 1,000개소 구축 목표('30년 기준)와 상용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고압 압축기·저장용기·레귤레이터 등 관련 핵심 부품 및 소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 토요타·히노 등이 상용차용 고압저장기술 개발 추진, 고내압·경량화 기술이 핵심 요구 조건으로 부상
  - 한국 복합 소재·정밀 압축기 기술을 기반, 일본 충전 인프라 기자재 공급망 참여 가능

## □ 진출전략

- 항만 및 에너지 인프라 공동 개발 참여
  - 일본 항만 공사와 에너지 기업은 수소·암모니아 터미널 건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항만별 거점 구축에 맞춰 설계·시공·기자재 조달 단계에서 국제 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므로, 우리나라 기업은 배관·밸브·압축기 등 핵심 기자재 분야에서 일본 현지 컨소시엄과의 공동 수주 및 기술 제휴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단위 실증 및 공공 프로젝트 참여 확대
  - 일본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총전소·항만 거점 구축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 기업과 외국계 기업 간의 공동 참여 사례가 늘고 있음
  - 전문 전시회(FC EXPO, World Smart Energy Week 등)를 통한 기술 홍보 및 기관 간 교류가 네트워크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기업은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일본 주요 에너지 기업·지방자치단체와의 접점을 확보하고, 실증사업 및 공동 연구로 연계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적극 검토 필요
- 산업 간 연계 중심의 기술 협력 기반 강화
  - 발전·화학·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수소·암모니아 관련 기술의 융합이 진행되고 있음. 세부적으로는 수전해·연료전지·혼소 등 개별 기술의 표준화와 공동 실증이 병행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개발 협의체 구성이 확대되는 추세임
  - 민관 공동 연구·시험 생산을 통한 기술 검증 기간 단축과 조달비 절감 효과가 논의되고 있는 현재 일본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핵심 부품·소재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현지 실증 프로젝트 참여 및 공동 개발 파트너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일본 수소 생태계 향후 3대 진출 유망 분야

주요 분야	주요 내용
액화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고배향에서 세계 최초 5만m<sup>3</sup> 규모의 액화수소 하역기지 운용 성공(극저온 -253°C 유지). 핵심 기술 검증 완료</li> </ul>
국제 공급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망) 대규모 상업적 인프라 구축 단계 진입. 검증된 기술 표준을 기반으로 한 반복적이고 안정적인 시장 수요 형성</li> <li>• (기회) 국제 규격 표준 선점. 표준화된 대형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 부품 및 기자재 공급망 진입 유망</li> </ul>
액화수소 저장·운송 기술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극저온(-253°C) 환경 제어를 위한 초고도의 기술력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기자재 : 고정밀 극저온 밸브, 특수 압력용기, 고성능 센서류</li> </ul> </li> <li>• (전망) 진입장벽이 높은 고부가가치 부품 및 소재 시장 형성 → 일반 기자재 대비 높은 마진을 확보 가능</li> <li>• (기회) 기술 틈새시장 선점. 초고난도 기술력을 요구하는 극저온·고압 분야 부품 및 소재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 및 공급망 진입 최적</li> </ul>
일본 내 수소 수입·저장 거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고배향 외 오사카, 요코하마 등 주요 항만에 액화수소 수입 저장 거점 확장 계획 발표</li> <li>• (전망) 수소 유통망의 상업화 가속화. 지역 거점별 맞춤형 저장·운송 솔루션 수요 증가 예상</li> <li>• (기회) 다중 거점 공급망 구축. 각 거점 항만 및 내륙 유통을 위한 파이프라인, 트레일러 등 육상 운송 인프라 시장에 대한 추가 진입 기회</li> </ul>

**전략 ③****DX를 넘어 AX로, 일본 산업 혁신을 향한 협력 선점****전략 수립 배경**

- 노동력 부족, 고령화, 설비 노후화 등으로 AI 활용 예지정비, 품질검사, 스마트그리드 예측 제어, 협동 로봇 등 분야의 AI·AX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
- 일본 기업의 개별적 요구사항에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하며, 현장 중심의 네트워킹과 소규모 PoC(실증) 부터 단계적 협력 확대 구조가 바람직함.

**□ 현지 동향**

- 제조·물류·소매·금융·의료 등 산업 전반에 AI·AX 수요 급증
  -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로보틱스·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업무 효율화 수요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
  - 전통적인 제조기업뿐 아니라 물류·소매·금융·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AI 기반 자동화, 예측 분석, 고객응대 AI 등 자동화 솔루션 도입 확대 중
-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 및 글로벌 협력 병행
  - 일본 정부,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한편,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해외 기술 기업과의 공동 R&D·실증 협력도 확대 중
    - \* Fujitsu 후가쿠(富岳) LLM 프로젝트, Sakana AI-해외 오픈소스 협업 사례

**일본 내 산업별 AI·AX 적용 사례**

기업명	주요 내용
후지쯔(Fujitsu), 스바루(SUBAR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종 : ICT, 자동차 제조</li> <li>• 문제 : 스바루, 엔진 캠샤프트 연마 공정에서 품질 보증을 실시간·고정도로 수행해야 하여 수작업 검사 부담·라인 다운타임 문제 발생</li> <li>• 도입 : 스바루, 후지쯔와 공동으로 공정 데이터(스핀들 전력, 진동 등)를 학습한 품질 예측 AI 및 공장 엣지 단말·모델 라이프사이클 관리(COLMINA) 구축</li> <li>• 효과 : 대량 생산 부품의 품질 일관성 향상, 라인 다운타임 폐기 감소, 다른 공정으로의 확장 가능성 확보</li> </ul>
일본제철 (Nippon Ste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종 : 철강 제조</li> <li>• 문제 : 숙련자 의존이 높은 작업(용융 슬래그 처리 등)에서 인력 고령화와 기술 전승의 어려움이 발생하며, 안전성과 작업 품질의 일관성 확보 과제 대두</li> <li>• 도입 : 일본 내 ICT 기업 ExaWizards 등과 AI 분석 플랫폼을 공동 개발·도입하여 작업자의 조작 데이터·영상·센서 정보를 통합 분석, 숙련자 작업 패턴을 AI가 학습해 비숙련자도 동일 수준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li> <li>• 효과 : 작업 품질의 균질화, 숙련 기술의 표준화, 작업 안전성 향상 및 숙련자의 기술을 AI로 전승하는 기반 마련</li> </ul>

기업명	주요 내용
라쿠텐 (Rakut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종 : 이커머스, 금융, 통신</li> <li>• 문제 : Rakuten사의 고객인 중소기업들은 아날로그 중심 반복적 사무 업무로 생산성이 낮으며, AI 도입 검토 시 경험, 기술, 비용, 보안 등 장벽이 존재</li> <li>• 도입 : 고객용 생성형 AI 서비스 Rakuten AI for Business 출시, 이메일 작성, 번역, 브레인스토밍, 데이터 요약 등 업무 자동화, 내부 문서 양식 등 기능 제공</li> <li>• 효과 : 중소기업 대상 AI 활용 접근성 확대 및 생산성 향상 기반 마련하여 데이터 보안 강화 및 사용자 신뢰 확보, 이커머스 입점 고객의 운영·마케팅을 개선</li> </ul>

## □ 유망 품목

- 예지정비 솔루션(Predictive Maintenance)
  - 노후화된 일본 제조설비에서 고장 예측·설비 모니터링 수요가 높으며, AI 기반 예지정비 시스템 현지화 협력 가능성이 큼
    - \* 일본은 예지정비 시장의 핵심 국가로 연평균 19.5% 성장 전망
- AI 품질검사 및 생산성 향상 솔루션
  - 비전 AI·딥러닝 기반 자동검사 시스템 도입 확대에 따라, 불량률 저감, 인력 절감 효과로 중소 제조업체의 수요 증가
    - \* 일본 제조업 불량률 목표는 PPM(백만분율) 단위로, AI 비전 검사 도입 필수
- 자율화·로보틱스 솔루션(AGV·협동로봇)
  - 인력난 완화 및 물류·조립공정 효율화 목적인 자율이동로봇·협동로봇·AI 제어시스템 도입이 가속화
    - \* 일본은 '산업용 로봇' 시장의 세계 1위, '69년 가와사키중공업이 첫 산업용 로봇을 개발한 이후 40여 년간 축적한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의 45%를 차지(국제로봇연맹)

## 우리 기업 주요 협력 사례

분야	주요 내용
예지정비 솔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기업 A사, AI 기술을 활용하여 설비의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과 고장 예측을 통해 스마트팩토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 시간을 단축시키는 솔루션을 보유</li> <li>'24년 KOTRA 봄업코리아에서 일본 로컬 5G 네트워크 전문 구축 A사와 100만 달러 규모의 구매 MOU를 체결</li> <li>'25년에는 TOKYO SMART FACTORY EXPO 등 전시회에 참가. 관련 AI 솔루션을 선보이는 등 일본 시장 진출 본격화</li> <li>'25년 5월 EV 차량 연간 10만 대분 프레도프 양산장비 건 제안(총 50대, 대당 5억 원 규모)</li> <li>'25년 7월 기존 장비 개량 건 1억 원 규모 추가 발주 확정, 후속 협력 지속</li> <li>일본에서 수요가 높은 제조업 내 AX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스마트팩토리 분야 한국·일본 기술 협력의 실질적 성과 사례</li> </ul>
AI 품질검사 및 생산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기업 B사, 쓰레기 분리수거 시 빛 파장을 흡수하여 인식이 어려운 검정색 플라스틱에 대해 중적외선 초분광 카메라와 딥러닝 AI 활용, PP·PE·PET·ABS 등 재질·함량별로 효율성 높게 분별·처리하는 솔루션 개발</li> <li>동사의 광학선별기 솔루션에 대한 일본 기업의 관심이 높아 KOTRA GP 센터 사업을 통해 일본 진출 본격화. 현재 일본 내 자원 재활용 업체 및 농업 분야, 제조사 내 이물질 분별 분야 등으로 사업을 확대 중</li> <li>AI 및 광학 기술을 활용해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일본 시장에 진출한 사례로 평가</li> </ul>
자율화 및 로보틱스 솔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자율주행 물류로봇 기업 C사, 일본 물류업계, 인력난과 라스트마일 배송 효율 저하 해결을 위해 자동화 수요 급증을 바탕으로 일본 시장을 타깃팅</li> <li>일본 물류기업 D사, 일본식 건물 환경(좁은 복도·층간 이동)에 적합한 C사의 솔루션에 관심을 가지고 '24~'25년에 걸쳐 일본 아파트 단지 실증 수행(PoC) 수행</li> <li>실증 결과 배송 효율 향상과 인력 투입 절감 효과를 확인하여, C사는 D사와 '25년 상반기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li> <li>한국 스타트업이 일본 물류사와 로봇 실증부터 공급 단계까지 진행한 AI·로보틱스 기반 한국·일본 산업 협력의 사례</li> </ul>
문서, 행정 업무 자동화 솔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기업 D사, 일본어에 최적화된 대규모 일본어 언어 모델을 개발하여 일본 시장 진출</li> <li>일본 현지 환경에 맞춘 LLM 및 문서 AI 솔루션으로, 문서 자동요약·정보추출 등 사무 자동화 수요를 겨냥</li> <li>일본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공공기관 문서처리, 데이터 분석, 고객응대 시스템 등에 AI 솔루션 공동실증 추진</li> <li>'24년 일본법인 설립 후, 일본 기업 대상 AI 문서처리 및 업무자동화 프로젝트 수주를 진행 중이며, LLM 기반 정보처리 기술력을 인정받아 일본 내 복수 대기업 및 SI(시스템 통합)기업과 PoC 협의 단계 진입</li> <li>일본 정부의 소버린 AI 개발 지원 정책과 일본어 특화 AI 기술을 기반으로 현지 행정·기업의 업무 자동화 수요를 선점하며, 고도화된 언어모델 중심의 현지화 성공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li> </ul>

## □ 진출전략

- 일본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과의 PoC(실증) 중심의 단계적 협력과 현지화 강화
  - 일본 기업은 소규모 실증(PoC)부터 효과를 확인한 후 점차 확대하는 단계적 도입 경향이 강하여 초기에는 부서·라인 단위의 공동 실증으로 성과를 입증하고, 이후 현지 파트너와 장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유효

### 일본 지방자치단체 PoC 진출 성공 사례

프로젝트	AIoT(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 건축물 회복탄력성 봉괴 진단 솔루션
발주처	시즈오카현 하마마쓰市(인근 3개 지역(하마마쓰, 후쿠로이, 코사이) 공동 과제)
국내 기업	(주)S社
지원금	최대 200만 엔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통의 과제에 대해 3개 도시 전역에 전개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실증 실험 제안을 모집하여 시민의 안전과 도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함
내용	<p>후쿠로이市의 레이더 기술 등을 활용한 배수설비장의 열화 상태 진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3년 3월, 우리 기업이 현지 일본 진출상담을 위해 KOTRA 도쿄IT지원센터 방문</li> <li>'23년 8~9월, 서류심사 및 최종 심사 통과</li> <li>'23년 10월, 소테리아에이트-후쿠로이市-KOTRA 첫 현장대면 미팅</li> <li>'23년 11월, 현지 사무실 계약, 현지 직원 고용, 법인 설립, 비자 신청 지원</li> <li>'24년 9월, '25년도 후쿠로이市 지방자치단체 실증사업 선정</li> <li>'25년 9월, 지역 인프라 노후화라는 긴급 현안을 해결하는 실증실험 성공적 수행,</li> <li>NHK 방송에 성공 사례로 방영되며 기술적 우수성 입증('25년 9월 1일)</li> </ul>
진행 경과	

- 산업별·기업별 맞춤형 제안 체계 구축
  - AI·AX 도입 목적과 적용 범위가 산업·기업·부서별로 상이하므로, 일률적 제안보다는 업종별 니즈에 대응한 모듈형·맞춤형 솔루션 제안 체계 구축 필요
  - 제조업은 인력 감소와 노후 설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지정비, 품질검사, 공정자동화 등 AI·로보틱스 기반 생산성 제고 솔루션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
  - 서비스업은 고객 맞춤형 서비스와 운영 효율 향상을 위해 데이터 자동화, 고객응대 챗봇, 업무프로세스 최적화 등 디지털 전환형 AI 솔루션 수요 증가

## 전략 ④

## 한류 열풍과 Z세대 소비 트렌드에 맞춘 K-라이프스타일 진출 강화



### 전략 수립 배경

- 일본은 아시아 내에서 가장 오래된 한류 소비 시장으로, 2000년대 드라마 중심의 ‘1차 한류’에서 현재는 K-팝, K-뷰티, K-패션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확장된 시장으로 발전
- 일본 Z세대들은 ‘한국스러움’을 원하면서도 세심한 현지화를 선호, 한국 기업은 한류 감성(세련·감각적 디자인, 스토리텔링)에 일본식 서비스 품질을 접목시켜 “K+J Hybrid” 브랜드 이미지 구축 가능

### □ 현지 동향

- 일본 Z세대를 중심으로 SNS를 통해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일상 속에서 K-라이프스타일을 적극 소비하고 있음
  -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를 통한 한국 브랜드 및 제품 노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일본 내 한류 팬층이 문화 소비에서 실제 구매로 이동하는 추세
  - 일본의 K-뷰티를 중심으로, 한국 브랜드의 인지도 확산은 패션·푸드 등의 산업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한국스러움(K-감성)’이 하나의 소비코드로 자리 잡음

### □ 유망 품목

- 패션
  - K-패션은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하나의 폭발적인 유행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특히 한국 MZ세대들의 최신 패션 트렌드에 관심 다대, 실시간으로 전파되는 중
  - 현대백화점, 무신사, 신세계백화점 등 한국 대기업 주도, 현지 유통망과의 협업을 통한 팝업스토어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으며 일본 진출 최대 매출 기록 간신 중
    - \* 무신사 일본 최대규모 팝업스토어 개최('25년 10월), 최근 1~2년 사이 일본 백화점 내 한국 패션 브랜드 입점 증가
- 뷰티
  -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등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함께, 클리오 등 브랜드는 일본 유통업체 지분 인수와 현지 전용 제품 출시로 시장 공략 가속
    - \* CJ 올리브영 '23년 일본 법인 설립, 오프라인 진출 준비 중, PB(자체 브랜드)로 테스트마케팅 실시 등 현지 전략 전개
- 식품
  - 한국 치킨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는 '24년 도쿄 시부야에 첫 매장 오픈 40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만 명, 매출 1억 엔 돌파, 곧 하라주쿠에 2호점 개장 예정

- 한국 외식 브랜드(깐부치킨, 할리스커피 등)의 일본 상류 및 일본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통한 K-푸드의 유통도 활발

#### • 생활잡화

- 패션 액세서리 등 한국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진출 확대로 신오쿠보 등 일본 내 한류 거리에 한국 잡화 편집숍들이 잇따라 등장, 오프라인 점점 증가 추세
- 특히 최근, '한국식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 급증으로, '한국스러운 방' 꾸미기가 유행처럼 번져 일본의 대형 잡화점인 로프트(LOFT)에서도 파티션 거울, 캠들워머 등의 한국 소품브랜드 기획전을 개최 했으며, 유통채널에서도 K-인테리어 아이템을 발 빠르게 도입 중
  - \* 국내 1위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집', '22년 법인 설립 후 '오히우스'라는 일본 서비스 시작, '24년 전자상거래 기능 도입하며 사업 확장, '25년 기준 일본 앱 다운로드 수 100만 회 이상 돌파

### 일본 소비재 시장 진출 성공 사례

기업명	주요 내용
E社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잡화 제품, 일본 최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마쿠아케 프로젝트 이후 가전 양판점 입점</li> <li>• 탁상용 냉·온풍기, 일본 크라우드 펀딩 고객 주목을 받음</li> <li>• '25년 4월 마쿠아케 프로젝트 진행 시 목표 금액 11497% 달성. 1억 원을 넘은 구매 금액으로 수출 원료</li> </ul>
E社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식 건강간식 곤약 쫀득이, 일본 다이소 입점 성공</li> <li>• '23년 5월 지사화 사업에 처음 참여하여 일본 대리점을 발굴</li> <li>• 이후 2년 이상 K-CON, 기프트쇼 등 전시회 출전 등도 병행하며 KOTRA와 함께 일본 유통 채널을 공략, 다이소와 계약 성사</li> </ul>
M社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일회용 젓병 선두주자, 일본 대표 유아용품 유통매장 진출</li> <li>• 동사 대표 제품인 일회용 젓병 등이 온라인상에서 20~30대 일본 엄마들 중심으로 화제가 되기 시작, 일본 진출을 위해 후생노동성 식기검사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진행</li> <li>• '25년 9월 일본 유통망 마루이의 미조노구치점에서 최초로 팝업스토어 운영, 제품 호평으로 A사 등 일본 대표 유아용품 도매상과 계약 체결</li> </ul>

### □ 진출전략

- (유통망) 유통 다각화(온·오프라인) 및 현지 파트너십 전략
  - EC화율(전체 거래 중 전자상거래 비중)이 상승하는 가운데, 오프라인에서의 체험도 여전히 중시하는 소비 습관 고려, 옴니채널 전략(EC(전자상거래)플랫폼 입점-오프라인 체험형 매장 운영 등)이 필수
  - 대형 유통망(드럭스토어·편의점·백화점)과 공동 프로모션 및, Rakuten, Qoo10, Amazon Japan 등 주요 플랫폼별 맞춤 진입 전략 추진
- (디지털 전환) 일본 시장 진출, '발견 기반' 접근의 '디스커버리 마케팅' 추진
  - \* 디스커버리 마케팅 :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탐색하지 않아도, 콘텐츠·추천·경험을 통해 브랜드를 '발견하게 만드는' 마케팅
  - 최근 일본 MZ세대는 검색(Search)보다 피드·추천(Discovery) 중심의 구매 행동을 보이며, SNS 알고리즘 통해 우연히 노출된 브랜드가 실구매로 이어지는 경우 증가

- 한국 소비자 기업은 기존의 유통·광고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발견 여정을 설계하는 접근으로 전환이 필요함
- (현지화) 한국의 강점인 빠른 제품 혁신력을 활용한 현지화 전략
  - 한국 기업은 '빠른 제품 혁신력'과 '디지털 친화성'이라는 강점을 가지나 우위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본 고유한 문화·감성·품질 기준을 반영하는 현지화 전략 필수
  - 한국스러운 '속도'와 '디지털 감각'은 유지하되, 일본 소비자의 '세밀한 취향'과 '감성 기준'에 맞춰 디자인·UX·마케팅 등을 조정하는 전략 필요
- (과제) 일본 시장의 높은 품질기준 충족
  - 일본 소비자 시장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품질 기준과 안전성에 대한 까다로운 요구를 충족 시켜야 함
  - 일본 소비자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질·인증 기준 충족 선행이 필수
- (콘텐츠 연계) K-콘텐츠와의 연계 및 한류 마케팅 사업 참가를 통한 기회 모색
  - K-콘텐츠 협업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K-드라마, K-팝, 인플루언서 등 한류 콘텐츠와의 협업을 통해 제품 노출 효과 극대화, 소비자 몰입도 강화
  - 일본에서 개최되는 한류와 소비자 융복합 대형 전시·상담회 적극 참가

### KOTRA 일본지역본부 한류 연계 소비자 사업 사례

<b>'24~'25년 LOFT 입점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최대급 유통망 LOFT와 최초로 우리 기업 입점 지원 2년 연속 협업</li> <li>• LOFT 구매담당자 및 벤더사 20여 명 방한, 우리 소비자 기업과 1:1 상담회 진행</li> <li>• I社 '잔망루피 IP', LOFT 全 점포 입점 및 시부야점 단독 팝업스토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社 '24년 對일본 수출액 전년비 2배 이상 증가</li> </ul> </li> </ul>
<b>'24 한류박람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년 만에 일본에서 개최, SBS 인기가요 연계, 역대 최대 성과 창출</li> <li>• 역대 최대 규모 상담·전시회 개최로 K-소비자 일본 수출 성과 극대화</li> <li>• '한류박람회 O2O기획전' 추진 이베이재팬 역대 최대 판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대 한류박람회 판촉 규모 중 최대치, 과거 평균 판매액 10배 이상</li> </ul> </li> </ul>
<b>'25 K-CON 연계 수출상담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J ENM과 협업, K-CON 한류 공연 연계 B2B, B2C 상담회 개최</li> <li>• 우리 내수 초보 기업 상담 351건, MOU 계약 12건 성사</li> </ul>
<b>'25 일본 백화점 팝업스토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제 사업으로 일본 진출전략 수립 및 마케팅 지원 → 일본 대형 유통망 협업 팝업스토어 개최</li> <li>• B社(감자빵) : 이세탄백화점 신주쿠 팝업스토어, 베이커리 부문 10년 내 최고 매출 달성</li> <li>• P社(콘텐츠) : 마루이백화점 신주쿠 본관, 일본 첫 단독 팝업스토어 성황리 개최</li> </ul>



東京韓流博覽会

〈한류박람회 후지TV 특집방송〉



〈2025 K-CON 도쿄〉



〈이세탄백화점 감자빵 팝업〉

## 전략 ⑤

## 초고령화 사회 변화 대응 디지털 헬스·웰빙 시장 공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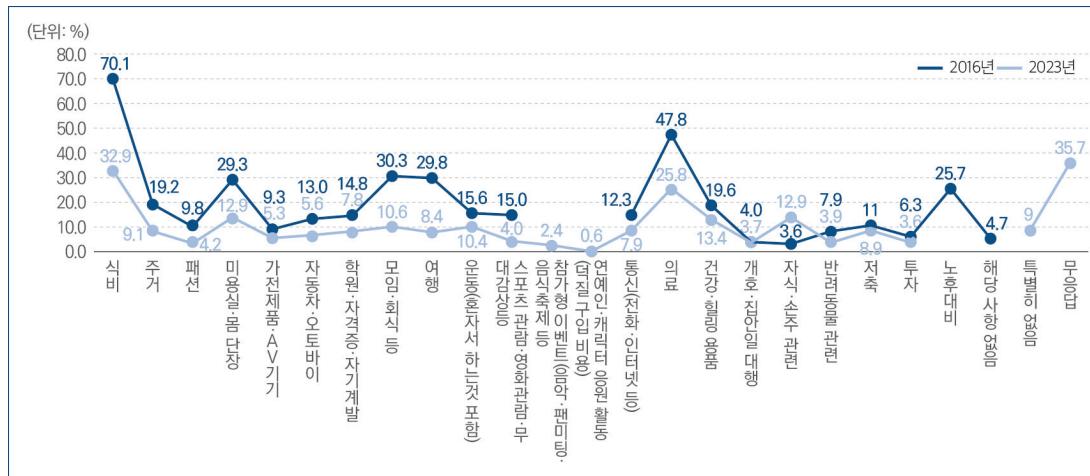
## 전략 수립 배경

- 일본의 액티브 시니어 시장은 과거와 달리 즐기는 삶과 소비를 추구하는 경향 有
- 과거와 다른 액티브 시니어의 소비 패턴을 파악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 '자신다운 소비'를 추구하며, 높은 디지털 친화성을 보이는 '디지토쿠 시니어(デジ得シニア)'의 출현이 특징

## □ 현지 동향

- 시니어 소비자의 지출 구조가 식비와 의료에 집중된 '필수 지출형 구조'에서 자기만족, 여가, 사회적 교류 중심의 '다원적 소비'로 진화
  - 일본 소비자청이 실시한 소비자 의식 기본조사에 따르면 '16년 당시 소비의 70% 이상이 식비와 의료에 집중된 반면 '23년에는 의료 비중이 25.8%로 감소하고 여행, 운동,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소비가 다변화
  - 이에 따라 단카이 세대 가치관을 반영한 액티브 시니어 전용 상품, 서비스 개발과 '즐기는 노후'를 지원하는 시장 움직임이 등장

〈‘현재의 소비 현황’에 대한 ’16년과 ’23년 기준 분야별 상세 응답〉



자료: '(주)일본 SP센터' 보도자료, '25년 6월 6일'

## 일본의 액티브 시니어 대상 시장 공략 사례

기업명	주요 내용
타카라지마 (宝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니어 패션지 '스테키나 아노히토(素敵なおの人)' 발행. '19년 9월부터 발행 중인 50~70대 여성 패션잡지</li> <li>액티브 시니어 여성의 높은 디지털 적응도를 바탕으로 '24년부터 모바일·태블릿에 최적화된 디지털 콘텐츠를 상시 발신</li> </ul>
오스턴스 (Ost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최대급 시니어용 SNS '취미인클럽' 운영. 시니어 대상 취미 모임 활동, 일기 및 사진 공유, 온·오프라인 모임, 이벤트 교류를 제공하는 일본 최대급 시니어 취미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 수 40만 명 이상, 월 PV(페이지 뷰) 3,000만 회, 순방문자 115만 명, 커뮤니티 2,000여 개 운영</li> </ul> </li> </ul>
라이잡 (RIZ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니어 전용 트레이닝과 맞춤형 식단·건강 데이터 분석을 결합해, 고령자가 자기 주도적 건강 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li> <li>연령별 체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데이터 기반 맞춤형 관리 솔루션 제공</li> </ul>

자료: 기업 홈페이지

## □ 유망 품목

- 스마트 복약 트레킹 기기
  - 자택 및 시설에서 고령자의 약 복용 누락 및 중복 복용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복약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
  - 클라우드 기반 복약 데이터 관리, 조제 약국 연계 모델을 통해 차별성 확보. 최근에는 기기 단품 판매보다 서비스형 의료기기가 확산하는 추세
- 고령자 인지 건강·우울 예방 디지털 서비스
  - 일본은 치매 고령자 증가로 고령자 인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해 일일 과제를 제시하는 등 인지 능력을 지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전망
  - 지역별 치매 카페\*, 보건소 등과 연계해 고위험군에 대한 알람, 긴급 상담 등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형 모델 구축 가능
    - \* 치매 카페 : 치매인과 가족의 고립 완화, 정보 상담, 교류망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형 거점
- 낙상(전도) 예방·감지 센서
  - 고령 단독 가구 증가와 돌봄 인력난으로 24시간 모니터링 및 비상 시 알림 수요가 급증, 요양시설 및 자택에서 모두 활용도 높음
  - 실제로 최근 바이어들로부터 요양·간병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見守り) 관련 제품에 대한 문의가 증가
- 고령자 맞춤형 식단 배달 서비스
  - 시니어의 식사 준비 및 영양 불균형 문제로 인해 등장한 서비스. 특히 일본 지방에서는 쇼핑 난민\* 문제가 커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심도가 높음
    - \* 쇼핑 난민 : 교통 약자인 고령자의 생필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

- 고령자 워케이션(Workcation) 어학·문화 체험 서비스
  - 은퇴·세미리타이어(Semi-retire)층\*의 ‘한곳에 오래 머무르며 배우기’ 수요 증가. 쇠퇴하는 지방을  
되살리기 위한 활성화 방안 + 시니어의 사회 참여 욕구 충족 가능
    - \* 세미리타이어층 : 완전히 은퇴하지는 않고, 연금 및 퇴직금 투자 등으로 소득원을 다양화하고 부분 근로를  
병행하여 시간 여유를 활용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중장년층
- 액티브 시니어 대상 취미 구독 서비스
  - 고령자의 여가·경험 중심 소비 확대로 기초 장비 대여, 레슨, 전시·발표 기회까지 연결한 취미(악기,  
사진, 도예 등) 구독 서비스 유망

## □ 진출전략

- (디지털 헬스·고령자 케어) 파트너십 구축 및 PoC(실증) 통해 초기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전략 필요
  - 일본 후생노동성이 운영하는 ‘니즈·시즈 매칭’ 플랫폼은 현장의 요구에 맞는 돌봄 로봇 등을 개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요양시설이나 리빙랩으로부터 발생한 구체적인 현장의 과제를 정리한 리스트를  
상시 게시
    - \* 일본의 요양원이나 에이지테크 기업에서 해당 매칭 서비스를 활용하여 요양원별 수요에 맞는 돌봄 로봇을  
도입하거나, 요양원 입소자별 투약 시스템을 관리하는 복약 오류 방지 기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받은 사례 있음
  - 일본 내 의료기기 유통업체, 약국 체인, 지방자치단체 실증 프로젝트와의 협력 등을 통해 현장의  
수요를 포착하고, 제품을 실증하며 초기 진입장벽 낮출 필요 있음

### 현지 파트너십 전략

파트너 유형	역할	주요 기업·기관	협력 모델
MAH·DMAH (제조판매업, 허가보유자 등)	제조판매업 대리	TÜV SÜD Japan 등	제품 등록 대행
의료기기 유통	판매 채널	의료기기 전문상사	총판·위탁 판매
약국 체인	복약 관리 연계	대형 약국 프랜차이즈	B2B, B2C 모델
요양시설	실증 및 피드백	요양원, 그룹홈	파일럿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	정책 지원	도쿄·오사카市 등	보조금·실증사업
대기업	기술·유통	NEC, Sony, Panasonic	기술 제휴·OEM

##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실증사업 성공 사례

기업명	주요 내용
D社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4년 7월 일본 전역에서 온라인 진료 및 약 배송 서비스를 개시하고, 도쿄 시부야區와의 실증 실험 프로젝트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활발히 진행</li><li>• 적자 병원 70% 환경 속 '새 바람' 일으키는 일본 헬스테크(Healthtech) 스타트업 열풍으로 한국 기업의 진출 성공 사례</li></ul>

- 요양 현장에서는 긴급 시 즉각 대응 능력이 특히 중시되므로 일본 내에서 신속하게 대응 가능한 대리점 또는 현지 법인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
- (액티브 시니어)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선택에 따른 맞춤형 상품·서비스 개발이 요구됨
  - 일본은 수용성·신뢰 확보를 위해 시니어가 직접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공동 제작(Co-Creation)'을 중시하여 고객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주력
  - 은퇴 후 여가 중심의 소비 확대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해 단순한 제품 판매보다 체험형 프로그램 강화가 필수



## 전기차용 배터리 셀 및 모듈

- 선정사유**
- 일본 주요 완성차 업체(토요타, 혼다, 닛산 등)는 '3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EV) 라인업 확대를 본격화 중이며, 이에 따라 고에너지밀도·고출력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한국은 파우치형·각형 셀을 포함한 다양한 배터리 제조기술에서 글로벌 톱티어(Top-tier) 수준을 확보하고 있으며, 니켈·코발트·망간 등 원자재 조합 최적화 기술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일본 보다 우위
- 시장동향**
- 일본의 전기차 시장은 '26년까지 연평균 약 25% 성장하며 하이브리드 중심 구조에서 순수 전기차로 비중이 빠르게 이동 중
  -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및 충전 인프라 확충 정책이 지속되며, 향후 '30년에는 전체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이 30% 전망
- 경쟁동향**
- 파나소닉과 프라임플래닛(토요타-파나소닉 합작)이 시장을 주도하지만, 공급 능력 확대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CATL, BYD 등 중국 배터리 기업도 일본 시장 진출을 시도 중이나, 일본 OEM은 여전히 품질·안정성·공급망 리스크를 우려하는 상황
- 진출방안**
- 일본 OEM과의 공동 개발 및 샘플 테스트 협력을 통한 초기 진입 전략이 유효하며, 안정적 품질과 AS 지원 체계를 제시해야 함
  - 단순 셀 공급보다는 BMS(배터리관리시스템), 냉각 구조, 모듈 설계가 결합된 통합 솔루션 형태로 접근 시 기술적 신뢰도 제고 가능

## 배터리 소재(동박, 분리막, 전해액)

- 선정사유**
- 일본은 배터리 소재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동박·분리막 등 핵심 소재는 여전히 수입 의존도가 높고 원가 부담이 큰 상황
  - 한국 기업은 고품질 동박·분리막·전해액 생산기술 및 대량 양산 경험을 보유해 일본 OEM이 요구하는 균일도·내열성·절연특성 층족 가능
- 시장동향**
- 반도체·자동차용 전해액 및 고체전해질 수요 증가로 소재 공급선 확보가 주요 과제가 되고 있음
- 경쟁동향**
- 미쓰비시화학, 스미토모화학, 야사히카세이 등 자국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지만, 기술 개발 속도는 제한적
  - 해외 기업의 진입장벽은 높으나, 검증된 품질 + 일관된 납기 대응력을 갖추면 장기 납품으로 전환 가능
- 진출방안**
- 일본 OEM과 사전 인증 시험·공동 품질테스트 추진을 통해 신뢰 구축
  - 단일 공급보다는 복수 소싱 체계의 '보완재 포지션'으로 접근하여 위험 분산 및 초기 진입장벽 완화

## 협동로봇·물류자동화 장비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본 제조업과 물류 산업 전반에서 인력 부족이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며, 중소 공장의 자동화 수요가 급증</li><li>• 한국은 중소형 협동로봇, 물류 피킹·패킹 자동화 솔루션 분야에서 기술성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li></ul>   |
| <b>시장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5년~'30년 일본 서비스로봇 및 물류자동화 장비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성장 전망</li><li>• 정부의 로봇보조금 제도, 중소기업 자동화 지원 사업 등으로 로봇 설치비 절감 효과가 확대</li></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파나(FANUC), 야스카와, 가와사키 등 대기업이 산업용 로봇을 중심으로 시장을 점유하나, 중소 제조업 맞춤형 협동로봇 부문은 공급 공백 존재</li><li>• 유럽(ABB, Universal Robots) 대비 일본 내 협동로봇 공급은 제한적이어서 한국 중소기업의 틈새시장 진입 여지가 큼</li></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경량·저비용·협동형' 로봇을 전면에 내세워 일본 중소 공장 대상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li><li>• 현지 SI(시스템 통합)기업이나 유통사와 협력해 유지보수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할 필요 있음</li></ul>  |

## 공조·수처리용 고효율 필터 및 열교환기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본 정부는 GX(녹색전환) 및 에너지 절감 정책 강화를 추진 중이며, 건물·공장용 공조기 및 수처리 설비의 고효율화가 주요 과제</li><li>• 한국은 필터소재, 세라믹·금속가공 기술, 정밀 열전달 설계 분야에서 기술적 강점을 보유</li></ul> |
| <b>시장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본 HVAC·수처리 교체 시장은 연평균 5% 이상 성장하며, 노후 설비 교체 및 탄소저감 보조금 제도 유지로 꾸준한 수요 발생</li><li>• 병원·지방자치단체 시설 중심의 대형 공공 프로젝트가 증가 중</li></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다이킨, 파나소닉, 히타치 등 대기업이 대형 설비를 중심으로 점유하고 있으나, 중소 규모 OEM 시장에서는 외주 수요가 지속</li><li>• 필터 교체주기가 짧고 기술 인증 절차가 간소한 세부 품목에서는 신규 진입 여지가 있음</li></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고효율·저소음형 모듈 설계 및 시제품 제공을 통해 현장 실증 중심의 접근 필요</li><li>• 일본 에너지 절감 사업자(ESCO)와 연계한 'K-에너지솔루션' 공동 실증 프로젝트 추진</li></ul>                             |

## 차량용 HUD·센서 모듈

<b>선정사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율주행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기능 확산, 차량용 디스플레이·센서 모듈 시장 급성장</li> <li>한국은 광학렌즈·OLED·MEMS(미세전자기계시스템) 센서 기술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li> </ul>
<b>시장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자동차 전장 시장은 연 8% 이상 성장하며, HUD(Head-Up Display)·카메라·레이더 모듈의 신규 탑재율이 급증</li> <li>토요타, 혼다 등은 ADAS 고도화를 위해 센서 일체형 HUD 개발 추진 중</li> </ul>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덴소, 히타치오토모티브 등이 내제화를 강화 중이나, 모든 부품을 자체 개발하기엔 비용 부담이 큼</li> <li>해외 공급사는 기술 제휴나 공동 개발 형태로 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li> </ul>
<b>진출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형 HUD·센서 모듈의 공동 개발 제안을 통해 초기 레퍼런스 확보</li> <li>AS 및 테스트베드 제공을 통해 일본 OEM과의 신뢰관계 강화</li> </ul>

## 의료용 영상기기 주변 부품(센서·PCB 등)

<b>선정사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의 급속한 고령화와 의료자동화·로봇보조수술 확대에 따라 영상센서·정밀 전자부품 수요가 증가</li> <li>한국은 의료용 전자회로, 초소형 PCB(인쇄회로기판), 고감도 센서 기술과 가격 경쟁력 보유</li> </ul>
<b>시장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RI, CT, 초음파 등 영상진단 장비의 유지보수 및 부품 교체 수요가 연평균 7% 이상 증가</li> <li>고정밀 소형화·저소비전력 추세로, 모듈 단위 외주 조달 확대</li> </ul>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올림푸스, 캐논메디컬 등 일본 메이저 기업이 주요 부품을 자체 생산하지만, 원가 절감을 위해 비핵심 부품은 외부 조달 비중 확대 중</li> <li>고품질·저비용의 해외 부품 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li> </ul>
<b>진출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핵심 부품부터 납품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핵심 모듈 진입을 노림</li> <li>현지 의료기기 OEM 및 전문 유통상과의 기술 협력 체계 구축</li> </ul>

## 기자재

<b>선정사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일본 DC 시장, '24년 4조 180억 엔에서 '29년 5조 4,036억 엔으로 성장 전망(후지키메라)</li><li>일본 정부, '30년까지 DC 전력 용량 1.5배 확대(1.3GW → 2GW) 계획. 하이퍼스케일 및 AI 전용 데이터센터 투자가 빠르게 증가 추세</li></ul>
<b>시장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미쓰비시전기·후지전기·히타치 등 자국 제조사 중심 구조지만 일부 외국계 기업의 DC 인프라 공급망 진입 사례도 있음</li><li>가격 경쟁력, 보안·품질·납기 등 신뢰 측면에서 한국·대만 등 일본 내 인지도 有</li></ul>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부품 단위(UPS(무정전전원장치), 배전반, 냉각모듈, DCIM SW(데이터센터인프라관리 소프트웨어)로 진입해, 일본 SI기업·건설사와 공동 프로젝트 방식으로 실적 축적 필요</li><li>일본 기업이 중시하는 장기 신뢰성, 서비스 대응성 확보를 위해 현지 지사 설립 또는 파트너 협업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li></ul>
<b>진출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시제품을 통한 일본 공정 테스트 및 인증 획득으로 신뢰 확보</li><li>중견 OEM 생산라인에 샘플 납품 후 실증 데이터 제공을 통한 장기 거래 유도</li></ul>

## 고기능 필름·코팅소재(광학·전자용)

<b>선정사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디스플레이, 렌즈, 태양광, 이차전지 보호필름 등 일본 수요 확대</li><li>한국은 PET, PI, 폴리우레탄 기반의 고기능 필름·코팅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글로벌 전자소재 시장 경험이 풍부</li></ul>
<b>시장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일본 기능성 필름 수입액은 4년 연속 증가 중이며, OLED·광학렌즈·배터리용 보호필름 중심으로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li><li>반도체 패키징, 광학 코팅, 스마트 글래스용 신소재 개발이 활발.</li></ul>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Toray, Teijin, Mitsubishi Chemical 등 대기업이 주도하지만, 중소형 응용소재는 외부 조달 의존도가 높음</li><li>정밀코팅·저반사·방습 기능 등 특수 공정 소재에서 틈새시장 존재</li></ul>
<b>진출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OEM 협력 기반으로 세부 용도 맞춤형 제품 개발</li><li>소재 공동 개발 및 일본 내 가공사와의 기술 연계 확대를 통해 현지화 추진</li></ul>

## 프리미엄 건강식품 원료(면역·피부·혈류 개선)

<b>선정사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령화 심화로 일본 내 건강관리·예방의학 중심 소비가 급증</li> <li>한국은 인삼·발효추출물·펩타이드 등 기능성 인증 원료를 다수 보유,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차별화 가능</li> </ul>
<b>시장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기능성 표시식품 시장은 '24~'28년 약 1.5배 성장 예상, 특히 면역·피로회복·피부미용 관련 원료가 주도</li> <li>천연·한방 소재 수입 원료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꾸준히 상승 중</li> </ul>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사히, 오츠카, 산토리 등 대기업이 OEM 중심으로 시장을 주도하나, 중소 OEM들은 원료 다변화를 추진 중</li> <li>한국산 기능성 원료는 품질 인증과 임상데이터를 갖춘 경우 진입 용이</li> </ul>
<b>진출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능성 표시식품 제도(FOSHU) 및 개별 심사 대응 체계 확보</li> <li>일본 OEM 대상 원료 샘플·데이터 패키지 제공 및 공동 마케팅 추진</li> </ul>

## AX

<b>선정사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 현장 노동력 부족과 첨단산업의 자동화 수요가 꾸준히 확대</li> <li>일본, 높은 제조 역량으로 로봇·부품의 내재화·국산화율이 높으나, 공급망 다변화 및 원가 절감을 위한 외국 거래처 발굴 수요 존재</li> </ul>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Yaskawa, Denso, Fanuc 등 높은 기술력을 가진 부품 및 로봇 제조사 다수 존재</li> <li>협동로봇, 소형 로봇, 자동화 보조 부품 시장 내 외국 기업의 일본 진출 사례 다수</li> </ul>
<b>진출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봇 SI기업, 부품상사와의 공동 인증,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 등 기회를 통한 CVC 접촉 등</li> <li>설비 자동화 관련 일본 기업과 공동 검증, PoC, 성능테스트 등 진행</li> <li>품질보증(QA)과 빠른 납기 대응을 중심으로 한 B2B 기술 제안 필요</li> <li>일본 중소 OEM과의 지속적 공급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 거래 기반 확보</li> </ul>



## 클라우드 ERP·협업 SaaS

- 선정사유**
- 일본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DX) 지연으로 인해 ERP(전사적 자원관리)·협업도구 등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솔루션 수요가 급격히 증가 중이며, 특히 제조·도소매·서비스업 중심으로 클라우드 기반 전환이 활발함
  - 한국 SaaS 기업은 빠른 커스터마이징, 직관적 UI/UX, 유연한 요금체계 측면에서 일본 로컬 제품 대비 강점을 보유
- 시장동향**
- 일본 SaaS 시장은 '25~'30년까지 연평균 17% 성장 전망이며, 회계·인사·재고관리 등 백오피스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 중
  - 정부의 'IT 도입 보조금' 및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금 제도가 유지되면서 초기 구축 비용 부담 완화
- 경쟁동향**
- Cybozu(그룹웨어), Sansan(명함 관리), freee(회계) 등 자국 SaaS 기업이 강세지만, 특정 기능 중심의 단일 솔루션이 많아 통합형 ERP·협업 플랫폼은 공급 부족
  - 일본 현지 언어·법인회계 기준·보안 규제 적응이 관건
- 진출방안**
- 일본어 UI·메뉴 현지화 및 고객지원(FAQ, 챗봇 등) 구축으로 신뢰 확보
  - “클라우드 구독모델+유지보수 패키지” 형태 제안, 초기 무상 PoC 도입으로 확산 유도
  - 현지 SI기업이나 IT유통사와 협력하여 고객사 온보딩 및 운영지원 네트워크를 조기 확보

## AI 기반 제조공정 최적화 솔루션

- 선정사유**
- 제조업 DX의 핵심으로, 센서·PLC(자동제어시스템)·MES(생산관리시스템)에서 수집된 공정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품질 예측·불량 감지·설비효율(OEE) 개선을 목표로 함
  - 한국은 AI 모델링·딥러닝 기반 이상 탐지 및 데이터 전처리 기술에서 높은 경쟁력 보유
- 시장동향**
- 일본 정부가 제조 DX 보조금 사업을 대폭 확대하며, 반도체·자동차·식품·정밀기계 등에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 수요가 급증
  - 중견기업은 클라우드형 AI 솔루션을 선호하며, 온프레미스(On-premises)보다 초기 비용 절감 가능
- 경쟁동향**
- Hitachi, NEC, Fujitsu 등 SI기업이 자국화 시도 중이나, AI 인력 부족과 알고리즘 개발 역량이 한계로 지적됨
  - 외부 전문기업과의 협력 PoC를 선호, 데이터 표준화와 클라우드 연동 기술이 핵심
- 진출방안**
- 클라우드형 AI 분석툴 제공, 고객 맞춤형 학습 모델을 일본 서버(클라우드) 환경에 호스팅
  - 현지 제조사와 공동 실증(PoC) 추진 및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계적 상용화 제안
  - 장기적으로는 AI+IoT 통합 솔루션으로 확장, MES·PLC 인터페이스 지원 강화

## 사이버보안·데이터보호 서비스

<b>선정사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안 인력 부족과 랜섬웨어·데이터 유출 사고 증가로 중소기업 중심의 관리형 보안 서비스 수요 급증</li> <li>한국은 통합보안관리(MSS), 클라우드 보안, 데이터 암호화 등 다양한 솔루션 운영 경험 풍부</li> </ul>
<b>시장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사이버보안 시장은 연평균 10% 성장 중이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2년) 이후 보안 투자가 빠르게 증가</li> <li>클라우드 전환 가속으로 네트워크 보안뿐 아니라 엔드포인트·데이터 보호 서비스 수요 확대</li> </ul>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rendMicro, NTT Data, LAC 등 대기업 중심 시장 구조로, 중소기업 대상 실시간 모니터링·대응 서비스는 부족</li> <li>MSS(관리형 보안 서비스)와 SOC(보안 운영 센터)를 통합 제공 가능한 외부 협력업체 수요가 존재</li> </ul>
<b>진출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독형 MSS 모델 제안, 월정액 기반으로 탐지·대응·리포팅 일괄 제공</li> <li>일본 IT유통망·SI파트너와 협력해 로컬 지원 체계 구축</li> <li>현지 법규(PIPA) 준수 및 ISMS 인증 취득으로 신뢰 확보</li> </ul>

## 원격의료·건강모니터링 플랫폼

<b>선정사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령화와 의료 인력 부족으로 원격진료·재택의료 수요가 급증</li> <li>한국은 ICT 기반 의료 플랫폼·헬스케어 앱·웨어러블 디바이스 연동 기술에 강점</li> </ul>
<b>시장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정부가 원격진료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며, 만성질환자·노인요양시설 대상 모니터링 서비스 시장 급성장</li> <li>건강데이터 기반의 예방의료(Wellness) 플랫폼으로 발전 중</li> </ul>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TT데이터, Philips, Omron 등 글로벌·자국 대기업 중심이나, 중소병원·요양시설용 플랫폼은 공급 부족</li> <li>개인정보보호·의료데이터 저장 규제는 여전히 진입장벽</li> </ul>
<b>진출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진단(Wellness) 서비스 형태로 초기 진입 후, 병원·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실증사업(PoC) 진행</li> <li>일본 의료기기 인증·데이터보호 기준을 충족하는 클라우드형 모니터링 플랫폼 제안</li> <li>보험사·헬스케어기업과 제휴해 B2B2C(Business-to-Business-to-Consumer) 모델로 확장</li> </ul>

## 핀테크 결제 게이트웨이·API 서비스

- 선정사유**
- 일본은 여전히 현금 비중이 높으나, 코로나19 이후 모바일결제·전자지불이 빠르게 확산
  - 해외 관광객 증가로 외화·국제결제 API 수요 증가

- 시장동향**
- 캐시리스(Cashless) 결제율 '24년 기준 40% 돌파, QR·NFC·온라인 결제가 동시 성장
  - 정부는 'Cashless Vision 2025'로 결제 인프라 통합 추진

- 경쟁동향**
- PayPay, Rakuten Pay, Line Pay 등 대기업 주도 구조
  - 소규모 리테일·숙박·교통 분야는 다언어·다통화 결제 솔루션 부족

- 진출방안**
- 멀티 통화·글로벌 카드 연동 가능한 게이트웨이 API 공급
  - 일본 은행·카드사 API와 연동해 현지화 완성도 제고
  - 관광지·중소 가맹점 대상 B2B2C 모델로 접근

## 에듀테크(직무·IT 재교육 플랫폼)

- 선정사유**
- 일본 정부가 '리스킬링(Re-skilling)' 정책 확대, 직무전환·IT교육 예산 대폭 증액
  - 한국은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과 자체 콘텐츠 개발·운영 경험 풍부

- 시장동향**
- 일본 인재 재교육 시장은 '26년 1조 엔 규모로 성장 전망
  - IT, 데이터 분석, 외국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교육 수요 지속 상승

- 경쟁동향**
- Benesse, Udemy Japan, Recruit 등 대형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기업 맞춤형 B2B 솔루션은 부족
  - 중소기업은 교육 인프라·관리 시스템 부재로 외부 솔루션 도입에 적극적

- 진출방안**
- 콘텐츠 현지화 및 일본 기업문화 반영형 교육 모듈 제공
  - SaaS형 교육관리(LMS)+HR 데이터 연동 서비스 제안
  - 현지 파트너를 통한 공동 세미나·기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 물류 자동화 / 풀필먼트 플랫폼

- 선정사유**
- EC 시장 확대로 물류센터의 자동분류·피킹·패킹 시스템 수요 급증
  - 일본은 인력 부족과 고비용 구조로 자동화 전환이 불가피

- 시장동향**
- EC물류 시장 연 8~10% 성장, 풀필먼트(Fulfillment) 서비스(보관·포장·배송 일괄대행) 확대
  - 정부의 '스마트 물류 혁신' 지원 정책으로 자동화 설비 도입 촉진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IPPON EXPRESS, SG Holdings 등 대형 물류기업 중심이나, 중소 EC셀러 전용 솔루션은 부족</li> <li>로봇·WMS(창고관리시스템)·AI 수요예측 기술의 통합 솔루션화가 핵심 과제</li> </ul>
<b>진출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듈형 WMS + 로봇 연동 솔루션 제안</li> <li>일본 물류센터 운영사 및 SI업체와 제휴해 현장 실증 및 공동 마케팅 추진</li> <li>초기엔 B2B SaaS로 제공 후, API 개방을 통한 확장 전략 병행</li> </ul>

## 디지털 마케팅·콘텐츠 제작

<b>선정사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중소기업의 SNS·온라인 홍보 역량이 낮고, 디지털 브랜딩 필요성 확대</li> <li>한국은 영상·웹·SNS 콘텐츠 제작 노하우와 한류 감성 결합형 마케팅 강점 보유</li> </ul>
<b>시장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SNS 광고 시장은 연 15% 이상 성장하며, 인플루언서 마케팅·숏폼 콘텐츠 소비가 급증</li> <li>전통 광고예산의 온라인 전환 비중이 빠르게 확대</li> </ul>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형 광고사(Dentsu, Hakuhodo) 중심 구조로, 중소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움</li> <li>외주형 콘텐츠 스튜디오·소셜마케팅 대행사 수요 증가</li> </ul>
<b>진출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류 콘텐츠 감성을 결합한 스토리텔링형 마케팅 기획</li> <li>일본 중소 브랜드 대상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대행' 서비스 제안</li> <li>일본어 자막·내레이션·플랫폼별 최적화 콘텐츠 패키지 제공</li> </ul>

## 에너지 관리 플랫폼(EMS/BEMS)

<b>선정사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X(녹색전환)·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감·모니터링 솔루션 수요 확대</li> <li>한국은 스마트시티, 공공건물 에너지관리 실증 경험 풍부</li> </ul>
<b>시장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지방자치단체·공공시설 중심으로 EMS(에너지관리시스템)와 BEMS(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 도입 확산, 태양광·EV 충전 통합 관리 수요 증가</li> <li>건축물 에너지 성능평가 제도(BELS)와 연계 추진 중</li> </ul>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가스·전력 계열사 주도, 고가의 대형 시스템 위주로 중소 사업장 접근성 낮음</li> <li>중소형 빌딩·공장용 경량화 솔루션은 공급 부족</li> </ul>
<b>진출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단체·건설사와 공동 실증사업 추진, 실시간 에너지 데이터 시각화 기능 강조</li> <li>클라우드 기반 EMS 패키지 제안, 탄소저감 리포트·AI 예측기능 포함</li> <li>장비(OEM)와의 API 연동으로 현장 확장성 강화</li> </ul>

## 웹툰·모바일게임·IP 현지화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본은 세계 최대 디지털 만화 시장(약 2조 엔 규모)으로, 한국 웹툰·게임 IP에 대한 인지도 높음</li><li>• 한국은 글로벌 IP 제작, 트랜스미디어(웹툰-드라마-게임) 연계 수익모델 확보</li></ul>                                   |
| <b>시장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모바일게임·웹툰의 동시 소비 문화 확산, 픽코마·라인망가 등 플랫폼 중심 시장 확대</li><li>• 일본 내 해외 IP 도입·현지화 수요 증가</li></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카카오재팬·라인·스퀘어에닉스 등 대형 플랫폼이 시장을 주도하나, 현지화 인력·번역 품질 문제로 외부 협력 수요 있음</li><li>• 중소 콘텐츠 제작사는 신규 IP 확보 어려움</li></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본 플랫폼사와 공동 기획·번역·로컬라이징 협력 체계 구축</li><li>• IP 공동 배급·수익 공유 방식으로 진입, 현지 독자층에 맞춘 콘텐츠 편집·UI 최적화 추진</li><li>• 한국·일본 간 크로스미디어 협업으로 2차 저작물(애니메이션·게임) 확장</li></ul> |

### 첨부 3

##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 '26년 일본 지역 KOTRA 주요 사업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소비재·스타트업	일본 마쿠아케 크라우드 펀딩 활용 소비재 테스트 마케팅 지원사업	1분기/서울
해외취업	2026 온라인 잡페어 SPRING	온라인/1분기
의료기기	Medical Japan Osaka 2026 한국관(혹은 연계 사업)	3월/오사카
소부장(조선기자재)	Sea Japan 2026 연계 조선기자재 파트너링	4월/도쿄
소부장	2026 한-일 에너지 페어	5월/오사카
소부장(전력기자재)	일본 전력기자재 무역사절단 사업	5월/후쿠오카
자동차부품	Future Mobility in HONDA	2분기/도쿄
헬스케어·의료기기	테크노피아 초청 의료기기 일본 진출 상담회	2분기/서울
소비재·스타트업	일본 와디즈 연계 내수·수출초보기업 해외 진출지원 사업	2분기/서울
소비재	KCON JAPAN 2026	2분기/도쿄
소비재(패션)	무신사·더현대 연계 K-패션 일본 진출 지원사업	2분기/도쿄
투자유치	첨단산업 소부장 투자유치 IR(반도체, 이차전지 등)	2분기/도쿄
산업 트렌드 대응 (탈탄소)	한-Aisin K-테크 파트너링 상담회	2분기/나고야
산업 트렌드 대응 (탈탄소)	Inside Japan 모빌리티 기술교류전 2026	2분기/나고야
소부장(반도체)	일본 규슈 반도체 공급망 진출지원 사업	9월/후쿠오카
소비재	Cosme Week Osaka 2026 한국관	9월/오사카
해외취업	제15회 오사카 단독 한국인재 채용박람회	9월/온라인
수소·해상풍력	2026 Smart Energy Week 연계 Energy Japan	3분기/치바
소비재	한류박람회 2026(잠정)	3분기/도쿄
소비재	2026 중부지역 유통망 연계 미용, 식품 진출사업	3분기/나고야
소비재(서비스)	e-러닝 어워드 연계 에듀테크 로드쇼 2026	3분기/도쿄
소비재(서비스)	K-프랜차이즈 일본 진출 로드쇼	3분기/도쿄
소부장	2026 오사카 기계요소 기술전 한국관	10월/오사카
취업	2026 온라인 잡페어 AUTUMN	11월/온라인
투자유치	ILS* 2026 연계 스타트업 진출 지원사업 * Innovation Leaders Summit : 아시아 최대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	12월/도쿄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소비재	2027 일본 소비재 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4분기/도쿄
투자유치	국가 투자 환경 설명회	4분기/도쿄
반도체	2026 Semicon Japan 연계 첨단소부장수출상담회	4분기/도쿄
소부장	High Tech GP Japan (신재생에너지·자동차·이차전지·반도체)	4분기/도쿄
소비재	2026 KOREA FESTIVAL 연계 소비재 판촉전	4분기/나고야
소비재	일본 Qoo10 연계 One stop EC 플랫폼 입점지원 사업	연간/서울
소비재	일본 PayPay 결제시스템 활용 소비재 테스트 마케팅 지원 사업	연간/도쿄
소비재	라인기프트 활용 일본 관계형 커머스 서비스 시장 진출 지원사업	연간/도쿄
소비재(식품)	일본 KALDI 연계 일본 식품 유통망 진출사업 (Taste Korea)	연간/도쿄
소비재(식품)	일본 세이조이시이 연계 일본 식품 유통망 진출사업 (Taste Korea)	연간/도쿄
소비재	일본 반려동물 용품 유통망 입점 지원 사업	3~11월/ 후쿠오카
소비재	1무역관 1유통망 연계 간사이 소비재 팝업스토어	연2회/간사이 주요 도시

## 첨부 4

#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통상국회 소집	1월	예산 및 주요법안 심의
노동기준법 개정	연내	14일 이상 연속근무 금지 등
GX추진법	4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참여 의무화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6년도 예산안 성립	3월	
'25년도 정부·기업 회계연도 마감	3월 31일	
'26년 금융정책결정회의	1월 22~23일 / 3월 18~19일 / 4월 27~28일 / 6월 15~16일 / 7월 30~31일 / 9월 17~18일 / 10월 29~30일 / 12월 17~18일	
G7 서밋 참석	6월 14~16일	프랑스
G20 서밋 참석	연내	미국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전시회명	일시(잠정)	장소
코스메워크 전시회	1월 14~16일	국고지원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오토모티브월드 전시회	1월 21~23일	국고지원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2026 일본 오사카 외식 비즈니스 전시회 (FOOD STYLE Kansai 2026)	1월 28~29일	외식
뷰티월드 재팬 후쿠오카	2월 1~18일	미용, 에스테틱
국제 기프트쇼 전시회	2월 4~6일	
2026 일본 오사카 낚시 전시회 (Fishing Show Osaka 2026)	2월 6~8일	낚시용품

전시회명	일시(잠정)	장소
2026 일본 오사카 오토 멧세 전시회 (OSAKA AUTO MESSE 2026)	2월 13~15일	자동차
JAPAN IT WEEK NAGOYA	2월 25~27일	IT, 디지털
2026 일본 오사카 백오피스 전시회 (Back Office DXPO 2026)	2월 24~25일	총무, 인사 등 서비스
2026 일본 오사카 시푸드 전시회 (The 23th Seafood Show Osaka 2026)	2월 25~26일	해산물
뷰티월드 재팬 나고야	3월 23~25일	소비재, 뷰티 코스메틱
인터펫 전시회	4월 2~5일	국고지원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춘계 IT워크 전시회	4월 8~10일	
메뉴팩처링 월드 나고야 2026	4월 8~10일	제조업 DX, 소재·부품· 가공기술 등
2026 일본 오사카 물류 전시회 (KANSAI LOGIX 2026)	4월 8~10일	물류
2026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고기능 플라스틱 전시회 (Highly-functional Material Week 2026)	5월 13~15일	고기능소재
2026 일본 고베 보석 전시회 (30th International Jewellery Kobe)	5월 14~16일	보석, 광물
뷰티월드 전시회	5월 18~20일	국고지원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농업 WEEK J-AGRI KYUSHU	5월 27~29일	농업, 축산
2026 일본 오사카 애완동물 인터펫 전시회 (Interpets OSAKA 2026)	6월 19~21일	반려동물 용품
AXIA EXPO 2026	6월 3~5일	자동차·부품, 기계, 전기·전자
ROBOT TECHNOLOGY JAPAN 2026	6월 11~13일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
M-Tech 전시회	7월 1~3일	국고지원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2026 일본 오사카 리테일테크 전시회 (RETAIL TECH OSAKA 2026)	7월 2~3일	매장시스템, 캐시리스, IoT 등
2026 일본 오사카 건축, 건축 자재 전시회 (ARCHITECTURE+CONSTRUCTION MATERIALS OSAKA)	7월 2~3일	건축자재
2026 일본 오사카 세큐리티 전시회 (SECURITY SHOW OSAKA 2026)	7월 2~3일	정보보안
2026 일본 오사카 프랜차이즈 전시회 (JAPAN FRANCHISE SHOW OSAKA 2026)	7월 2~3일	프랜차이즈

전시회명	일시(잠정)	장소
2026 일본 오사카 재팬샵 전시회 (JAPAN SHOP OSAKA 2026)	7월 2~3일	점포 인테리어, 조명, 설비 등
2026 일본 오사카 광학 레이저 간사이 전시회 (2026 Oprics & Photonics KANSAI)	7월 15~16일	광학, 레이저, 화상 계측관련 기기 등
2026 일본 오사카 임베디드 종합 기술 전시회 (2026 EdgeTech+West)	7월 23~24일	AI, 5G, 센서, SW, HW, IoT 등
일본 오사카 국제 화장품 전시회 (COSME Week Osaka 2026)	9월 30~10월 2일	화장품
2026 일본 오사카 의약품 제조 기술 연구 전시회 (INTERPHEX Osaka 2026)	9월 30~10월 2일	의약품
2026 일본 오사카 식품공장 전시회 (FOODtech Week Osaka 2026)	9월 30~10월 2일	식품공장, 음식점 자동화
2026 일본 오사카 재생 의료 산업화 전시회 (Regenerative medicine EXPO 2026)	9월 30~10월 2일	의료
규슈 반도체 산업전	9월 30~10월 1일	반도체, 전기전자
2026 일본 오사카 기계요소 기술 전시회 (Manufacturing World Osaka 2026)	10월 7~9일	기계부품, 첨단소재
2026 일본 오사카 교육 전시회 (2026 EDUCATION EXPO JAPAN Osaka)	10월 13~15일	교육 교보재, 에듀테크 등
2026 일본 오사카 화장품 전시회 (2026 Beautyworld Japan Osaka)	10월 19~21일	화장품
2026 일본 오사카 모노즈쿠리 국제 기계 전시회 (Future Monozukuri International EXPO 2026)	12월 2~4일	기계부품, 첨단소재
세미콘재팬 전시회	12월	국고지원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김보혜	과장	일본지역본부	81-3-3214-7073	alice@kotra.or.kr
2	김현재	과장	도쿄무역관	81-3-3214-6921	presentkim@kotra.or.kr
3	오준형	과장	도쿄무역관	81-3-3214-7043	joon0123@kotra.or.kr
4	김대수	과장	오사카무역관	81-6-6262-8081	daeski17@kotra.or.kr
5	백현수	과장	나고야무역관	81-52-561-3932	payback@kotra.or.kr
6	심용현	과장	나고야무역관	81-52-561-3955	joshuashim@kotra.or.kr
7	김성영	과장	후쿠오카무역관	81-92-473-2005	youngkim@kotra.or.kr



# 2026 일본 진출전략



ISBN: 979-11-402-1463-1 (93320)  
979-11-402-1464-8 (95320)(PDF)